연구자료 25-2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구조변화 연구

박민숙
최지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안보, 세계지역연구, 국제개발연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 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 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연 구 자 료
25-21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구조변화 연구

박민숙·최지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자료 25-21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구조변화 연구

인 쇄 2026년 4월 24일
발 행 2026년 5월 1일
발 행 인 이시욱
발 행 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02-6948-9650)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2539-5 94320
978-89-322-2064-2(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국문요약

중국의 외국인투자(FDI) 환경은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양적 팽창기를 지나,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을 목표로 기술 자립·첨단산업 육성·내수 중심 성장전략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질적 고도화·구조적 재편의 국면에 진입하였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바이오·통신 등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방을 심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첨단·전략산업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 유입되는 전체 외국인투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첨단기술 제조업과 이를 지원하는 생산성 서비스업(R&D·기술 서비스 등)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 구조가 기술 집중형으로 고도화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방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국내 경제성장 둔화를 배경으로 외국 기업의 현지 경영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데이터보안법」·「반간첩법」 시행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심사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환경 규제(쌍탄소 정책) 강화, 노무 규제 집행 강화 및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울러 중국은 핵심 기술의 국산대체와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제도 정비를 통해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변화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속에서 전면적인 탈중국보다는 자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위험 관리(de-risking)와 선별적 잔류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자동차 및 화학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 불가능한 거대 시장으로 인식하고, R&D와 생산을 현지에서 완결 짓는 현지화 심화 전략과

재투자 확대를 통해 방어적 현지화를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작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 아래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투자는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소비재 및 일반 제조기업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중국 내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이후 지정학적 긴장과 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China+1' 전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에서는 내수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현지 기업과의 협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디리스킹 및 다변화 흐름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도 관찰된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수교 이후 빠르게 확대되면서 2000년대 초반 해외투자의 핵심 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성장 방식 전환과 성장 둔화, 미중갈등, 코로나19 이후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흐름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가 급감하면서 대중국 신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된 반면, 미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투자 다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수요 부진, 중국 기업과의 경쟁 격화,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유출 위협 등 복합적인 경영 애로에 직면해 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HL만도·코스맥스·삼양식품 등 일부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합작·자산 경량화·타깃 맞춤형 프리미엄 현지화 전략을 통해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투자 확대 사례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과거의 '핵심 투자축'에서 전략적 재조정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라는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 구조를 능동적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할 때, 향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전략은 다음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국 내 R&D·생산·판매를 일원화하는 독립적인 현지 완결형(local for local)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한국 본사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대규모 단독 출자 방식(그린필드 투자)을 소규모 지분 투자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자산 경량화 투자로 전환하고 OEM·ODM 방식의 외주 생산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 내 사업은 현지 내수 시장을 겨냥한 공급망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수출용 생산기지는 아세안 및 인도 등으로 분산하는 'China+1' 공급망 이원화 전략을 병행하여야 한다. 넷째, 투자 방향을 저부가가치 범용 시장에서 첨단기술 제조업·생산성 서비스업·친환경 산업 등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시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반간첩법」 개정 및 「데이터보안법」 시행 등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 시장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7
3. 연구의 구성 ····· 19

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변화 분석 ····· 22

1.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분석 ····· 22
   가. 시기별 외국인투자 환경 ····· 22
   나. 중국 내 투자여건 악화 ····· 29
2.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분석 ····· 41
   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정책 ····· 41
   나. 산업연계형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46
3. 소결 ····· 55

제3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 및 구조변화 분석 ····· 57

1. 중국 외국인투자 현황 ····· 61
   가. 시기별 투자 현황 ····· 61
2. 중국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구조 분석 ····· 68
   가. 업종별 투자 현황 ····· 68
   나. Orbis 분석 ····· 72
3. 소결 ····· 79

제4장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전략 및 진출 현황 분석 ····· 81

1. 주요국의 대중국 진출 전략 ····· 81
   가. 독일 ····· 83
   나. 미국 ····· 94
   다. 일본 ····· 103
2. 주요국의 대중국 진출 현황 ····· 113
   가. 중국진출 독일기업의 경영실태조사 ····· 113
   나. 중국진출 미국기업의 경영실태조사 ····· 115
   다.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조사 ····· 118
3. 주요국의 대중국 진출 기업 사례 ····· 125
   가. 독일기업의 중국 사업 사례 분석 ····· 125
   나. 미국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분석 ····· 129
   다. 일본기업의 중국 사업 투자 축소·철수 사례 ····· 136
   라.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 사례 ····· 139
4. 소결 ····· 142

제5장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구조변화 분석 ····· 146

1.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 146
   가. 한국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위상 ····· 146
   나. 제조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 150
2. 한국의 생산기지 다변화 현황 ····· 154
   가. 한국의 대중 투자 구조조정 ····· 154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구조조정 사례 ····· 160

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분석 ····· 167
4. 소결 ····· 172

제6장 결론 ····· 174

1. 요약 ····· 174
가. 중국 외국인투자 환경 및 구조변화 ····· 174
나.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특징 ····· 177
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특징 ····· 179
2. 시사점 ····· 181
가. 전체 시사점 ····· 181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84

참고문헌 ····· 189

Executive Summary ····· 207

표 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 ····· 17
표 1-2. 본 연구의 차별성 ····· 19
표 2-1. 14·5 외자 이용 규획의 주요 내용 ····· 25
표 2-2. 중국의 시기별 투자환경 ····· 29
표 2-3. 중국 노무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비용 상승 ····· 31
표 2-4.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 ····· 35
표 2-5. 중국의 반도체 기금 비교 ····· 38
표 2-6. 중국의 산업·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책 ····· 39
표 2-7.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비교(2022년 vs. 2025년) ····· 43
표 2-8. 중국의 재투자 관련 세액공제 정책(2025년) ····· 45
표 2-9. 중국의 신질생산력을 위한 6대 미래산업 ····· 48
표 2-10. 중국 첨단과학 육성 정책(2010년~현재) ····· 49
표 2-11. 중국 서비스업 육성 정책 ····· 51
표 2-12. 중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 비교(2022년 vs. 2025년) ····· 53
표 2-13. 2025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신규) ····· 54
표 3-1. 커니의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2025년) ····· 58
표 3-2. 중국 FDI 집계 기준 및 주요 차이점 ····· 59
표 3-3. 중국 FDI 유입국 상위권의 구성 변화 ····· 65
표 3-4. 2024년 업종별 FDI 비중 ····· 68
표 3-5. 2024년 생산성 서비스업 FDI 증가 업종 ····· 70
표 3-6. ORBIS 유형별 개념 정의 ····· 72
표 4-1. 독일의 대중국 전략 ····· 90
표 4-2. 독일기업의 중국 현지화(Localization) 전략 ····· 94
표 4-3.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전략 ····· 102
표 4-4. 일본의 주요국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 105

표 4-5. 일본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 상위 업종 ····· 107
표 4-6. 일본기업의 업종별 경제 거점(2025년 기준) ····· 110
표 4-7. 생산기지 이전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 ····· 111
표 4-8. 미국기업의 중국 내 5대 비즈니스 도전 과제 ····· 118
표 4-9. 중국 내 일본 제조기업 법인 수와 매출액 추이 ····· 119
표 4-10. 중국 내 일본 제조기업의 지역별 조달 구조 변화 ····· 119
표 4-11. 최근 일본기업의 중국 내 경영상 애로사항(2019~23년) ····· 121
표 4-12. 독일 주요 기업의 대중국 투자 구조조정 및 전략적 잔류 사례 ·· 129
표 4-13. 미국 주요 기업의 대중국 철수, 투자·사업 전략 유형별 조정 사례 ····· 134
표 4-14.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특징 ····· 143
표 4-15. 중국진출 글로벌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 요약 ····· 144
표 5-1.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2024년 기준) ····· 146
표 5-2. 한국의 상위 10대 해외투자 대상국 ····· 148
표 5-3.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중국 투자통계 ····· 149
표 5-4. 한국의 대중국 투자통계(반도체) ····· 153
표 5-5. 최근 5년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 154
표 5-6. 대중국 투자의 구조조정 단계 ····· 155
표 5-7. 한국의 제조업 투자지역 변화 ····· 157
표 5-8.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 사례(2018년~현재) ····· 162
표 5-9. 최근 5년간 한국기업의 애로사항(2020~24년) ····· 168
표 5-10. 기술 유출 관련 유형(2024년) ····· 170
표 6-1. 중국 외국인투자(FDI)환경과 구조변화 요약 ····· 17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 ····· 21
그림 2-1. 주요국의 월평균 소득 추이(2020~24년) ····· 32
그림 3-1. 중국 외환관리국 및 상무부 기준 대중국 FDI 추이 ····· 62
그림 3-2. 외환관리국 투자통계 내 금융투자 비중 ····· 64
그림 3-3. 중국의 FDI 유입 현황 ····· 67
그림 3-4. 제조업 FDI 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 69
그림 3-5. 중국의 첨단 제조업 FDI 규모 및 제조업 내 비중 변화 추이 ···· 70
그림 3-6. FDI 추이 및 비중 변화 ····· 71
그림 3-7. 대중국 FDI 투자 방식별 규모 추이 ····· 73
그림 3-8. 대중국 FDI 투자 방식별 비중 추이 ····· 74
그림 3-9. 프로젝트형 신규 투자(New) 추이 ····· 76
그림 3-10. 주요 산업별 프로젝트 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 ····· 77
그림 4-1. 독일 ODI 국가별 순위(투자 잔액, 2023년 기준) ····· 84
그림 4-2. 독일 ODI 내 중국 비중(투자 잔액) ····· 84
그림 4-3.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 85
그림 4-4. 독일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비중(투자 잔액) ····· 87
그림 4-5. 독일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투자 잔액) ····· 88
그림 4-6. 독일의 대중국 서비스업 직접투자 추이(투자 잔액) ····· 88
그림 4-7.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구성 추이: 자본금과 재투자이익 (유입액) ····· 93
그림 4-8. 2024년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투자 잔액) ····· 95
그림 4-9. 미국의 ODI 내 중국 비중(투자 잔액) ····· 95
그림 4-10.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 96
그림 4-11.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유입액) ····· 98
그림 4-12.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세부 업종 직접투자 추이(유입액) ····· 99

그림 4-13.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업 주요 업종의 직접투자 추이(유입액) ·· 100
그림 4-14. 일본의 대중 투자 추이 ····· 106
그림 4-15.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 의향 ····· 114
그림 4-16. 향후 12개월간 중국 내 자원 투입 계획 ····· 115
그림 4-17. 중국 내 기존 및 향후 투자 목적 ····· 116
그림 4-18.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우선순위 변화 추이 ····· 117
그림 4-19. 중국 내 일본기업의 현지조달원 비중 현황 ····· 120
그림 5-1. 한국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 147
그림 5-2. 시기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목적 ····· 150
그림 5-3.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 151
그림 5-4. 한국의 지역별 생산기지 현황 ····· 156
그림 5-5. 한국의 대중국 투자회수 현황 ····· 160
그림 5-6.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2024년) ····· 169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글로벌 기업의 대중 재투자 사례(2024년) ····· 27
글상자 2-2.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41
글상자 4-1. ZF 프리드리히스하펜 ····· 126
글상자 4-2. 바스프 ····· 127
글상자 4-3. 테슬라 ····· 131
글상자 4-4. 애플 ····· 131
글상자 4-5. 세콰이어 캐피탈 ····· 133
글상자 4-6.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중국 내 현황 ····· 137
글상자 4-7. 일본제철 중국 내 사업 현황 ····· 139
글상자 4-8. 다이킨공업의 중국 내 사업 현황 ····· 141
글상자 5-1. 한샘의 중국 내 사업 구조조정 현황 ····· 164
글상자 5-2. 코스맥스 ····· 166
글상자 5-3. 삼양식품 ····· 166
글상자 5-4. 중국진출 외국 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 171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들어 경제 불확실성과 국제정세 긴장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감소세를 보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조 3,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1] 이 가운데 선진국으로 유입된 FDI는 15% 감소하였고,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FDI 역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2]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FDI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도 외자 유입이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 심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 자립도 상승,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중국 외환관리국 기준 FDI는 2021년에 3,44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3] 중국의 FDI 규모는 2022년 2/4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23년 3/4분기에는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투자 규모가 186억 달러로 급감하며 1990년대 초반 수준을 기록했다.[4] 우려할 점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 의욕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5]

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4), p. 3.
2) 위의 자료.
3) CEIC DB(검색일: 2025. 3. 1.).
4) CEIC DB(검색일: 2025. 3. 1.).
5) Hideaki Kishida(2025. 2.).

한편 코로나19 전후로 전 세계 FDI 주요 지역이 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유럽이나 선진 아시아보다 더 많은 FDI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FDI 유입 규모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미래 산업(미국의 CHIPS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겨냥한 분야) 분야로의 투자는 그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으로, 반도체 및 전기차(EV) 관련 투자를 다수 발표했다.[6)]

지정학적 긴장과 국내 경쟁 심화로 제조업 FDI는 2022~23년 기준, 2015~19년 평균 대비 약 70% 감소[7)]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선진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미국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 외국 투자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추세는 일방적이지 않으며, 현재 감소세로 중국 시장이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탈중국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주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대세계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08~17년 중국의 대체 생산 지역인 ASEAN으로의 투자비중이 증가했고, 2018년 이후에는 미국, EU 등지로 해외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다. 물론 현재 중국의 시장 규모, 제조 인프라 및 인력풀, 원자재 조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탈중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한중 수교 이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202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

6) McKinsey Global Institute(2025. 9.), p. 53.
7) IMF(2024. 8.), p. 44.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동력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첨단과학 분야를 육성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한 탈중국이 불가능하며 대체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절실히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주요 생산기지인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전략과 투자 사례를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보고서는 기존에도 많이 있다. 특히 현상백 외(2022)에서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를 전후로 변화되는 중국의 투자 환경을 다각도로 연구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연구자(연도): 현상백 외(2022) - 연구목적: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통계분석 - 사례조사	-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 변화, 경영실태를 분석 -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진출 한국 제조업체의 경영실태 조사를 수행 -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대응 전략 및 대한국 정책 시사점을 도출

표 1-1. 계속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2	- 과제명: Diversifying, Not Decoupling - 연구자(연도): Kennedy and Palazzi(2024) - 연구목적: 대만기업의 탈중국 및 투자지역 다각화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미국 CSIS가 대만기업 610개 대상으로 탈중국 및 생산기지 다각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 대만기업들의 미·대만/중·대만 관계에 대한 인식, 탈중국 현황, 제조시설 생산기지 다각화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를 제시
	3	- 과제명: 중국 FDI 개방체제 수립의 국가 전략적 배경 - 연구자(연도): 이율빈(2024) - 연구목적: 2018~2019년 중국 FDI 개방 정책의 시행 배경 분석	- 문헌연구	- 중국의 FDI 개방 조치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 - 중국의 대대적인 FDI 규제 완화 및 법체계 통합은 내수중심 발전과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미국의 단기적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
	4	- 과제명: Profits of German investors in China – a first empirical stocktaking - 연구자(연도): Jungbluth *et al.* (2023) - 연구목적: 독일기업의 중국 투자 이익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설문조사 - 인터뷰	- 독일기업의 중국 내 투자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독일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수출 및 생산 전망, 현지화 전망, 중국 내 사업환경 등)를 실시
	5	- 과제명: 中国外商直接投资的新特征、新挑战及对策 - 연구자(연도): 谭小芬, 苏小湄 (2024) - 연구목적: 중국 FDI의 구조 변화를 토대로 고품질 FDI 유치를 위한 중국의 전략 모색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FDI 규모와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 - 중국 FDI의 주요 도전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
	6	- 과제명: Sectoral and Country-Origin Dynamics of FDI in China in 1997-2020 - 연구자(연도): Zhang(2023) - 연구목적: 중국 내 FDI 구조 변화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제공	- 문헌연구	- 중국의 FDI 추이를 산업별, 국가별로 분석 - 중국의 서비스 산업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분석 - 중국 FDI 감소 요인(노동 비용 증가, 환율 상승, 생산 능력 과잉, 국내 경쟁 심화, 미중 무역 전쟁 등)을 파악

본 자료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현황과 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투자 전략의 변화를 파악했으며, 사례 연구도 병행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경영환경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중국 내 글로벌 기업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통해 중국 내 글로벌 기업의 경영전략을 분석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재중 기업의 중국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중국 투자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2.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 중국의 투자환경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 - 글로벌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재중 기업의 중국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중국 투자방향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조사 - 전문가 간담회	-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이라는 이슈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방향 수립 - 최근 변화된 중국 내 경영환경을 파악하고 신규 투자 확대 요인을 분석 - 중국 내 글로벌 기업(독일, 일본, 미국 등)의 진출 전략 및 투자 사례 등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구성에 대해 서술했다.

제2장에서는 중국 FDI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시기별 투자 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여건 악화와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변화도 분석에 포함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했다. 먼저 시진핑 집권(2013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FDI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여전히 제조업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업과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는 중국 상무부와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추가로 Orbis 자료원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유형과 업종에 대한 분석을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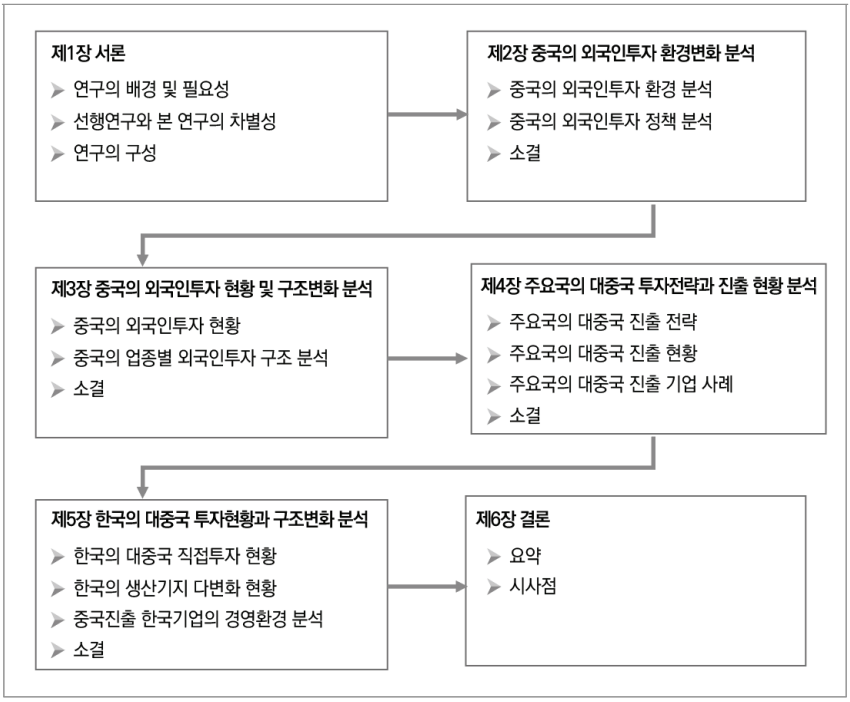
제4장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국 업종별, 시기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중국에 진출했던 자동차 및 화학 분야는 대중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위 산업(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을 기점으로 대중국 투자를 ASEAN으로 이전하는 전략 즉 'China+1'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투자전략, 중국 내 제조 생산기지 운용 현황과 투자 이전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 대상 경영실태 조사)를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은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JETRO와 JBIC에서 연례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국에서의 경영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주요국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중국 내 주요국의 기업 현황 및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투자 구조조정 사례(축소 및 철수, 확대)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을 정리했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분석했다.

제6장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의 특징을 종합하여 서술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수치와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투자 전략 및 정책을 중심으로 정성적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통계수치 분석 시 설명되지 않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Orbis 자료원을 활용하여 투자 유형과 업종을 분석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들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국(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경영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변화 분석

1.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분석

가. 시기별 외국인투자 환경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시기별 변화를 보이면서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다.[8][9]

먼저 중국의 초기 개혁 개방시기(1979~2001년)에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개방된 동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수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나 중국의 많은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분야가 제약적이었다. 1992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1990년대 초에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마카오·대만의 중소형 프로젝트였으나, 2001년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 비중이 현저히 상승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외국인투자 중 71.3%가 2차 산업(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었고, 27.1%가 3차 산업(서비스업)에, 1차 산업(농업 등)에는 1.6%만 투자되었다.[10] 중국은 1995년에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1995)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허가·제한·금지로 구분하여 관리했다.

다음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중요 투자지(2002~12년)로 부상한 시기다. 이

8) Rhodium Group(2024), pp. 7-9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구분했다.
9)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2019), 『跨国公司投资中国40 年』를 참고하여 작성.
10) 위의 자료.

시기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2001. 12.)하여 국내외 제조업 투자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제조업에서의 기술 습득과 숙련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2003년 중국정부가 인수합병(M&A) 관련 규정(「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을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가 활발해졌다.[11]

이 시기에는 중국이 세계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2002년 기준 중국은 FDI 유치 규모 세계 3위를 기록했고, 2003~08년 사이에는 다소 등락을 보였으나 2009년부터 4년 연속 세계 2위를 유지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개방 초기 동부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투자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계획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발표된 동북진흥계획, 2004년에 발표된 중부굴기 계획이 있다. 이 지역별 계획들은 모두 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했다.[12] 한편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에 따라,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급증하면서 산업구조에 변화도 생겼다. 2008년 외자기업 수를 기준으로 서비스업(54.5%)이 처음으로 제조업(42%)을 추월했고, 2012년에는 실제 외자 이용액 기준으로도 서비스업(50.9%)이 제조업(46.9%)을 넘어섰다.

그 다음은 '뉴 노멀'하에서 투자의 고품질 발전(2013~19년)을 중시한 시기다. 2013~18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2.8%로, 이전 단계(2002~12년)의 7.8%보다 둔화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투자 환경은 계속해서 개선되었으며, 외국인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간소화·관리·서비스(放管服)를 심화하면서 외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

11)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방식인 합자, 합작, 외자독자기업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3년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 공식화되었다.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2023),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검색일: 2025. 10. 15.).

12) 대표적으로 중부굴기, 동북진흥계획의 시행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수입관세 면제 항목으로 세금혜택, 외자 지분비율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참고로 2025년판 외국인투자목록에는 지역별 외국인투자 장려목록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자 유치 규모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투자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중국은 기존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이하 '산업지도목록')」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산업지도목록 및 중서부 우대산업목록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으로 발표하고 제도적 개방을 확대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투자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간 무역갈등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전방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중 갈등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제품의 수입선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수입품의 국산대체화(자급자족)를 통해 중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였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 주도의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2020년~현재)는 중국 내 외국인투자 환경과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된 시기다. 중국정부는 2020년 5월 내수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 기술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고 있는 '쌍순환 전략'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다. 이후 중국정부는 19기 5중 전회(2020. 10.)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을 제시하고, '14·5 외자 이용 규획'(2021. 10.)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14·5 외자 이용 규획은 양질의 외자 유치 확대 계획으로 특히 첨단 제조와 서비스 산업에 투자 확대를 꾀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14·5 외자 이용 규획을 통해 외자를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생태환경, 녹색 서비스 등 산업에 더 많이 투입하고 신형 인프라 건설 참여를 유도했다(표 2-1 참고).

표 2-1. 14·5 외자 이용 규획의 주요 내용

7대 중점과제	주요 내용
산업 구조 고도화	- 첨단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디지털경제, 녹색산업 유치 강화 - 생산자 서비스업(금융, R&D, 정보기술 등) 확대 - 글로벌 공급망 내 고부가가치 단계 유치
지역 배치 최적화	- 동부지역 고도화 - 중서부 및 동북지역 외자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FTZ), 경제기술개발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플랫폼 활용 강화
개방 플랫폼 기능 강화	-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 확대 -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 추진 - 경제기술개발구의 산업집적 기능 강화
제도형(制度型) 개방 확대	-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 내·외자 동등대우(国民待遇) 강화 - 투자 촉진·보호 제도 정비 - 국제 표준 규범(CPTPP, DEPA 등)과의 정합성 강화
경영환경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행정 간소화 및 투자 편의성 제고 - 외자기업 애로사항 해결 메커니즘 구축 - 법치화·시장화·국제화된 환경 조성
혁신협력 확대	- 외자 R&D센터 설립 장려 - 첨단기술 협력 촉진 -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 확대
안전 및 리스크 관리	- 국가안전 및 산업안전 고려 - 외자안전심사 제도 정비 - 공급망 안정성 확보

자료: 商务部(2021), 「"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022년에는 2020년에 발표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을 수정하여 발표했으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과 특정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전국 장려목록'에서는 중국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규칙 및 산업 고도화 및 탄소중립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제조업, 핵심 기술 부품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했다.[13]

13) 2022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목록과 특정지역

또한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2022. 10.)'[14]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과 더불어 첨단제조 분야(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등)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개방을 가속화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 분야에 311.2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했으며, 이는 전체 FDI의 26.8%에 해당한다. 중국정부의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확대 정책은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스마트화, 친환경 생산으로 전환하려는 중국 국가 전략과 일치한다. 첨단제조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증가는 중국의 산업 역량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15]

한편 2024년 들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내 수익을 중국기업에 재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투자에 대해 이연 과세 혜택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금액은 1,622억 8,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16]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재투자는 대분류상 총 68개 산업에 걸쳐 이루어졌다.[17]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에서 재투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재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 외상투자 우대산업목록,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KOTRA(2023), p. 40.

14) 国家发展改革委(2022),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印发《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的通知」.

15) China Briefing(2025. 11. 26.), 「China's FDI in 2025: What the First 10 Months Reveal」(검색일: 2026. 1. 20.).

1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中国外商投资报告 2025」, p. 4.

17) 위의 자료.

18) 위의 자료.

글상자 2-1. 글로벌 기업의 대중 재투자 사례(2024년)

1. BMW는 선양 다둥 공장 재투자
   - 2024년 4월, BMW 그룹은 랴오닝성 선양시와 전략적 협력 심화 협약을 체결하고, 선양 생산 기지에 200억 위안을 추가 투자해 다둥 공장에 대한 대규모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를 통해 BMW는 산업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 공급망 강화,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양시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함. 동북 지역의 신에너지 및 스마트 커넥티드 산업 클러스터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신형 생산력을 통해 제조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지능적이며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이끌 예정임.
2. 폭스바겐 그룹은 허페이 생산 혁신 센터 확장
   - 2024년 4월, 폭스바겐 그룹은 25억 유로를 투자해 허페이에 위치한 생산 혁신 센터를 추가 확장하며 현지 R&D를 강화하고, 샤오펑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 두 종을 허페이에서 생산할 예정임.
   - 첫 번째 차량은 중형 SUV로, 2026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임. 이 새로운 모델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제품 라인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며, 2030년까지 그룹 산하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 30종 이상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제공할 예정임.
3. 사우디 아람코는 중국기업과 함께 정유·화학 통합 프로젝트 개시
   - 2024년 11월, 사우디 아람코는 중국 석화 및 푸젠 정화와 함께 정유·화학 통합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는 푸젠성 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투자 프로젝트로, 총투자액은 711억 위안에 달함.
   - 이 프로젝트는 30개 이상의 대형 정유화학 설비를 건설하고, 매년 원유 1,600만 톤을 처리하여 항공유 및 선박 연료유 288만 톤, 폴리올레핀 등 화학제품 1,270만 톤을 생산하며, 고급 석유화학 제품을 하류 산업에 공급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구레이 석유화학 기지의 산업 체인을 더욱 완비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촉진하고자 함. 2030년 전면 가동이 예정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中国外商投资报告 2025」, p. 10.

또한 이 시기에는 R&D 센터 설립이 증가되었다. 중국의 R&D 자금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3.6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총규모로는 세계 2위 수준이다. 중국의 혁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R&D 투자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상하이에 새롭게 설립된 외자 R&D 센터가 30개에 달했다. 베이징에서도 2024년에 새롭게 설립된 외자 R&D 센터(의약 건강,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등 분야)가 110곳을 초과했다.

2025년 들어서도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 2월 중국은 외국인투자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4개 분야 대상 20개

세부 조치를 담은 계획인 '2025년 외국인투자 안정화 행동 계획'[19]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촉진 및 인센티브 강화, 내국민 대우와 공정한 환경조성, 서비스 보장 강화(비자 및 거류편의, 데이터 국외이전, 금융서비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감소와 중국 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탈중국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 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중국 내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축소됨에 따라, 외국 투자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시장 장벽과 차별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중국 내 경영을 유지 혹은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적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여건 악화(대외관계 불확실성 증대,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경영비용 지속 상승 등) 등 원인으로 미국과 EU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 생산기지 거점을 축소하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자본의 재조정 역시 간접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중국 간 금리 격차의 축소 및 역전 현상이 대표적인 요인이다. 2020년 당시 주요국 금리는 0%대(미국 0~0.25%, EU 0%, 한국 0.5%)였으나, 중국의 경우 4%대였다.[20] 이후 주요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결과 2023년 말 미국과 EU의 금리는 5.375%와 4.5%까지 상승한 반면 중국은 3.45%까지 인하해 역전 폭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즉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과 달리 중국은 금리를 인하해 주요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자금이 유출되었다.[21]

---

19) 中国政府网(2025. 2. 17.), 「2025年稳外资行动方案」(검색일: 2025. 9. 20.).
20) 2020년 주요국 정책금리는 미국 0~0.25%, 유로존 0%, 한국 0.5% 등 0%대였던 반면, 중국의 1년물 LPR은 3.8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1) Hideaki Kishida(2025. 2.), p. 2.

표 2-2. 중국의 시기별 투자환경

시기	주요 내용
1979~2001년	- 저렴한 생산 원가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 - 제약적 투자 환경(특정 산업에 대한 부분적 개방)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1995) -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우대정책 시행
2002~12년	- WTO 가입으로 인한 국내 및 무역·투자 정책의 변화 - 숙련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노동력 증가 - 서비스업 개방확대 - 지역별 투자유치 정책 시행 - 안정적이고 견조한 경제 성장
2013~19년	- 성장하는 대규모 소비자 시장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2013)으로 투자 개방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미중 갈등 심화), 대외 관계악화 -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 발표(2019)
2020년~현재	- 선별적 투자유치정책 시행 - 노동/환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4·5 외자 이용 규획」(2021) -「외국인투자 산업장려목록」(2022)에 중서부지역의 투자우대 산업 명시 - 정부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2022) - 과학기술분야 R&D 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안정화 행동 계획」(2025)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나. 중국 내 투자여건 악화

1) 중국 내 경영환경 비용 상승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시행으로 외자기업 우대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조세 혜택 및 우대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2008년 1월 내외국 기업에 동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여 내외자 기업의 법인세율을 동일

하게 유지하고 산업별·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외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중국기업 및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통일[22]되면서 세금우대 조치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영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노동 계약법」(2008년)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했으며, 노동계약 만료 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 조항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보상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18년부터 개정시행 중인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23]」 역시 노무관리 문제를 중국 내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부상시켰다. 특히 중국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의 기본 체계는 기존 법령을 토대로 하지만, 2020년대 들어 해석 및 시행 강화, 사용자 책임 강화, 보호 확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건비, 고정비, 행정관리 비용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인건비의 경우 사회보험 납부 집행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5대 보험(양로·의료·실업·산재·출산) 부담이 증가했다. 기간제 계약 규율이 강화되면서 무기한 계약 전환이 확대되어 인력 구조조정의 유연성이 감소하여 고정비가 증가했으며, 모성보호 차별금지 집행 관련 규제도 강화되어 출산휴가와 인사관리 등 비용이 증가하여 간접 관리비도 증가했다. 부당해고 판단 요건이 엄격해지고, 배상액이 증가하면서 해고 분쟁 리스크도 확대되었다. 그 밖에 내부 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 내 인사관리나 법무인력을 충원함에 따라 행정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표 2-3 참고).

22) 중국기업(33%)과 외국기업(15%)의 법인세율이 상이했으나, 법의 시행으로 세율이 동일하게 25% 부과된다. KOTRA(2023. 9.), p. 40.

23) 중국의 「노동법」은 1994년 제정된 이후 2009년 1차 개정되고 2018년에 2차 개정되었음. 全国人民代表大会(2019. 1. 7.),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검색일: 2025. 10. 17.).

표 2-3. 중국 노무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비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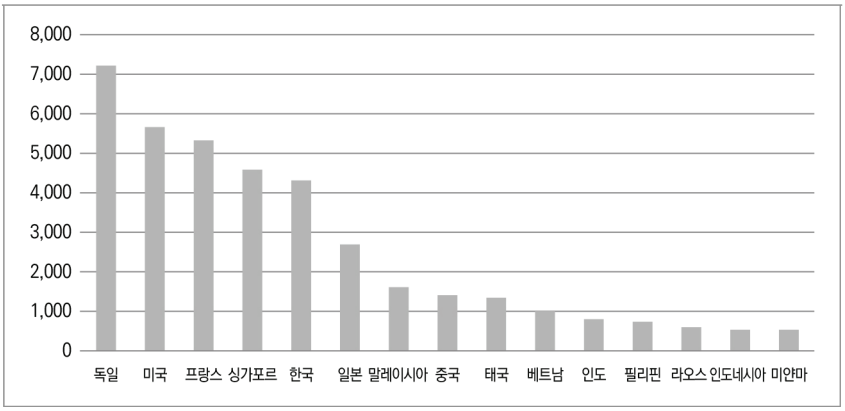
구분	내용	관련 법제도	비용 증가 요인	비용 성격
기간제 계약 규율 강화	2회 연속 기간제 계약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무기한 계약 체결 의무	「노동계약법」	- 인력 구조조정 유연성 감소 - 장기 인건비 고정화	고정비 증가
위법 해고 규제 강화	위법 해고 시 경제보상금의 2배 배상 의무	「노동계약법」	- 해고 비용 증가 - 노동분쟁 리스크 확대	우발비용 증가
사회보험 납부 집행 강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사회보험법」	- 5대 보험(양로·의료·실업·산재·출산) 사용자 부담 증가 - 과거 미납분 추징·가산금 리스크	직접 인건비 증가
플랫폼·신형 고용 보호 확대	플랫폼 근로자 보호지침 강화	「신취업형태 노동자 노동보장 권익 보호 지도의견」	- 보험·보상 비용 증가 -인력관리 비용 증가	준고정비 증가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채용·승진·복리후생 과정의 성차별 금지	「여성권익보장법」	- 출산·육아 지원비용 증가 - 인사관리·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간접관리비 증가

자료: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2012),「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2018).「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社会保障部(2021),「维护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保障权益的指导意见」;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2022),「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한편 중국 제조업의 노동력 비용은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보다 높다.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측정할 때, 2020~24년 사이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연평균 월 소득은 1,334.5달러로 베트남의 1.3배, 인도의 1.7배, 라오스의 2.3배, 인도네시아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주요국의 월평균 소득 추이(2020~24년)

(단위: 달러)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中国外商投资报告 2025」, p. 57.

중국의 환경 관리가 엄격해지고 처벌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게 환경규제 대응은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15년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24] 2018년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25]의 시행으로 환경오염 방지설비 구축과 친환경연료 사용 같은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그동안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경영이 가능했던 기업들에게는 설비투자(오염방지·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 등), 운영비(환경세·탄소배출권 구매 등), 에너지 관련 비용('에너지 총량·강도 이중통제' 정책[26]에 따른 전력 사용제한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중국 내 경영상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국가정책인 '쌍탄소 정책(2021)'[27]을 통해 중국은 제조업 분야 녹색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24)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2014. 4. 25.),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검색일: 2025. 10. 17.).
25)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2018. 11. 14.),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검색일: 2025. 12. 17.).
26)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2022. 1. 24.), 「国务院关于印发 "十四五" 节能减排综合工作方案的通知」(검색일: 2026. 2. 10.).
27) 2020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정점으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후, 쌍탄소(双碳)는 중국정부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었다. 中国政府网(2022. 9. 23.), 「碳达峰碳中和 "1+N" 政策体系已构建 "双碳" 工作取得良好开局」(검색일: 2025. 11. 7.). 2021년 중국정부는 녹색, 저탄소 전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

이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의 탄소 전략에 맞춰 녹색 및 저탄소 재활용 시스템, 녹색 및 저탄소 개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향후 다국적 기업은 쌍탄소 목표의 엄격한 제약하에서 탄소배출 감소 또는 탄소 제로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28]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중국 내 생산 요소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최근 중국 경제가 고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변화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둔화되면 내수 기반의 매출 기대와 기업 이익이 약화되고, 불확실성 상승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연기되면서 외국 기업의 설비 증설과 재투자 이익이 축소될 수 있다. 즉 FDI 유입(특히 그린필드 및 재투자 성격)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29]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 기대치를 낮췄다. 그동안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목표로 중국에 투자를 시행하던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FDI의 유인이 감소한 결과다.

한편 NBR 보고서[30]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결합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되어 2030년에는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 둔화 원인을 중국정부의 정책[31]에서 찾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산업 고도화를 위해 부동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도 녹색전환추진, 탄소중립 추진, 대기오염 방지, 생태계관리 강화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문지영 외(2022), p. 12.

2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2022. 6.),『跨国公司在中国：全球供应链重塑中的再选择』, p. 49.

29) Poulsen and Hufbauer(2011)에서는 경제성장 둔화 및 하락과 FDI 감소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FDI는 선행 변수라기보다 후행 변수기 때문에 중국 내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하락할 경우 신규 FDI 유입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30) Kroeber and Marek(2025).

31) 중국 경제는 불가피한 감속인 구조적 요인과 선택적 감속인 정책적 요인에 의해 성장이 둔화되었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제발전, 성장동력 소진(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 등), 인구구조 변화(생산가능 인구 감소), 시장 개혁 축소와 국가 주도 강화를 들 수 있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정부부채 억제와 금융위험관리, 부동산 억제와 자본의 첨단제조 전환, 인터넷 기업 단속에 의한 민간 투자심리 저하 등이 있다.

산으로 집중된 자본을 첨단 제조업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요 성장동력이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고, 민간 인터넷 기업 단속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도 경제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3)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시행

중국정부는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기업제재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지만, 자국 첨단 기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국 기업 보호 및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통제 리스트 등 규제 제도를 수립하고,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리를 위해 2019년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32]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안전 심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며, 이를 근거로 2020년 12월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국가안전 심사를 위한 통일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관련 분야에 대한 규칙과 제도를 제시한 것이다.[33]

둘째, 중국판 수출통제 리스트를 마련하였다. 미중 간 기술 갈등은 미국이 중

32) 중국정부는 그동안 외자 3법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해왔으며, 수차례 지도목록의 수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왔다. 2019년 중국정부는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민숙, 이효진(2019).

33) 위의 자료.

국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중국판 수출통제 리스트(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를 제정하여, 자국 기업, 조직, 개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시 정부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대해서 필요시 조치를 시행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중국정부가 진행하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입법 규제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되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이슈가 부상하면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개인정보보호 등이 국가 대응 의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정부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을 통해 국외 이전 및 역외 적용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또한 개정된 「반간첩법」이 2023년 7월에 시행되면서 간첩행위의 범위가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문건의 취득·제공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로까지 확장되었으며, 국가안보기관의 조사·처분 권한도 대폭 강화되었다.(표 2-4 참고).

표 2-4.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

종류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법」 (2019. 3.)	-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 심사를 한다고 규정(제35조)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제33조)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2020. 9.)	- '외국의 실체(외국 기업, 기타 조직, 개인 포함)'의 행위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중국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제2조)

표 2-4. 계속

종류	주요 내용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2021. 1.)	- 외국의 법률·조치가 중국에 부당하게 적용되는 것을 차단, 국가 주권·안보(안전)·발전이익 수호, 중국 국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제1조)
「반외국제재법」 (2021. 6.)	-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중국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제1조)
「사이버보안법」 (2017. 6., 2020.1.)	- 사이버 안보 보장, 사이버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 공공이익 수호(제1조) - 통신·정보 서비스·에너지·교통·금융·공공서비스·전자정부 등 중요 산업(영역) 관련 기능 상실 또는 데이터가 유출되면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민생, 공공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하여 중점 관리 실행(제31조) - 중국 국내에서 수집하고 생성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저장하도록 규정(제37조)
「데이터 보안법」 (2021. 9.)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의 처리 활동에 대해 국가안보 심사 진행(제24조) -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중국 내에서 생산된 중요 데이터인 경우 역외이전 제한 ㅇ 국가안보 및 이익 보호,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제 품목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수출통제 실시(제25조) ㅇ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한 중요 데이터의 해외이전(出境)에 관한 보안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규정 적용(제31조) - 어떠한 국가 및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 등과 관련된 투자·무역 등의 영역에서 중국에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한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지역)에 그와 상응하게 조치(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2021. 11.)	-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국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거나 중국의 국가안보 및 공익을 위협하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중국 당국은 해당 관계자를 개인정보 제공 금지 및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고 관련하여 조치(제42조)

표 2-4. 계속

종류	주요 내용
「반간첩법」 (2023. 7.)	- [간접행위] 1) 간첩 조직 및 대리인이 실시하거나 지시 및 자원 조달한 활동, 또는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이 이들과 결탁하여 실시한 국가안보에 위해한 활동 2) 간첩 조직에 가입하거나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하는 것, 또는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의탁(투항)하는 행위 3)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 이외의 기타 역외 기구·조직·개인이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자원 조달한 활동, 또는 국내 기구·조직·개인이 이들과 결탁하여 실시한 국가 비밀·정보 및 기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계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절취·탐지·매수·불법 제공하거나, 국가 공무원을 변절하도록 책동·유인·협박·매수하는 활동 4)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자원 조달한 활동, 또는 국내외 기구·조직·개인이 이들과 결탁하여 국가기관, 기밀 취급 단위 또는 핵심 정보 인프라 등을 겨냥해 실시한 네트워크 공격·침입·간섭·통제·파괴 등의 활동, 5) 적을 위해 공격 목표를 지시하는 행위 6) 기타 간첩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제4조) - 국가안보기관은 간첩 행위와 연관된 온라인 정보 해킹·사이버 공격을 발견했을 경우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네트워크 방호벽 강화, 데이터 전송 중단, 프로그램 및 내용 제거, 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관련 앱(APP) 삭제, 관련 웹페이지 폐쇄 등 조치를 적시에 시행(제36조)

자료: 박민숙, 이효진(2019), p. 9; 현상백 외(2021), pp. 245~246, pp. 251~252; 최원석, 문지영, 김영선(2023), p. 12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4)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시행

중국은 미국의 대중 첨단기업 제재로 인한 공급망 단절 사태를 겪으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기술 경쟁이 안보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첨단기술 자립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화웨이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는 중국의 핵심 기술 자립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이후 중국은 미국의 기술 의존이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화와 연관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육성계획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기술자립 프로젝

트[34]을 통해 반도체 자급자족 계획을 시행 중이며, 중국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반도체 육성정책을 추진했고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투자발전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을 조성하여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기금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고 지방정부의 자금을 투입해 SMIC, 화홍반도체 등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표 2-5 참고).

표 2-5. 중국의 반도체 기금 비교

구분	1기(2014)	2기(2019)	3기(2024. 5.)
자본금 규모	약 1,387억 위안	약 2,040억 위안	약 3,440억 위안
투자기간	2014~19년	2019~24년	2024~39년(15년)
주요투자자	재정부, 국제금융 등 국유기업	재정부, 지방정부 투자 플랫폼	재정부 + 6대 국유 상업은행 등 19개 기관
투자핵심	제조(파운드리) 중심 (60% 이상)	장비, 소재, 설계 (생태계 확장)	첨단 제조, HBM, 장비 국산화
주요대상	SMIC, 화홍반도체 등 대형 파운드리	중소 장비·소재 업체, 설계(팹리스)	AI 반도체, 노광장비, 선단공정
전략적 목표	산업 기초 형성 및 규모의 경제	공급망 전반의 자급률 제고	미 규제 대응, 첨단기술 자립

자료: 「大基金三期出手1640亿元，2025半导体行业动向如何？」(2025. 1. 3.); 「Six banks to invest in big way in IC fund」(2024. 5. 29.), ; "China sets up third fund with $47.5 bln to boost semiconductor secto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한편 중국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22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반도체, AI 등)에 대응하여 '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고, 2023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며 당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노광장비, 운영

34) 반도체의 경우 타산(Tashan, 塔山)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2023년까지 13,000개 이상의 부품을 국산으로 교체하고, 4,000개 이상의 회로 기판을 재설계하여 공급망에서 서구권 부품을 거의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

체제(OS), 핵심 소재 등을 '치아보즈(외부 의존적 핵심결핍 기술)'로 규정하고, 이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중국이 점유율을 가진 핵심 광물(희토류 등)을 무기화하여 서방의 기술 규제에 맞대응하고 있다. 그 밖에 '강군(强軍) 전략'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또한 자원 안보를 위해서는 수출 허가제를 통해 원석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련 장비 및 가공 기술까지 통제하고 있다. 2024년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조례」와 2025년 7월 시행된 「광물자원법」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율성보다는 국가의 직접적인 수급 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그 외 신질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여 공급망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고부가가치 장비, 신에너지차, 녹색환경, 민간항공, 해양공학) 및 미래산업(양자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다.

표 2-6. 중국의 산업·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책

종합 방향	시기	추진 계획
기술자립 (반도체, OS 등 핵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국산화 추진)	2022년 ~현재	- 제3차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2024. 5.): 약 3,440억 위안(약 64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반도체 제조 장비 및 AI 칩 국산화 집중 투자 - '데이터 20조' 가이드라인(2022. 12.): 데이터 요소 시장화 및 데이터 보안 자립을 통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전략 - 산업 표준화 제고 액션플랜(2024. 1.): 신산업(6G, AI, 신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통해 서구권 기술 표준 의존 탈피 - 과학기술혁신 재대출 프로그램(2024. 4.): 5,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을 통해 중소 과학기술 기업 및 핵심 기술 국산화 기업에 낮은 이율로 자금 제공

표 2-6. 계속

종합 방향	시기	추진 계획
자원안보 (철광석 자급률 향상('기석계획'), 핵심 광물 수출 규제)	2022년 ~현재	-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2023. 8.): 차세대 반도체 필수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미국 규제 보복 성격) - 흑연 수출 통제(2023. 12.):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고순도 흑연 수출 통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장악력 활용 - 안티몬 수출 통제(2024. 9.): 방산 및 태양광 소재로 쓰이는 안티몬의 수출 제한. 이중용도(군사·민간) 관리 강화 - 대미 수출 전면 금지(2024. 12.): 미국 반도체 장비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의 미국행 수출 전면 금지 - 희토류 관리 조례(2024. 10.):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굴, 제련, 유통 전 과정을 당·정부가 직접 통제
물류/운송 (공급망 '화이트리스트' 운영, 중점물자 보장 시스템 구축)	2022년 ~현재	- 14·5 현대 물류체계 발전계획(2022. 12.): 국가 물류 허브(120개) 구축 및 철도·수운 중심의 복합 운송 강화.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 극대화 - 스마트 물류 및 무인배송 지원(2024. 1.): 드론 배송, 자율주행 트럭, 스마트 창고 확대. 인력 부족 등 돌발 변수에도 가동 가능한 물류망 구축 - 사회 물류비용 하락 행동방안(2024. 11.): GDP 대비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혁.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동시 확보 - 녹색 해운 회랑(Green Shipping Corridor)(2025. 1.): 주요 항로(예: 상하이-LA)의 저탄소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수출 공급망 유지
신산업 육성 ('신질생산력' 중심의 AI, 저탄소 산업 공급망 고도화)	2023년 ~현재	- 신질생산력 육성(2023. 9.):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고품질 생산력 강조. AI, 양자 등 '미래 산업'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공급망 완결성 추구 - 저고도 경제(Low-altitude Economy)(2024. 3.): 드론, UAM(도심 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 수직 이착륙기 공급망을 선점하여 차세대 교통 물류 주도권 확보 - 미래산업 혁신발전 실시의견(2024. 1.):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컴퓨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미래 산업 선정 및 국책 과제 투입 - 인공지능 플러스(AI+)(2024. 3.): 제조업 현장에 AI를 전면 이식하여 생산 효율 극대화. 중국산 LLM(대형언어모델)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教育部, 科学技术部, 中国人民银行,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国家知识产权局(2024. 1. 29.),「关于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24),「稀土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85号)」;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3. 10. 20.),「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3年第39号 关于优化调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公告」, (2023. 7. 3.),「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3年第23号 关于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科学技术部, 财政部, 中国民用航空局(2024. 3. 27.),「通用航空装备创新应用实施方案(2024-2030年)」등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2.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분석

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정책

1) 투자 진입 완화 정책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적격외국인투자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정책을 정리하였다.

첫째, 외국인투자의 주요 지침이자 중요한 투자 진입 완화 정책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35]다. 중국은 2013년부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왔다.

글상자 2-2.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시범 도입을 거쳐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2025년 기준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역에 적용되는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험구만 적용되는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분해서 시행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3년마다 개정 발표되어 오고 있으며, 발표 시 매번 투자 제한 항목 수를 축소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내용

항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4
투자제한	35개	21개	17개	12개	10개	9개
투자금지	28개	27개	23개	21개	21개	20개
합계	63개	48개	40개	33개	31개	29개

자료: 양평섭 외(2024),「대전환기의 대중국전략연구 2」, p. 509.

35)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4년에 발표된 2024년판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수는 29개로 2021년 31개에 비해 축소되었다. 2024년판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이 사라지면서 제조업 분야가 전면 개방되었다. 2021년까지 제한을 두던 제조업 분야, 출판물 인쇄, 중약재를 이용한 생산제조 조항이 2024년판에는 모두 삭제되었다. 한편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2021년에 이미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이 사라졌다.

둘째,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별개로, 전 산업의 내·외자 기업에게 공통으로 적용시켜 외국인투자를 관리하고 있다. 2018년 최초 도입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36]는 2022년판을 거쳐 2025년 4월 추가로 개정되었다. 2025년판은 2022년판 대비 항목 수가 117개에서 106개로 축소되어 진입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서비스업의 시범 개방과 함께 의약품·바이오 분야의 진입 제한도 함께 완화되었다. [37]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는 드라마 제작 분야의 진입 제한이 일부 완화되었고, 통신 사업의 시범 운영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외자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반면 국가 안보나 질서와 직결된 신흥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에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전자담배 등 새롭게 부상한 업태들이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또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분야는 국민 보건과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심사 문턱이 높아졌다.

---

36) 중국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산업, 부문 및 활동을 정의한다. 이 리스트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명시하는 외국인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와는 다르다.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5. 4. 24.), 「关于印发《市场准入负面清单(2025年版)》的通知」.

37) 의약품 도소매 업체 설립 및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부분 해제되었다. 또한 바이오 및 의료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치료가 개방되었으며, 그간 외자 진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CGT) 분야가 베이징, 상하이, 광둥(웨강아오 대만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특정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되었다. 추가로 외자 단독 병원 설립이 가능한 도시가 확대되었으며, 바이오 의약품의 현지 임상 시험 및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표 2-7.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비교(2022년 vs. 2025년)

일시	2022년판	2025년판	비고
전체 항목 수	117개	106개	시장 진입 지속적 개방
제조업	일부 제한	완전 개방	세계적 공장 지위 공고화
관리분야	전통적 인프라	데이터, 드론, 신에너지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
행정 절차	허가	등록 후 사후 관리	기업운영의 편의성 제고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2. 3. 25.), 「市场准入负面清单(2022年版)的通知」, (2025. 4. 24.), 「关于印发《市场准入负面清单(2025年版)》的通知」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셋째,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제도다. 적격외국인투자자 제도는 2002년 도입 이후 펀드운용사·은행·보험사·연기금·국부펀드 등 913개 기관을 유치했으며 운용자산 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한다.[38] 중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일찍 시행된 개방 제도인 QFII 제도는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자산 배분 채널 역할을 하며,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기여해 왔다. 2025년 10월 2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적격외국인투자자 제도 최적화 작업 계획'을 발표했다.[39] 계획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자격심사와 계좌개설 절차 통합, 장기투자형 외국자본 심사 우대 등 진입 편의 조치를 즉시 발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단기매매 규제를 내국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중국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인투자자문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당국은 적격외국인투자제도를 통해 역내외 투자채널 협력 강화와 장기·단기 자금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40] 향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작업 계획에서 제기한 각종 개방 및 최적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38) "China unveils biggest upgrade of foreign investor rules since 2020 to boost long-term inflows"(2025. 10. 27.), (검색일: 2026. 1. 20.).
39)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2025), 「《合格境外投资者制度优化工作方案》」.
40) 「境外投资者迎来 "大礼包" : 准入提速、交易享国民待遇」(2025. 10. 27.), (검색일: 2025. 10. 29.).

2) 투자 확대 전략 추진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그동안 보수적으로 개방했던 분야(제조업, 금융, 통신, 의료 등 분야)에 대한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투자중국(投资中国)' 전략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투자중국 전략은 '외국인투자유치와 해외투자' 전략을 병행하여 핵심 투자유치 행사를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해당 전략은 2024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Invest China Summit 2024[41]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투자 촉진 수준 제고를 위해 투자중국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주요 투자 유치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유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얻은 이윤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며, 외자기업의 국내 투자 정보 보고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 제도적 개방확대, 소통채널 상설화(외국기업 간담회, 데이터 국경간 이동 완화 등), 지역별 맞춤전략, 외자기업의 서비스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를 순회하면서 글로벌 설명회[42]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CEO 원탁회의, 산업·지역별 프로젝트 리스트 공개, 온·오프라인 투자 정보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중국 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꾀하고 있다.[43]

또한 중국정부는 2025년에 중국 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44]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41) 2024년 3월 26일, 중국 상무부 주최로 열린 이 서밋에는 글로벌 CEO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정부는 "중국의 개방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42) 대표적으로 2024년에는 독일과 중동 아부다비에서 특별 홍보회가 개최됨. 독일에서는 4월 5일에 독일기업들과 바이오 헬스, 에너지 화학, 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진행했다. 12월 11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했다. 신에너지, 첨단 제조, 바이오 의약, 정보기술 등 분야의 중국기업 40여 개가 중동의 국부펀드와 투자 기관 70여 곳과 상담 및 매칭을 진행했으며,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IR 발표(로드쇼)를 실시했다.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中国外商投资报告 2025」, p. 17.

4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4), 「中国外商投资报告 2024」, p. 21.

44) 中国政府网(2025. 6. 27.), 「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税收抵免政策的公告」(검색일: 2025. 9. 20.).

해당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공제세액 대상은 이익 재투자일 이후 해외 투자자가 이익 분배 기업으로부터 얻는 배당금, 이자, 특허 사용료 등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다. 주의할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60개월) 이내에 투자를 회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회수 시 해당 기업은 7일 이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혜택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준수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표 2-8 참고).

표 2-8. 중국의 재투자 관련 세액공제 정책(2025년)

구분	주요 내용
시행기간	2025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세제혜택	적격 투자 금액의 10%를 해외 투자자의 해당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가능
공제대상	이익 재투자일 이후 해외 투자자가 이익 분배 기업으로부터 얻는 배당금, 이자, 특허 사용료 등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
자격요건	1) 이익형태: 중국 국내기업이 투자자에게 실제로 분배한 유보 이익으로 형성된 배당금 등 지분 투자 수익(자본증자, 신규설립, 배당 이익을 이용한 지분 인수 등 지분투자 포함) 2) 투자유형: 증자, 신규 설립, 비(非) 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지분 인수 등 지분 투자(상장회사 주식 신규·전환·인수(적격 전략적 투자 제외)는 불포함) 3) 산업분야: 피투자 기업이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에 속하는 산업 4) 최소 보유기간: 재투자분을 최소 5년(60개월) 이상 연속 보유 5) 자금흐름: 현금 지급 시 이익 분배 기업의 계좌에서 피투자 기업 또는 지분 양도인 계좌로 직접 이전되어야 하며, 국내외 다른 계좌를 경유해서는 안 됨
투자환수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 투자 회수 시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해야 하며, 해당 기업은 7일 이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혜택받은 세금을 반환

자료: 中国政府网(2025. 6. 27.), 「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税收抵免政策的公告」(검색일: 2025. 9. 20.).

나. 산업연계형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중국정부는 2010년 이후 첨단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15년) 7대 전략적 신흥산업[45] 육성을 본격화한 이후 2015년 '중국제조 2025', 14차 5개년 계획의 7대 전략 기술[46]등으로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정부 이후 과학기술 혁신에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 14차 5개년 기간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안보 수준으로 격상시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확대 및 개방을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발표된 정책들을 종합하면,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제도적 개방(시장 진입 완화)과 디지털 전환(AI+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전략하에 특정 산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하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정리하였다.

1)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고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제조 역량 확충을 넘어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산업 자립화 전략으로, 반도체·5G 통신·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45) 차세대 IT,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바이오, 첨단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46) 인공지능(AI), 양자정보, 집적회로(반도체),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임상 의학 및 헬스케어, 심해·우주·극지 탐사.

이러한 성과는 서방 국가들의 견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5년) 기간 동안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정책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 결과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은 과거 응용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원천 핵심 기술(choke point)의 국산화로 정책 중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중국은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서 산업기술 발전에 관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였다. 중국제조 2025를 시작으로 첨단기술의 자립자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4차 5개년 계획과 15차 5개년 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잘 나타난다.

먼저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5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술자립을 위해 디지털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수입 의존 문제를 해소하고 독자적인 산업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초부품·소재, 선진 기초공정, 산업기술 기반, 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47]

2024년에는 새롭게 신질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48]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중국정부는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미래산업, 데이터,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과학에 관한 정책을 확대하며 관련 분야의 육성을 본격화했다. 방대한 시장 잠재력과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의 6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표 2-9 참고).

47) 문지영 외(2021), p. 6.

48) 신질생산력은 2023년 말부터 강조된 개념으로, AI와 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력'을 의미한다. 단순한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질적인 성장을 뜻한다.

표 2-9. 중국의 신질생산력을 위한 6대 미래산업

종류	주요 내용
미래 제조	- 지능형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레이저 제조 및 순환 제조 발전: 지능형 제어, 스마트 센서, 시뮬레이션 등 핵심 원천 기술의 돌파구 마련 - 유연 생산 및 공유 제조 모델 추진; 산업 인터넷 및 메타버스 발전 촉진
미래 정보	- 차세대 이동통신, 위성 인터넷, 양자 정보 기술의 산업적 응용 추진: 양자 및 광자 컴퓨팅 기술의 혁신적 돌파 가속화 - 뇌 모방 지능(Brain-inspired intelligence), 군집지능 및 거대 모델의 심층 역량 강화 - 지능형 산업 육성 가속화
미래 소재	- 비철금속, 화학 산업, 무기 비금속 재료 분야의 첨단 기초 소재 업그레이드 추진 - 고성능 탄소 섬유 및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소재 개발; 초전도 재료와 같은 최첨단 신소재의 혁신적 응용 가속화
미래 에너지	- 원자력, 핵융합, 수소 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집중하여 수집, 저장, 운송에서 응용까지 미래 에너지 장비 시스템의 전체 체인 구축 - 신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 태양전지 및 관련 특수 전자 장치 연구개발: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가속화 및 에너지 전자 산업의 통합과 업그레이드 추진
미래 공간	- 항공우주, 심해, 심층 지하 영역에 집중하여 유인 우주 비행, 달 및 화성 탐사, 위성 항법, 근지구 우주 무인 시스템 및 첨단 고효율 항공기 등 하이엔드 장비 개발: 심해 잠수정, 심해 작업 장비, 심해 수색 및 구조 탐지 장치, 심해 지능형 무인 플랫폼의 연구 개발 및 혁신적 응용 가속화: 심층 지구 자원 탐사 및 채굴, 도시 지하 공간 개발 및 활용, 극지 탐사 및 작업 장비 개발 추진
미래 건강	- 세포 및 유전자 기술, 합성 생물학, 바이오 육종 등 최첨단 기술의 산업화 가속화 - 5G/6G,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규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 디지털 트윈 및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하이엔드 의료 장비 및 건강 제품 개발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中国外商投资报告 2025」, p. 56.

또한 중국은 2024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질생산력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했으며, 2024년에는 미국의 AI 기술 혁신 및 대중국 반도체 통제 등에 대응하여 'AI+ 행동' 정책을 발표했다(표 2-10 참고).[49]

49) 정지현 외(2024. 4. 12.).

표 2-10. 중국 첨단과학 육성 정책(2010년~현재)

시기	정책명	목표	주요 내용
2011 ~15	제12차 5개년 규획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시작	7대 전략적 신흥산업(차세대 IT, 바이오, 신에너지차 등) 선정
2015	중국제조 2025	저가 제조국에서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	10대 핵심 산업(차세대 IT, 로봇, 항공우주 등)의 국산화율 제고
2016	국가 혁신주도 발전전략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제1동력으로 설정	2020년(혁신형 국가), 2030년(혁신형 국가 선두), 2050년(세계 과학기술강국) 3단계 로드맵
201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2030년까지 중국을 세계 AI 혁신 센터로 육성	AI 핵심 기술 확보 및 산업 규모 1조 위안 달성
2021 ~25	제14차 5개년 규획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한 '기술 자립자강' 완수	7대 전략 기술 (AI, 양자정보, 반도체, 뇌과학 등) 집중 육성
2024	신질생산력 (新質生産力)	전통적 요소 투입 위주에서 기술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모델 전환	저탄소·친환경, 디지털 전환, 미래 산업(저고도 경제 등) 육성하며, 특히 AI, 반도체, 신에너지, 바이오 제조, 저고도 경제(드론 등) 집중 육성
	AI+(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 및 AI 산업 생태계의 실질적 적용 확대	제조업, 의료, 교육 등 전 산업에 AI를 결합하여 지능화 추진
	미래산업 육성 시행의견	미래 기술의 조기 산업화	양자 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핵융합 등 첨단 미래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100대 실증 응용 시나리오 개척과 함께 성·시별로 50여 개 특화 혁신 거점(선도구)을 지정해 지원
	'데이터 요소×' 3년 행동계획	데이터를 핵심 생산 요소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및 효율 극대화	12개 주요 산업군에서 데이터 활용 강화(2024~26)
	상업용 우주 및 저고도 경제 육성	우주 및 항공 분야를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으로 정식 편입	민간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저고도 항공 서비스(UAM 등) 산업화
	정부업무보고 과학기술 예산 증액	기초 연구 비중을 높여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한 '원천 기술 자립' 달성	2024년 과학기술 예산 10% 증액 (약 3,708억 위안)

표 2-10. 계속

시기	정책명	목표	주요 내용
2025	AI+' 행동 심화 실시 의견	전 산업의 AI 전환 및 수직형 AI의 심층 융합	단순 LLM 개발을 넘어 제조, 의료, 에너지 등 산업 전반으로의 AI 이식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주요 영역 AI 응용 보급률 70%, 2030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제시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발전 지도의견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기술 내재화 및 대량생산	핵심 부품(대뇌·소뇌·신체) 기술 확보 및 세계 선진 수준의 완제품 대량 생산(批量生产) 체계 구축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보상판매(以旧换新) 행동 계획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질생산력 확보	노후 장비를 AI 기반 스마트 설비로 교체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 우대 정책과 함께 R&D 비용 손금산입(최대 200% 인정) 및 소득세 직접 감면 등 금융·세제 지원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	현대화된 산업 체계의 완성	신질생산력을 실물경제에 전면 적용, 첨단 제조업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1),「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国家数据局(2023),「"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2024—2026年)」;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2015),「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国发〔2015〕28号)」, (2024),「推动大规模设备更新和消费品以旧换新行动方案」;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24),「《人形机器人创新发展指导意见》的通知」, (2024),「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 등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그 밖에 중국정부는 신질생산력의 향상을 위해 대규모 장비 설비교체(이구환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녹색저탄소, 스마트 지능화, 정보화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설비구입 시 각각 보조금과 투자세액환급 등을 지원하여 산업 공급망의 최적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50] 특히 산업 전반의 노후 장비를 자국산 첨단 로봇 및 AI 기반 설비로 교체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여 내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50)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24),「중국정부의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 p. 1.

2) 서비스업 육성 정책

중국은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미중 갈등에 대응한 신질생산력 강화와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쌍순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R&D 설계,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생산성 서비스업을 성장시켜 내부 공급망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와 배달 플랫폼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키워 내수 유통 속도를 높였다.

그 밖에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통해 가전·자동차 교체 시 관련 설치·정비·폐기 등 사후 서비스 산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표 2-11. 중국 서비스업 육성 정책

시기	정책명	목표	주요 내용
2011 ~15년	제12차 5개년 규획	양적 성장, 고용 흡수	-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 물류, 금융, 가전 하향 등 소비 기반 구축 -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위주로의 산업 구조 전환 선포. 물류, 금융, 가전 하향 등 서비스 소비 기반 마련
2016 ~20년	제13차 5개년 규획	혁신 주도 인터넷 융합	-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한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육성. 금융·문화 분야 외자 지분 제한 점진적 완화
2021 ~24년	제14차 5개년 규획 쌍순환 전략,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 제도형 개방	- 내수 확대를 통한 자립 경제 구축. 데이터 요소 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 고부가가치 서비스(R&D, 디자인)와 제조의 융합. 데이터 요소 활용 강화 및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2025년 ~현재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	신질생산력 육성, 서비스업 확대 개방	- AI+ 서비스 행동계획. 통신,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업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 및 시범 개방 확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1, 2016, 2021)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또한 중국정부는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를 시행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농업·임업·목축업·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11개 분야를 포함하며 전국 71개, 자유무역시험구 68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51] 2025년부터는 서비스업 개방을 통해 신질생산력과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52]

3) 산업 연계형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 실시

중국정부는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 포함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을 수정보완하면서 첨단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에 처음으로 목록을 지정한 후 중국 내 산업 체인을 정교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완결된 공급망을 중국 내부에 갖추기 위해 반도체 제조 장비, 특수 원자재, 핵심 소프트웨어 등 공급망 리스크가 큰 분야를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 포함했다. 생산형 서비스업(전문 디자인, 기술 서비스)도 목록에 포함시켰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목록을 2022년판 목록과 비교해 보면 중국 내 외국인투자가 더 이상 생산기지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환경분야가 환영받는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12 참고).

51)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2024. 8. 28.), 「최근 중국 서비스무역 동향 및 개방(네거티브 리스트)」, p. 11.

5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4. 11.), 「关于加快推进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的通知」(검색일: 2026. 2. 10.).

표 2-12. 중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 비교(2022년 vs. 2025년)

분야	2022년	2025년판(보완)	의미
스마트 농업	소프트웨어·장비 통합 활용	운영 중심 + 환경·농촌 인프라 결합	생산 → 시스템 투자 전환
농업 환경	농촌 환경 정비	농자재 폐기물 회수·자원화 추가	ESG 농업 명확화
석유·가스	탐사·개발 기술	셰일가스·CBM 포함, 회수율 기술 강조	비전통 에너지 확대
광산	광미 이용·복원	저품위·공반광 고효율 선광 추가	자원안보 강화
섬유	기능성 산업용 섬유	정량 기준·고급화·친환경 공정	저부가 제품 퇴출
의료용 섬유	치료용 소재	혈관·투석막 등 고난도 제품 확대	의료기기 연계
화학 소재	고성능 수지	반도체·태양광용 소재 명시	전략산업 직접 연계
정밀화학	전자화학품	저VOC·무용제·반응형 소재 추가	환경 규제 대응형 산업
수소	수소 제조 기술	저장·운송·연료 전환까지 확장	수소 산업화 단계
CCUS	CCUS 프로젝트	CCS 분리 + 사업화 강조	탄소 감축 실질화
의약	신약·제제 생산	ADC·항체·플랫폼형 R&D 포함	생산 → 혁신 생태계
세포치료	연구·생산	원료·대량배양·공정 소재까지 확대	공급망 통제
화학섬유	고성능 섬유	강도·생산능력 정량화	기술 문턱 설정
재생 섬유	재활용 섬유	화학적 재활용·순환경제 강조	탄소중립 대응
플라스틱	재활용	분류·고급 재생·IBC 회수 포함	전주기 관리
건축 자재	고성능 건자재	조립식·스마트 제조 명시	건설 산업 고도화
유리	디스플레이 유리	OLED·광전·고순도 기준 강화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계
복합소재	고기능 복합재	3D프린팅·초고압·항공용 확대	첨단 제조 대응
유색금속	고기술 합금	EV·반도체·로봇 적용 명확화	전략산업 맞춤
장비 제조	CNC·공정 장비	초대형·디지털·EV 재활용 설비	설비 국산화
자동차	경량 소재	일체화 다이캐스팅·EV 구조 대응	제조 패러다임 변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2),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2年版)」, (2025),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5年版)」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25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탄소·수소·반도체·혁신의약·EV·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서비스업의 전면개방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버 산업(노인 돌봄), 반려동물 병원, 현대 해운 서비스 등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민생 및 전문 서비스 분야가 장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13 참고).

표 2-13. 2025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신규)

대분류	신규	의미
농업·농촌	농자재 고형폐기물 회수·재활용	농업 → 환경관리 결합 투자 유도
	농촌 화장실 개선·농촌 환경 종합 정비	공공 인프라형 외자 진입 허용
	농산물 냉장·보관 시설 건설 + 운영	단순 건설 → 운영형 투자 전환
에너지·저탄소	CCS(탄소 포집·저장)	CCUS에서 저장 단독 분리, 기술 심화
	수소-암모니아 생산·저장·운송	수소 활용 산업화 단계 진입
	수소-메탄올 생산·저장·운송	수소 파생연료 체계 편입
	VOC(휘발성유기물) 종합 처리·자원화	환경규제 → 산업기회 전환
	이력(유휴) 광산 생태 복원	환경 복원형 투자 신규 허용
화학·신소재	집적회로(IC)용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핵심 소재 외자 유치
	반도체·태양광용 기능성 박막 소재	첨단 제조 공급망 강화
	생물기반 화학제품(바이오 케미컬)	석유화학 대체 전략
	저VOC·무용제 산업용 세정·봉지재	녹색 제조 표준 전환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등 고활성 수지	고부가 범용수지 차별화
바이오·의약	항체약물접합체(ADC)	글로벌 혁신신약 직접 유치
	GPCR 항체·다기능 항체	차세대 항체 기술 개방
	핵산계 의약품	mRNA 이후 파이프라인 대응
	방사성 핵 의약품	진단·치료 융합 산업
	혁신 신약의 중국 내 이전·현지화 생산	기술 이전형 외자 허용
	CRO·CMO·파일럿 시험·임상 전환 플랫폼 운영	R&D·플랫폼형 외자 유치
장비·EV	신에너지차 배터리 해체·재활용 설비	EV 전주기 산업 완성
	초대형 진공 열처리·저압 침탄 장비	항공·에너지 핵심 공정
	대형 일체화 다이캐스팅 금형	자동차 구조 혁신 대응
	스마트 금형(센서 ≥10개)	제조 디지털화 기준 제시
	연료전지용 탄소 담체 소재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
	SiC(탄화규소) 반도체 결정 소재	전력반도체 전략자산
복합·특수소재	적층제조(3D프린팅)용 수지 복합재	첨단 제조 공정 대응
	초고압 복합 호스(≥320MPa)	극한 산업용 부품
	항공용 대형 복합소재 타이어	항공 공급망 국산화
	원자로용 핵흑연 소재	에너지 안보 직결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5),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5年版)」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3. 소결

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중국 경제 성장의 구조적 둔화 등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본 장에서 분석한 주요 변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은 개혁·개방 이후 단계적으로 변화하며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해 왔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라는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첨단 산업 육성, 내수 중심 성장전략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이는 단순한 외자 유치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 중심의 선별적·고도화된 투자 유치로 정책 방향이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과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유치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 AI, 녹색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구조로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2024~25년에 걸쳐 발표된 정책들은 외국인투자를 단순한 자본이 아닌, 중국 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높이고 기술 자립(Self-reliance)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진입장벽이 완화된 반면 경영비용이 상승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심사 규제가 강화되는 양면적인 투자환경으로 변화하였다. 즉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개방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FDI 감소세에 대응하여 제조업 부문을 완전 개방(네거티브 리스트 축소)하고 서비스업(바이오, 통신 등 민감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범개방 확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적 개방을 심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노동집약적 생산거점형 투자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및 과학연구 서비스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 기술형 유치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

터 보안법」, 「반간첩법」 등을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쌍탄소 정책), 「노동법」 강화 및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투자여건이 악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셋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인 '신질생산력' 육성 정책을 통해 핵심기술의 국산대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생적 성장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하고,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산업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산업정책은 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강화, 전략 산업 보호를 축으로 하는 구조적 전환 전략이며, 개방을 유지하되 국가 통제와 전략적 선택을 강화하는 '선별적 개방'의 성격을 갖는다.

제3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 및 구조변화 분석

중국의 거시경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환경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먼저 중국정부는 국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贸促会)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2023년 4분기 중국 외자기업 경영환경 조사보고서, 2023年第四季度中国外资营商环境调研报告》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약 70%가 향후 5년간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 약 1.8%p 상승한 수치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상공회의소가 2024년 발표한 중국 내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각국 기업들은 중국을 중요한 해외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53]

글로벌 경영컨설팅사 커니(Kearney)가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54] 2024년에 중국이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외자 시장 진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다양한 투자 편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중국경제가 성장 둔화 가능성, 대외관계 불확실성, 선진시장 선호 확대 등 요인에 직면해서 소폭

53) 2024년 2월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보고서(中国商务环境调查报告)》에서는 응답한 미국기업 중 52%가 2024년에 중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투자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단 5%에 불과했음. 중국 내 일본상공회의소가 2024년 1월 발표한 "회원 기업 경기 및 사업 환경 인식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동안 과반수의 일본기업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진행했으며, 51%의 기업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시장" 또는 "3대 중요 시장 중 하나"로 평가했음. 중국 독일상공회의소가 2024년 1월 발표한 《2023/24년 비즈니스 신뢰 조사보고서 2023/24 年度商业信心调查报告》 역시 응답한 독일기업의 91%가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뿌리를 내릴 계획이며, 절반 이상은 향후 2년 내 중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발표한 《2023년 해외 기업의 중국 전망(海外企业看中国2023)》 조사에서는, 응답한 해외 기업 중 87%가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4), 「中国外商投资报告 2024」, p. 13 재인용].

54) 위의 자료; KEARNEY(2025).

하락했다. 현재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정책의 변화가 투자 결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어 대외관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무역과 관련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가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선진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변동성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높은 선진시장으로 회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 시장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표 3-1. 커니의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2025년)

구분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포함)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스페인	오스트리아
2025	1	2	**6**	3	5	7	4	9	11	10
2024	1	2	**3**	4	5	6	7	8	9	10
2023	1	2	7	5	4	6	3	18	8	10

자료: KEARNEY(2025), p. 4.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투자 현황과 투자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분석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통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상무부(MOFCOM: Ministry of Commerce)와 외환관리국(SAF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이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라 집계하고 있어 통계 수치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상무부는 '실제 이용된 외국인직접투자(Utilized FDI)'를 공식 통계로 공표하며, 이는 외국인투자 계약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해당 지표에는 현금 투자뿐 아니라 설비·부동산·기술 등 실물 및 무형자산 투자까지 포함되며, 주로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와 집행 진척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상무부의 지표는 실물경제 내 산업별 투자 구조와 투자 유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실제 국경 간 자본 이동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 기준에 따라 집계한다. 이 방식은 중국 내 금융기관 계좌로 실제 송금된 외화 유입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의 실질적인 유입·유출 흐름을 더욱 정확히 포착한다. 다만 산업별·기업별 세부 구조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상무부 통계를 공식 FDI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환관리국 통계를 국제수지 및 외환 흐름 분석에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중국의 FDI 구조와 산업별 변화 양상을 분석할 때 업종별 세부 자료가 제공되는 상무부 통계를 주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외국인투자 감소 국면에서 제기되는 자본 이탈 여부와 재투자 축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국의 국제수지 기준 FDI 통계를 보조 지표로 교차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물 투자구조와 자본 흐름 간의 괴리를 함께 해석하고자 한다.

표 3-2. 중국 FDI 집계 기준 및 주요 차이점

구분	상무부(MOFCOM)	외환관리국(SAFE)
명칭	실제 이용된 외국인직접투자 (Utilized FDI)	국제수지 기준 FDI (Balance of Payments FDI)
집계 기준	신규·증자 투자 금액, 현물, 기술 등 실제 활용된 투자 총액	외국 자본이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한 실제 외화 유입액
핵심 지표	투자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및 총 계약 금액	실제 자본 흐름 및 외환 거래

표 3-2. 계속

구분	상무부(MOFCOM)	외환관리국(SAFE)
활용목적	중국의 대외 개방 및 투자 유치 성과 홍보	중국의 국제수지 및 외화 자산 관리 및 분석
주요 차이	- 현금 외에 실물이나 무형자산 투자도 포함 - 계약 규모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많아 수치가 더 클 수 있음	- 실제로 송금된 외화만을 기준으로 집계 - 상무부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외화 유입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2024. 2. 19.), p. 2.

한편 중국 상무부 및 외환관리국의 통계는 중국 FDI의 총량 변화와 거시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개별 기업의 투자 전략 변화나 산업·기능별 재편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FDI 감소가 다수 기업의 동시 철수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조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장은 프로젝트 단위 정보를 제공하는 Orbis Crossborder Investment(이하 Orbis)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FDI의 미시적 구조와 질적 변화를 분석했다. Orbis는 Moody's Analytics 산하 BvD(Bureau van Dijk)가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2억 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 소유 구조, 산업 분류,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55]

기존 연구에 따르면 Orbis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 비교 연구와 기업 단위의 투자·생산성 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평가되어 왔으며, 세계은행 역시 이를 활용해 국영기업의 글로벌 분포와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56]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업의 소유 구조, 산업적 특성, 지역적 분포를 결합한 미시 분석에 활용되어 왔다.[57]

다만 Orbis는 상업적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표본의 비대표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Orbis에 포함된 기업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크고

55) KIEP 내부자료.
56) OECD(2020); World Bank(2022).
57) Garcia-Bernardo and Takes(2018. 11.); Bajgar *et al.*(2020).

설립 연수가 길며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포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Orbis 자료는 중국 FDI의 전체 규모나 평균적 기업 행태를 대표하는 통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본고는 최근 조정 국면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거나 조정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유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rbis가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주로 포착한다는 점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 중국 FDI의 변화는 다수의 소규모 투자보다 소수 대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Orbis는 최근의 투자 감소가 기업 전반의 철수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조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1. 중국 외국인투자 현황

가. 시기별 투자 현황

중국은 1990년대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세금 감면, 토지 사용권 제공, 저렴한 노동력 활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였고, 1992년 이후 FDI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초기 FDI는 제조업 중심으로 유입되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활용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했다.[59]

2000년대에는 WTO 가입을 계기로 FDI가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고, 2008년에는 유입 규모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업종 또한 제조업에서

58) Kalemli-Ozcan *et al.*(2015), pp. 6-7.
59) Lardy(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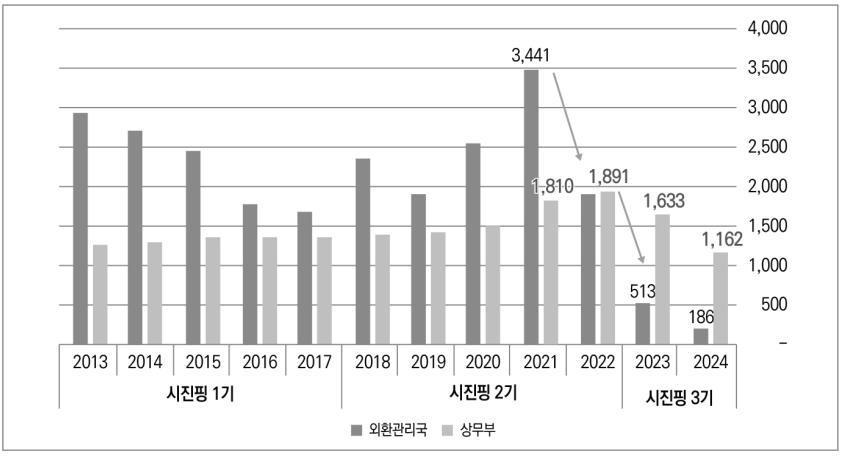
서비스업·금융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일시적 둔화가 있었으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였다. 2010년대에는 중산층 확대와 내수시장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수출 기지'를 넘어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더하며 외국인투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60]

이러한 장기적인 거시지표의 흐름은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시기와 맞물린다는 특징을 보인다. 본격적인 첨단기술 육성 정책이 추진된 시진핑 2기(2018~22년)에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중국의 내수와 정책적 유인에 힘입어 외자 유입이 정점에 달했다. 실제로 2022년 실제 사용 외자는 1,89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급감세가 뚜렷해진 시진핑 3기(2023년~현재)는 외국 자본이 투자를 관망하고 회수하는 시기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실제 사용 외자는 1,633억 달러, 2024년에는 1,162억 달러로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그림 3-1 참고).

그림 3-1. 중국 외환관리국 및 상무부 기준 대중국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26. 1. 12.).

60) The World Bank(202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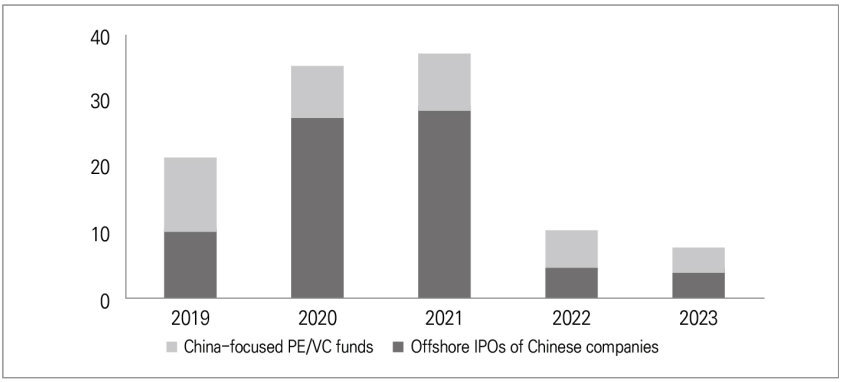
이는 미중 기술 갈등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코로나19 봉쇄 정책의 후유증, 인건비 상승 및 경제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디리스킹 전략에 따라 투자 거점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다.[61]

이러한 감소 흐름은 외환관리국의 국제수지 기준 FDI 통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외환관리국은 실제로 국경을 넘어 유입된 외화 자본을 집계하는 반면, 상무부 통계는 증자, 현물투자, 기술 출자, 재투자이익 등을 포함한 실제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본 유입 축소나 이익 송금 확대와 같은 변화는 외환관리국 통계에 민감하게 반영된다. BOP 기준 FDI와 실제 사용 FDI 간의 상당한 격차는 주로 재투자 수익과 기업 내 차입(intra-company debts)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유보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해외 모회사에 대한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 IPO 및 중국 관련 PE·VC 펀드를 통한 금융투자 역시 자금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다. 특히 2022년 이후 외환관리국 FDI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62] 이는 외국인투자가 단순히 철수하는 양상이 아니라, 자본 유입 방식과 자금 운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무부 기준 FDI 감소만을 근거로 전면적 탈중국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환관리국 통계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축소는 외국 기업의 신규 자본 유입 의지가 약화되고 자금 회수 및 위험 조정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3-2 참고).

61) "China no longer a top 3 investment destination for most US firms amid mounting business challenges"(2023. 3. 1.), (검색일: 2026. 1. 12.).
62) Lardy(2023); AMRO(2025. 4. 7.).

그림 3-2. 외환관리국 투자통계 내 금융투자 비중

(단위: 10억 달러)



자료: Lardy(2023); AMRO(2025. 4. 7.).

같은 기간 신규 외자기업 설립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2023년 53,766개였던 신규 외자기업 수는 2024년 59,080개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70,392개로 확대되었다.[63] 이는 외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입 자체가 급격히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무부 기준 실제 사용 외자 금액과 신규 외자기업 수를 토대로 산출한 투자 1건당 평균 규모는 2023년 약 300만 달러에서 2024년 약 20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위축되는 반면 소규모·분산형 투자 형태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의 FDI 감소는 전면적 탈중국보다는 대규모 자본 유입의 위축과 투자 소형화가 병행되는 구조적 재편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외국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기능적 재배치와 사업구조 경량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3) CEIC Database(검색일: 2026. 2. 23.).

1)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으로 국가별 FDI 유입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특정 투자 경로와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장기적인 순위 안정성과 함께 일부 변동이 관찰된다(표 3-3 참고).

표 3-3. 중국 FDI 유입국 상위권의 구성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3년		2018년		2024년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1	중국홍콩	73,397	중국홍콩	89,917	중국홍콩	73,810
2	싱가포르	7,229	싱가포르	5,210	싱가포르	10,686
3	일본	7,058	버진아일랜드	4,712	케이맨제도	5,516
4	버진아일랜드	6,159	한국	4,667	버진아일랜드	3,863
5	한국	3,054	케이맨제도	4,068	미국	2,737
6	미국	2,820	일본	3,798	한국	2,368
7	중국대만	2,088	독일	3,674	일본	2,126
8	독일	2,078	미국	2,689	독일	1,929
9	사모아	1,858	영국	2,482	네덜란드	1,849
10	케이맨제도	1,668	영국령 버뮤다	2,167	모리셔스	1,532
11	네덜란드	1,275	사모아	1,554	영국	1,387
12	모리셔스	910	중국대만	1,391	프랑스	1,012
13	프랑스	752	중국마카오	1,280	사모아	813
14	버뮤다	722	네덜란드	1,273	아랍에미리트	712
15	캐나다	536	프랑스	1,011	중국대만	578

자료: CEIC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3. 23.).

홍콩은 중국 FDI 유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의 대중국 투자 규모가 큰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중간 지주회사, 금융·조세 구조, 역외 투자 플랫폼으로서 홍콩이 갖는 기능적 특성이 중국 FDI 통계에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64] 다만 2022년 이후에는 홍콩을 통한 투자 역시 중국 전체 FDI 추세와

64) 최지원, 박민숙(2025).

유사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이후 홍콩을 통한 투자 감소는 중국 내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축소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투자 경로 단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조세·규제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복잡한 역외 지주회사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홍콩을 경유한 투자 역시 중국 전체 FDI 조정 흐름과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네덜란드 등 주요 금융·투자 허브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지역들의 대중국 투자는 연도별로 순위는 변동하나, 전반적으로 중국 FDI 유입 상위권을 구성하는 국가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최종 투자국보다는 투자 경유지 또는 지주회사 소재지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제조업 투자국들은 2017년 전후를 기점으로 투자 규모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흐름을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연도별로 일정한 변동은 존재하지만, 과거와 같은 뚜렷한 확대 국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만은 상대적으로 더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 구조가 과거의 양적 확대 국면에서 점진적인 조정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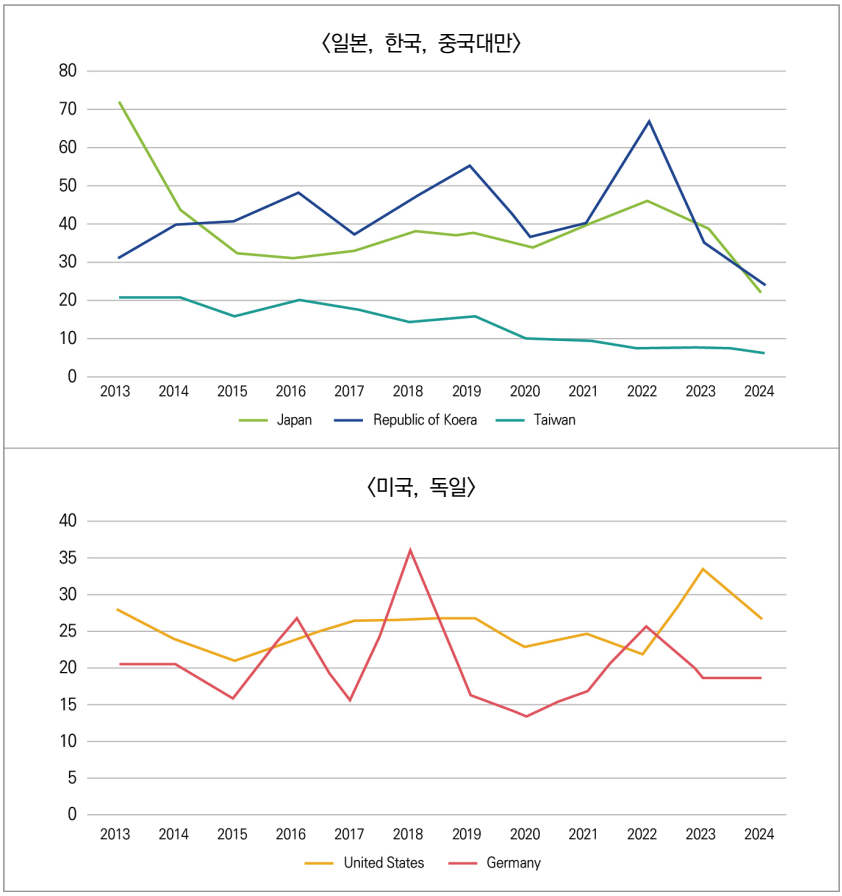
미국과 독일의 경우 중국 FDI 유입 상위권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 규모는 연도별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독일은 2021년 일시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이후 조정되는 흐름이 보인다.

종합하면 중국의 국가별 FDI 유입 구조는 홍콩 등 투자 허브를 중심으로 한 경유형 투자가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전통적 제조업 투자국의 비중 조정과 주요 선진국의 상대적 안정성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국가별 투자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투자 규모 증감만으로 해석하기보다 유입 경로, 업종·

기능 구성, 그리고 기업의 현지화 및 재투자 전략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65]

그림 3-3. 중국의 FDI 유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CEIC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3. 23.).

65) 이에 대해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4장과 5장에서 투자 통계,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 중국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구조 분석

가. 업종별 투자 현황

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 유입 규모 측면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런 양적 감소세 속에서도 업종별 유입 양상에서는 구성 변화가 관찰된다.

2024년 업종별 FDI 구성을 보면 상무부 발표 기준 제조업이 전체의 약 26.8%를 차지하며 여전히 최대 투자 부문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22%),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18.1%), 도소매업(7.1%), 정보통신·소프트웨어업(6.4%) 순으로 투자 비중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상위 3개 업종이 전체 FDI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여전히 특정 핵심 산업에 집중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3-4 참고).

표 3-4. 2024년 업종별 FDI 비중

업종	금액(억 달러)	비중(%)
제조업	311.2	26.8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	255.4	22.0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210	18.1
도소매업	82.1	7.1
정보통신·소프트웨어업	74.2	6.4
기타	229.6	19.8
합계	**1,162.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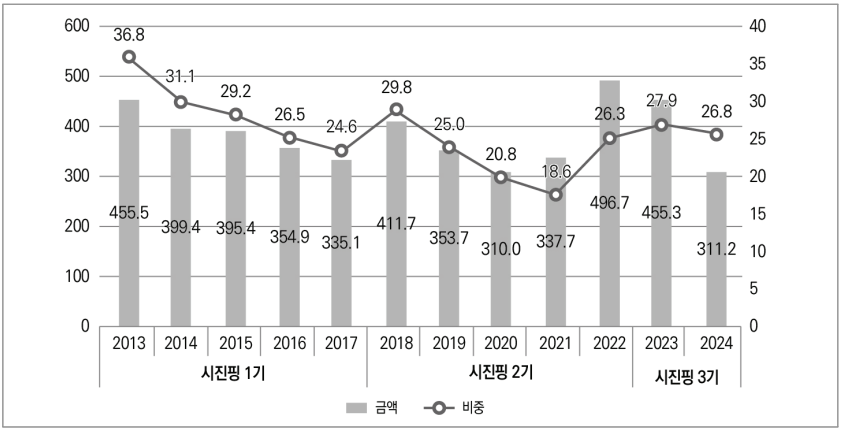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2. 22.).

제조업의 FDI 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그 비중이 18.6%대까지 축소되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26% 내외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도 제조업 FDI는 2022년에 크게 확대된 이후 최근에는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FDI 대비 비중은 26%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투자가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경기적·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전체 FDI 대비 26%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단일 업종 기준 최대 투자 부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4 참고).

그림 3-4. 제조업 FDI 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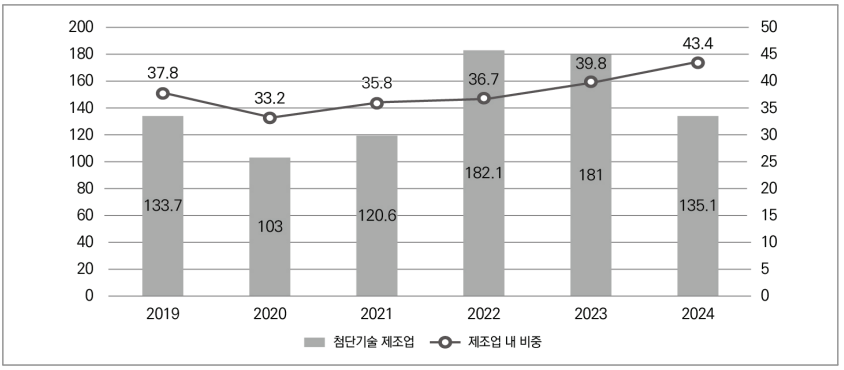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26. 2. 22.).

한편 제조업의 구성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첨단기술 제조업(高技术制造业)의 FDI 규모가 전체 외자 유입의 하향 흐름 속에서도 13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제조업 전체의 4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내 첨단기술 제조업 비중이 전년 대비 3.7%p 상승하며 최근 제조업 FDI 내부에서 기술집약적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기기 및 계측기 제조업과 컴퓨터 및 사무용 설비 제조업의 실제사용 외자가 각각 전년 대비 93.7%와 21.1% 증가하였다. 또한 컴퓨터 완제품 제조, 사무용 설비 제조, 일반 및 특수 계측기 제조 등이 외국인투자의 주요 집중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66]

6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p. 6.

그림 3-5. 중국의 첨단 제조업 FDI 규모 및 제조업 내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2~25).

이와 함께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생산성 서비스업의 투자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서비스업의 실제 사용외자 규모는 822.4억 달러로 전체의 70.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생산성 서비스업의 실제 사용 외자는 683.9억 달러로 전체 FDI의 58.8%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5.3%p 상승하였다.[67] 특히 검사·검측·인증·표준·계량 서비스, 컨설팅 및 조사 서비스, 하역·포장 및 대리 서비스, 실물 임대 서비스 등 세부 업종에서 외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표 3-5 참고). 이는 생산성 서비스업 내 일부 전문화된 기업지원형 서비스 분야로 외자가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 2024년 생산성 서비스업 FDI 증가 업종

업종	기업 수(개)	금액(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가율(%)
검사·검측·인증·표준·계량 서비스	108	1.2	157.9
컨설팅 및 조사 서비스	3,157	36.9	99.9
하역·포장 및 대리 서비스	518	2.3	47.8
실물 임대 서비스	107	8.7	37.6

주: 생산성 서비스업 중 2024년에 외자 유입 증가율이 높은 일부 세부 업종을 제시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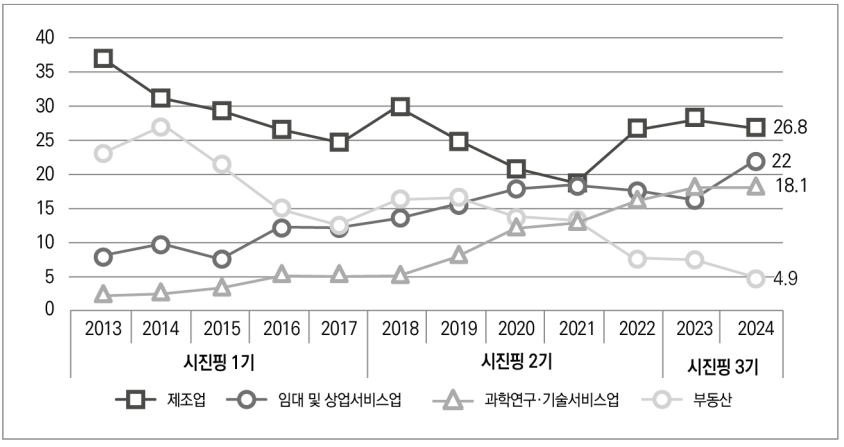
67) 위의 자료.

앞서 살펴본 주요 업종들의 투자 흐름을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시기와 연계해 살펴보면, 시진핑 1기(2013~17년)에는 과거 외자 유치의 큰 축이었던 부동산 등 전통 산업 투자가 201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이후 시진핑 2기 및 3기에 걸쳐 그 빈자리를 첨단 제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성 서비스업이 빠르게 대체하며 투자의 중심축이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과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은 2013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 2024년에는 각각 22%와 18.1%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기술집약적 부문 확대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기업활동 지원 서비스 기능이 병행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 변화가 업종별 외국인투자 구조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6. FDI 추이 및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26. 2. 22.).

나. Orbis 분석

앞서 살펴본 상무부 및 외환관리국 통계는 중국 FDI의 총량 변화와 거시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투자 방식의 구성 변화나 진입 유형의 세부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2013년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투자 유형별 구조변화와 장기적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표 3-6. ORBIS 유형별 개념 정의

프로젝트형 투자(Project)		실물 사업 단위의 설립·확장·이전을 포함하는 투자 형태
	신규(New)	- 외국 기업이 투자대상국 내에 새로운 사업 운영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는 프로젝트
	기존사업 확장 (Expansion)	-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생산능력, 설비, 기능 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동일부지/ 인접부지 추가 입지 (Co-location)	- 기존 사업장과 동일 부지 내 다른 추가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사업 이전 (Re-location)	- 기존 사업 또는 생산 기능을 투자 대상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는 프로젝트
거래형 투자(Deal)		인수·합병(M&A), 지분 취득, 합작투자(JV) 등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소유권 또는 지배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투자 형태

자료: Jones and Fazio(2022), p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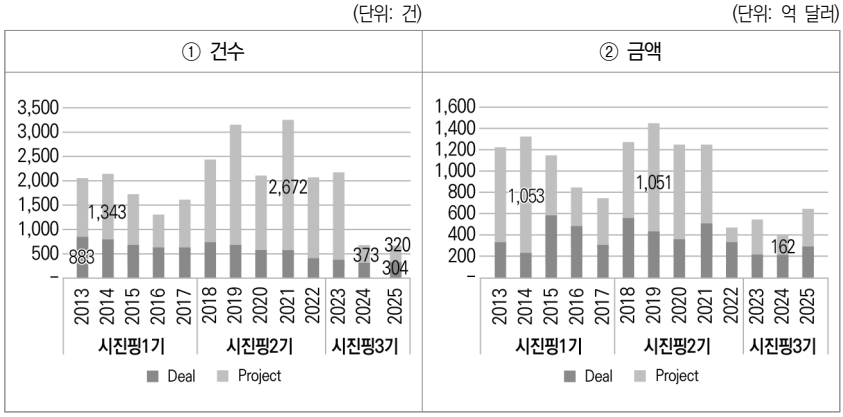
1) 투자 방식별 변화(Project vs Deal)

중국 외환관리국 거시 통계에서 확인된 대중국 FDI 조정의 흐름 양상은 Orbis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투자 방식을 프로젝트형(Project)과 거래형(Deal)으로 구분하여, 2013년 이후 대중국 FDI 조정의 구조적 성격을 살펴본다.

2013년 이후 대중국 FDI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변동성을 거친 뒤 최근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프로젝트형 투자 금액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체 투자 규모가 빠르게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3-7 참고). 이는 신규 생산 설비 및 사업 거점 확장과 같은 실물 기반 투자가 최근 들어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거래형 투자는 2013년 883건에서 2025년 304건으로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 진입의 구조적 둔화를 의미한다. 반면 프로젝트형 투자는 2021년 2,672건까지 확대되며 한 차례 확장 국면을 형성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 373건, 2025년 32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감소 폭은 과거 변동 범위를 크게 상회하며, 신규 설립 및 생산거점 확장과 같은 실물 기반 투자가 구조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7. 대중국 FDI 투자 방식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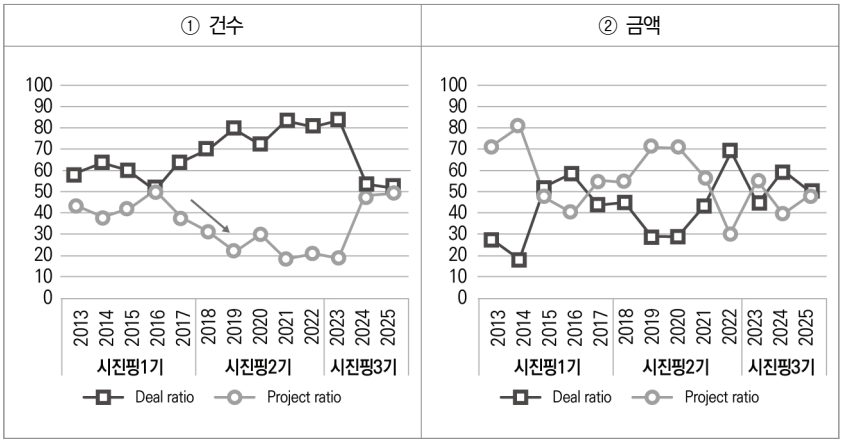
주: 투자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각 거래의 Last deal status date를 연도 기준으로 활용.
자료: OCI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1. 23.).

금액 기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프로젝트형 투자 금액은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1,0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정점을 형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16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생산능력 확장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거래형 투자 금액은 완전히 소멸된 양상은 아니며, 일부 연도에는 대형 M&A에 의해 일정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는 전략적·선별적 인수·합병이 제한적이지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절대 규모 변화는 투자 방식별 비중 구조에도 반영된다(그림 3-8 참고). 건수 기준에서 거래형 투자 비중은 2010년대 후반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프로젝트형 투자 급감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비중 상승은 거래형 투자 확대라기보다는 프로젝트형 투자 축소에 따른 상대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액 기준에서는 뚜렷한 장기 추세보다는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3-8. 대중국 FDI 투자 방식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투자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각 거래의 Last deal status date를 연도 기준으로 활용.

자료: OCI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1. 23.).

종합하면, 최근 대중국 FDI의 조정은 전면적 철수라기보다는 실물 기반 프로젝트 투자의 급격한 위축과 선택적 거래의 지속이 병존하는 구조적 재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중국 투자 감소의 핵심은 M&A의 소멸이 아니라 신규·확장 중심의 생산거점 투자 축소에 있으며, 이는 투자 방식의 질적 전환을 동반한 조정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투자 내 유형별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대중국 FDI 조정은 특히 프로젝트형 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프로젝트형 투자를 신규 투자, 기존 사업 확장(Expansion), 동일·인접 부지 추가 입지(Co-location), 사업 이전(Re-location)으로 구분하여 내부 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프로젝트형 투자 건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신규 투자(New)로 전체 프로젝트 건수의 약 88%를 차지한다.[68] 반면 기존 사업 확장(Expansion)과 동일·인접 부지 추가 입지는 각각 약 5% 내외이며, 사업 이전은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대중국 프로젝트형 투자가 구조적으로 신규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69] 다만 신규 프로젝트 건수는 2019~21년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2,488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319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과거 정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며 신규 진입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3-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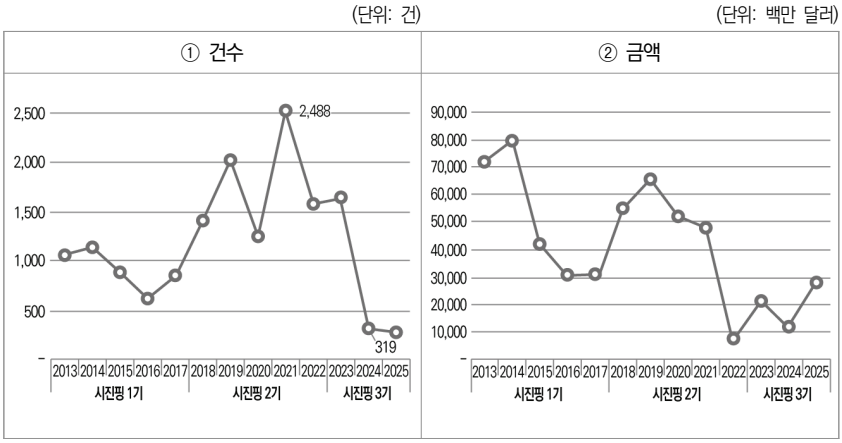
금액 기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2021년 이후 신규 투자 금액은 크게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급락하였다. 이는 단순히 투자 건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장 설립 및 설비 확충 등 실물경제와 직결된 신규 자본 형성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68) OCI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1. 23.).
69) *Ibid.*

최근의 중국 FDI 조정은 투자 유형 간 구성 변화보다는 프로젝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규 투자 진입 자체가 급감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9. 프로젝트형 신규 투자(New) 추이



주: 투자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각 거래의 Last deal status date를 연도 기준으로 활용.
자료: OCI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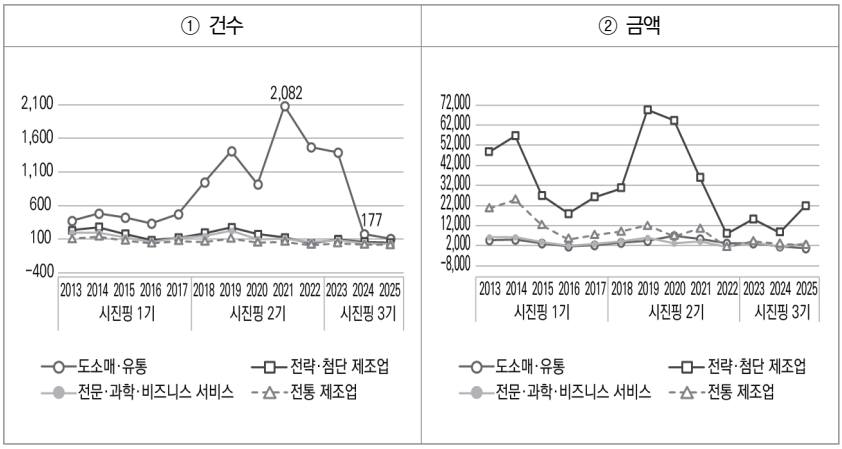
3) 산업별 투자 조정 양상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이후 대중국 프로젝트형 투자는 급격한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총량 위축이 산업별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체 산업 중 구조적 의미가 큰 네 개 부문(도소매·유통, 전략·첨단 제조업, 전통 제조업, 전문·과학·비즈니스 서비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70]

70) 산업 분류는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Database의 Project NACE Rev. 2 primary code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연구 목적에 따라 도소매·유통, 전략·첨단 제조업, 전통 제조업, 전문·과학·비즈니스 서비스 등 산업군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림 3-10. 주요 산업별 프로젝트 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

(단위: 건) (단위: 백만 달러)



주: 투자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각 거래의 Last deal status date를 연도 기준으로 활용.
자료: OCI database(최종 검색일: 2026. 1. 23.).

먼저 프로젝트 건수(전체 투자) 기준으로는 모든 주요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이후 내수·소비 기반으로 가장 빠르게 팽창했던 도소매·유통 부문은 2021년 2,082건에서 2024년 177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인 전략·첨단 제조업(277건 → 58건)과 전통 제조업(61건 → 17건) 역시 프로젝트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과학·비즈니스 서비스(220건 → 41건)도 동반 감소하는 등 진입 자체가 급감하였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양상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뚜렷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난다. 가장 주목할 부문은 전략·첨단 제조업이다. 해당 부문의 투자 금액은 2021년 355억 4,000만 달러에서 2022년 76억 8,000만 달러로 급감하며 대형 설비 투자가 축소되는 듯했으나, 2023년 151억 2,000만 달러로 회복된 데 이어 2025년에는 221억 5,000만 달러 수준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함에도 금액이 반등한다는 것은 해당 부문의 건당 평균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대형·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위주로 자본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 속에서도 핵심 전략 산업에 한해서는 대형 투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도소매·유통 부문은 과거 건수 비중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투자 금액이 약 53억 4,000만 달러에 그쳐, 전략·첨단 제조업(355억 4,000만 달러) 대비 현저히 낮은 규모를 보였다. 이는 해당 투자가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 제조업 역시 2014년 약 248억 5,000만 달러에서 2022년 14억 1,000만 달러로 급감하며, 저부가가치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Orbis 데이터는 전문·과학·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상무부 통계와 뚜렷한 통계적 차이를 보인다. 앞서 상무부 통계 기준으로는 최근 생산성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rbis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부문의 신규 프로젝트 금액은 2019년 약 6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13억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괴리는 지표의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상무부 통계에는 신규 자본 유입뿐만 아니라 이미 현지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사업 유지와 내실화를 위해 투입하는 '이익유보금 재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생산성 서비스업 등에서의 외자 비중 확대는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대규모로 신규 진입한 결과보다는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이 대형 신규 투자를 보류한 채 방어적으로 이익을 재투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중국 FDI의 총량 추이와 구조 변화를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 통계를 활용한 거시 통계와 Orbis 통계를 활용한 프로젝트 단위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상무부 및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중국의 FDI는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다. 특히 국제수지 기준 FDI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신규 외화 유입 둔화 및 자본 이동 경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은 26%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내 첨단기술 제조업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은 공급망 재편 국면 속에서도 중국이 글로벌 제조거점의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별로는 홍콩 등 투자 경유지 중심의 투자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한국·대만 등 전통적 제조업 투자국의 확대 국면은 둔화되고 있다. 다만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투자는 조정 국면의 성격을 보인다.

Orbis 프로젝트 자료 분석 결과, 최근 투자 감소는 특히 프로젝트(Project)형 신규 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9~21년 확대 국면 이후 2022년부터 신규 진입이 급감하면서 실물 기반 투자 활동이 위축된 것이 확인된다. 단순한 투자 방식 변화라기보다 신규 실물 진입 자체의 축소라는 점에서 탈중국적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거래형 투자(M&A)는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일부 전략적·선별적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즉 최근의 투자 감소는 단순한 전면적 이탈이라기보다는 신규 실물 진입이 위축되고 지분 거래형(Deal) 투자가 중심이 되는 자산 경량화 기반의 구조적 재편 성격을 띤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유통, 전략·첨단 제조업, 전통 제조업, 전문·과학·비즈니스 서비스 등 주요 부문 전반에서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의 유지와 첨단기술 제조업 비중 확대, 그리고 생산성 서비스업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구조는 업종 이동이라기보다 산업 내부 고도화와 기능 분화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술집약적 제조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업 지원형 서비스 부문으로 외자가 재배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첨단기술 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육성 방향과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흐름이다. 다시 말해 최근의 FDI 감소를 신규 진입 위축이라는 양적 축소와 전략 산업 중심의 선별적 고도화가 병행되는 구조적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지정학적 환경, 산업정책, 규제 체계,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환경 변화와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FDI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중국의 FDI 환경변화와 구조를 분석했다.

제4장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전략 및 진출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대중국 진출 전략

주요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기 전에 중국 FDI 통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홍콩의 대중국 투자 규모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 홍콩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유입되는 투자액이 전체 외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71] 홍콩의 대중국 본토 투자액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회투자(round- tripping)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의 금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국의 최대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상당 부분은 중국 자금의 재유입일 수 있다.[72] 실제로 중국 상무부(MOFCOM)의 외국인투자 통계에서 홍콩발 FDI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자본 통제를 우회하려는 투자 행태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73]

Qian, Zhang, and Chen(2025)[74]는 홍콩을 우회 FDI가 중국 본토로 다시 유입되기 전 거치는 가장 선호되는 환승 지점(transit point)으로 정의했다.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넓은 의미의 우회투자이며, 연구 결과 홍콩과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로 유입된 우회투자는 2014년 전체 FDI의 59%를 차지했다.[75]

71) 중국상무부 통계 기준 2013년 이후 홍콩의 대중국직접투자금액 규모는 평균 67% 정도이며, 2024년에는 69.6%에 달한다.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p. 9.
72) Fang, Collins, and Yao(2021), "On the global COVID-19 pandemic and China's FDI"(검색일: 2025. 12. 20.).
73) Atlantic Council(2023. 10. 4.), "Running out of road: China Pathfinder 2023 annual scorecard"(검색일: 2025. 11. 20.).
74) Qian, Zhang, and Chen(2025. 6.), pp. 138-152.
75) *Ibid.*, p. 141.

또한 홍콩의 대중국 우회투자 금액이 2014년 기준 525억 달러로 다른 지역들을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고 투자 건수 면에서도 2,310건을 기록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121건) 등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많다.[76]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우선 홍콩에 진출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 본토 자본이 홍콩에 투자한 후 다시 중국 본토로 투자되는 경우 역시 많았다. 오늘날 주요 다국적 기업이 역외 지역을 주요한 운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다. 과거 중국의 법인세 제도는 글로벌 기업에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혜택을 주었다. 이는 중국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역외로 이전한 뒤 자본을 우회투자 방식으로 중국에 다시 들여보내,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했다.

중국 자본시장 접근의 제약은 민간 기업들이 대체적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역외 금융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홍콩은 이러한 역외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역사적으로 영국령이었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역시 홍콩과 밀접히 연계된 주요 조세회피처로 기능했다. 중국기업들은 국내 간섭이나 해외투자(OFDI) 관련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역외 법인을 경유해 투자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기업들이 다수의 역외 회사를 설립한 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특히 홍콩, BVI, 케이맨제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중을 보였다.[77] 이에 홍콩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요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홍콩을 제외한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전략과 진출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 및 시장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 내 투자구조를 조정했으며, 새로운 전략하에 중국 내

76) *Ibid.*, p. 150.
77) Dylan Sutherland and John Anderson(2015), pp. 21-48. 하지만 통계 제약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대표성을 갖는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독일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변화된 투자 구조를 분석하고, 투자 특징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미중 갈등 이후 크게 변화된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전략과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내 사업 다각화 양상도 분석할 예정이다.

가. 독일

1) 독일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독일은 유럽 내에서 대중국 직접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은 독일기업의 핵심 해외투자 대상국이다. 독일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과거 독일의 자본재·자동차·화학 수출과 중국의 산업화 수요가 결합된 '상호보완' 구조를 기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기업의 가치사슬 추격과 경쟁력 강화로 인해 '상호보완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점'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78] 특히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 기조가 자동차·기계·화학 등 독일 주력 산업의 비교우위 기반을 직접 잠식하면서,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단순한 시장 확대·비용 절감형에서 벗어나 중국 내 생산·공급망·연구개발 기능을 현지에서 완결시키는 방식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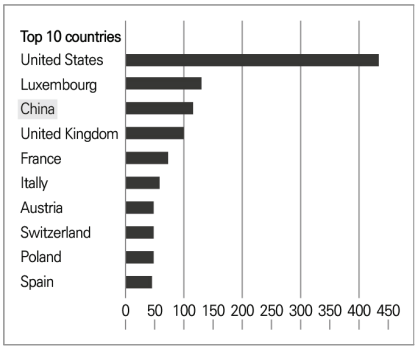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투자 위상은 단기간 내 급격히 약화되지는 않았다. 독일 해외직접투자(O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6~7%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2년에는 7.8%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도 7.2%로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4-2 참고). 또한 2021년 기준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잔액은 1,067억 유로로 처음으로 1,000억 유로를 상회하였다. EU 전체 대중국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유럽 내에서 대중국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78) Zenglein and Huotari(2025. 5.), pp. 3-15.

다만 최근에는 신규 투자 확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동남아 및 동아시아 국가로의 투자 분산 움직임도 병존한다. 그럼에도 중국을 대체할 수준의 급격한 이탈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독일의 대중국 투자는 양적 축소보다는 현지화 심화와 기능 재배치를 통한 '구조적 재편' 및 '관리형 전략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79]

그림 4-1. 독일 ODI 국가별 순위 (투자 잔액, 2023년 기준)

(단위: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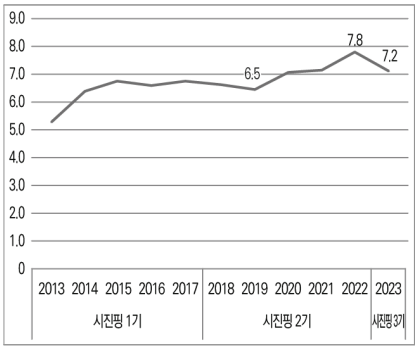


주: Extended Directional Principle(1·2차 투자 포함, 지주회사 경유 포함).

자료: Deutsche Bundesbank(2025. 4. 3.),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p. 35.

그림 4-2. 독일 ODI 내 중국 비중 (투자 잔액)

(단위: %)



주: Extended Directional Principle(1·2차 투자 포함, 지주회사 경유 포함).

자료: Deutsche Bundesbank 홈페이지(검색일: 2025.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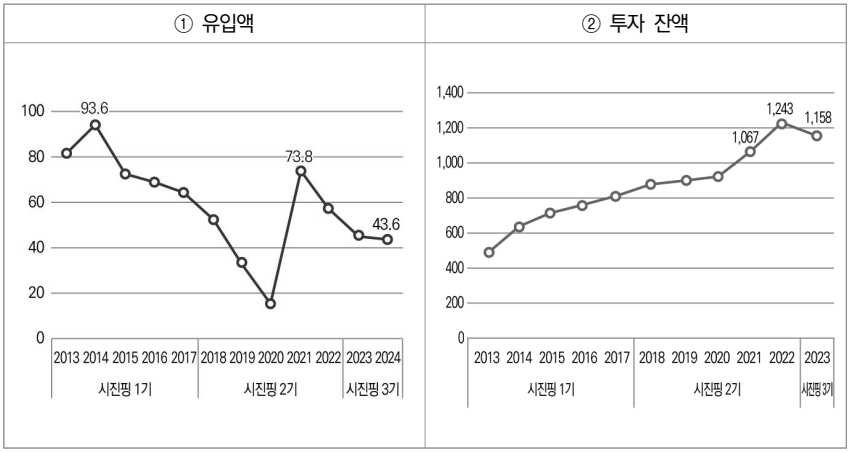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1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점진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약 80억 유로 내외에서 출발한 대중국 투자 흐름은 2014년 93억 6,000만 유로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8~20년에는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20억 유로대까지 급감하며 일시적 저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73억 8,000만 유로로 급반등하며 회복 흐름이 나타났고, 이후 2022~24년에는 독일 정부의

79) Jürgen Matthes(IW Köln)(2023. 5. 17.), pp. 1-3.

디리스킹 정책 추진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시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43억 6,000만 유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림 4-3.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유로)



자료: Deutsche Bundesbank 홈페이지(검색일: 2025. 12. 1.).

다만 투자 잔액(Stock)을 보면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잔액은 2021년 1,067억 유로를 기록한 이후 급격한 축소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 흐름의 변동과는 달리 독일기업이 중국을 여전히 핵심 생산거점이자 전략적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독일의 대중국 투자는 신규 투자 흐름에서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으나 누적 투자 기반은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 자료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통계에서는 대중국 직접투자 유입액은 확인가능하나 업종과 상대국을 동시에 교차한 세부 Flow 자료는 공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특정 산업에서 소

수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기업 식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통합 항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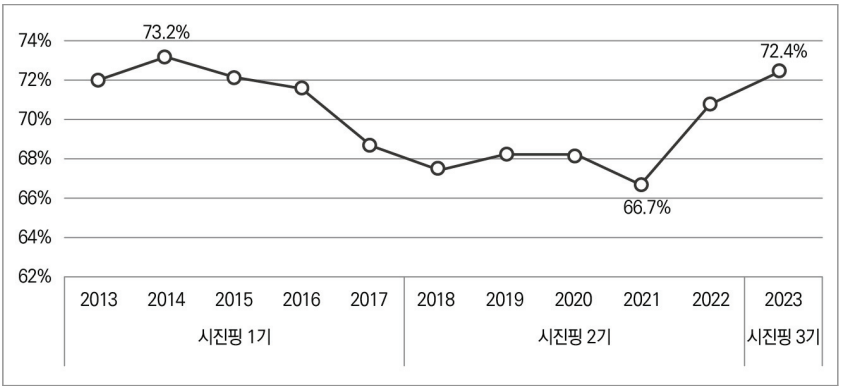
또한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바스프, 폭스바겐, BMW 등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투자 확대는 신규 자본 유입보다는 기존 자회사의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강하다.[80]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 자본 유입을 반영하는 Flow 지표는 독일 투자 구조의 실질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총액은 유입액 지표를 활용하되 독일의 산업별 대중국 투자구조 분석에는 투자 잔액 통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투자 잔액 지표는 독일기업의 장기적 생산·공급망 고착 구조와 전략적 잔류 수준을 반영하며, 재투자이익 중심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독일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독일의 대중국 투자가 단기적 신규 진입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 기반을 중심으로 유지·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접근이다.

투자 잔액 기준의 업종별 구조 변화를 보면 2023년 기준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이 약 72.4%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정보통신(ICT), 도·소매, 본사 기능, 부동산,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된다.[81] 특히 서비스업은 2018~19년 이후 금융 및 ICT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80) Jürgen Matthes(IW Köln)(2023. 5. 17.); Zenglein and Huotari(2025. 5.).
81) Deutsche Bundesbank 홈페이지(검색일: 2025. 12. 1.).

그림 4-4. 독일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비중(투자 잔액)



주: Extended Directional Principle(1·2차 투자 포함, 지주회사 경유 포함).
자료: Deutsche Bundesbank 홈페이지(검색일: 2025. 12. 1.).

제조업 중심의 투자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독일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중 자동차 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다른 모든 제조업 투자 분야를 합친 것보다 큰 수준으로, 이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한 이후에도 현지 생산, 조립,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는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부문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전통적인 경쟁우위 산업들이 중국의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중간재·설비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4-5 참고).

이러한 산업별 투자 구조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전략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가 상호 연계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디지털화·고부가가치화하는 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 자동화, 정밀기계, 산업용 소프트웨어, 고급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한편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자동차, 첨단 장비, 신소재 등 핵심 제조업의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기업이 보유한 고급 설비, 핵심 부품, 공정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중국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핵심 중간재·설비 공급 및 기술 협력형 투자로 전개되고 있다.[82]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는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계된 독일의 기계·화학·부품 분야 히든 챔피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동반하였으며, 이는 독일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 투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5. 독일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투자 잔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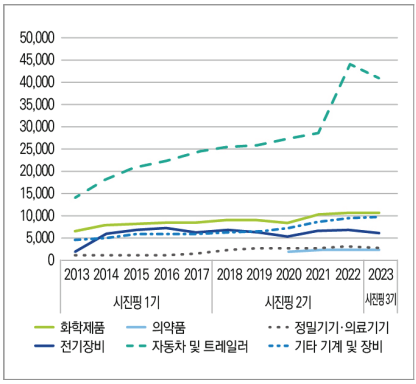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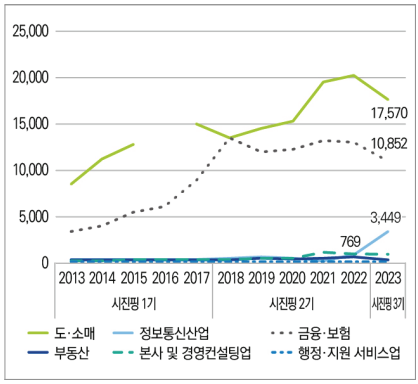


그림 4-6. 독일의 대중국 서비스업 직접투자 추이(투자 잔액)

(단위: 백만 유로)



주: 1) Extended Directional Principle(1·2차 투자 포함, 지주회사 경유 포함).
2) 2016년 도소매 데이터는 집계 과정상의 이유로 발표되지 않음.
자료: Deutsche Bundesbank 홈페이지(검색일: 2025. 12. 1.).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2023년 기준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 내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대중국 서비스업 직접투자 내에서도 도·소매

82) 이상훈 외(2019); The Federal Government(2023), pp. 120-132.

및 금융·보험 부문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정보통신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내에서 도·소매 투자가 집중된 것은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생산품의 최종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 자회사에 대한 투자 성격이 강함을 의미하며, 이는 제조업 투자를 보완하는 유통·판매망 확충형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업 투자는 대중국 서비스업 직접투자 내에서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서비스업 투자 전체의 약 1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독일기업들이 해외 생산 및 판매 활동에서 IT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통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4-6 참고).

2) 독일의 대중국 투자전략

독일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며 스마트 제조와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과 연계되어 기계, 산업 설비 및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83]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독일기업의 다수는 기계 및 산업 장비, 자동차 섹터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Mittelstand)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84]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공급망 교란, 기술·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독일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의 대중국 투자·산업 협력 방식을 정책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다.

2023년 7월, 올라프 숄츠 정부는 독일 최초로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인 「Strategy on China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를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은 대중국 경제 관계를 단절하는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을 관리·분산하는 디리스킹을 핵심 기조로 하는 대외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특히 독일기업의 대외투자에서 중국에

83) 이상훈 외(2019), pp. 120~122.
84) AHK China(2019), pp. 3-6, (2024b), p. 48.

대한 과도한 의존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전략을 수립하였다.[85]

표 4-1. 독일의 대중국 전략

구분	주요 내용
포지셔닝	- [관계] 중국은 파트너, 경쟁자, 체제적 라이벌로 동시에 간주 - [목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하여 핵심분야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제고
양자관계	- 인권 및 가치: 인권 존중 의무 강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유럽 시장 판매 방지 지지 - 경제 관계: 경제 협력의 공정성과 호혜성(Reciprocity) 노력, 중국에 WTO 정부 조달 협정 가입 요구 - 기후 협력: 기후 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며,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 추진
독일과 유럽연합의 내부 역량 강화	- 희토류, 리튬 배터리, 태양광 발전, 의약품 물질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영역 다각화 - 기술 혁신: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전략적 예측 사용, 중국의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정책 경계 - 투자 규제: **수출 통제 적용(인권 침해 오용 방지),** 독일 정부는 해외투자보증(investment guarantees)에 대해 중국 등 고위험국을 대상으로 일반 상한(ceiling)을 30억 유로 수준으로 설정하고, 예외 적용 가능성도 함께 명시함

자료: The Federal Government(2023. 7.), pp. 10-41.

독일의 대중국 전략은 독일 단독의 정책이라기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디리스킹 및 경제안보 프레임과 긴밀히 연동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 공급망 실사 의무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EU 차원의 규율은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 판단에도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며, 독일 정부의 디리스킹 전략 역시 EU의 공급망·인권·

85) The Federal Government(2023. 7.), pp. 10-11, p. 52, pp. 84-98.

경제안보 규범을 국내 정책 차원에서 구체화한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 독일의 대중국 투자 전략은 전면적인 탈중국이 아닌, EU 규범을 고려한 선별적·분야별 조정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망 다각화는 희토류·배터리 핵심 소재·의약품 원료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관리하려는 선별적 디리스킹 접근에 가깝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의 핵심 원료 및 중간재 조달망은 중국 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중국 내 생산은 중국 시장 대응에 한정된 '현지 완결형(Local-for-local)' 구조로 재편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활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시장을 독립적으로 관리 가능한 하나의 지역 시장으로 분리하려는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선별적 디리스킹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23년 이후 중국을 포함한 고위험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보증(investment guarantees)에 대해 원칙적 상한과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86] 이는 법적으로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나, 대형 신규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치적 리스크 보증의 가용성을 제한함으로써 신규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유지·고도화와 재투자이익을 활용한 단계적 증설로 투자 전략이 조정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87]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독일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호하게 단절하는 대신 중국 시장·생산·공급망과 이미 심화된 구조적 결합을 전제로 의존을 관리하려는 방식의 디리스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독일기업의 대중국 전략 역시 신규 대형 투자 확대보다는 현지화와 재투자 중심의 '관리형 재편(managed adjustment)'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8]

---

86) The Federal Government(2023. 7.).
87) Deutsche Bundesbank(2024. 10.), pp. 28-41.
88) "Why Germany finds it so hard to handle China | Berlin Briefing Podcast"(2025. 12. 26.), (검색일: 2026. 1. 14.).

그러나 중국에서 사업 중인 독일기업들의 실제 행태는 정부의 대중국 전략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독일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면서도 생산뿐 아니라 공급망 및 연구개발(R&D) 기능까지 중국 현지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현지화를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사업이 독일 본국의 경제 구조와 점진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독일기업이 중국 내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는 양상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독일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익을 회수하기보다는 현지 사업을 유지·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89]

다만 이러한 재투자이익 중심의 투자구조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독일기업들이 탈중국을 선택하기보다는 중국 내 생산·공급망·R&D 기능을 고도화하며 자발적으로 현지화를 심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자본 이동에 대한 불확실성, 세무·규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현금 회수 및 본국 송금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투자이익 확대만으로 독일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기업 발언, 제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재투자이익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은 단순한 현지화 전략의 강화라기보다 중국 내 자산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자본의 현지고착(trapped capital)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MERICS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대중국 FDI는 신규 시장 확대보다는, 중국의 규제 환경과 경쟁 구조 속에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현지화(defensive localization)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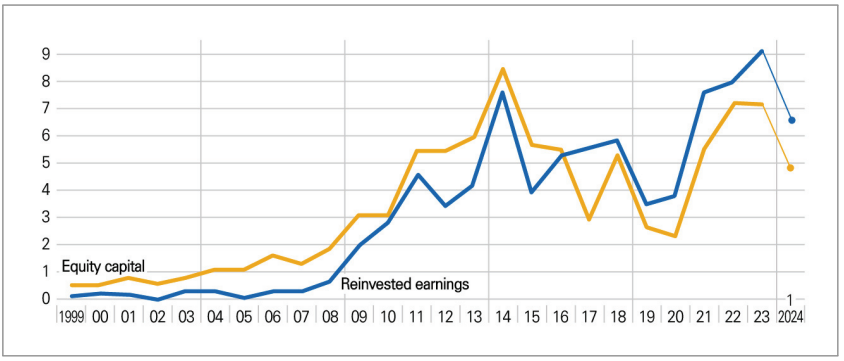
실제로 독일기업들은 중국 현지 재투자를 통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국 투자가 유연한 자본 이동보다는 현지에 자산과 리스크가 함

89) Deutsche Bundesbank(2024. 10.).
90) Zenglein and Huotari(2025. 5.), pp. 5-18.

께 고정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독일기업의 대중국 사업이 단기간 내 축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리스킹 전략 역시 관리형 조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91]

그림 4-7.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 구성 추이: 자본금과 재투자이익(유입액)

(단위: 십억 유로)



주: BoP 기준, 2024년은 6월까지의 수치 반영.
자료: Deutsche Bundesbank 홈페이지(검색일: 2025. 12. 1.).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기업들이 최근 추진하는 'Localization 3.0' 전략은 단순한 양적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표 4-2 참고). 지정학적 충격이 독일 본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경영 구조를 구축하고, 중국을 단순한 생산·판매 거점을 넘어 R&D와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실제로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독일기업 가운데 약 61%가 향후 R&D 및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거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2]

91) *Ibid.*, pp. 4-19.
92) AHK China(2024b).

표 4-2. 독일기업의 중국 현지화(Localization) 전략

전략	시기	핵심목표	주요 내용
Localization 1.0	1990년대 후반~ 2010년대 중반	시장 접근 제약 해소	-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설립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규제 요구 사항들이 주된 요인
Localization 2.0	2016~ 22년	현지 시장 대응	- 중국이 자급자족과 자국 혁신 추구를 위해 관련 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른 대응
Localization 3.0	2022년 이후~ 현재	시장 역학 주도 및 글로벌 활용	* 이번 2024/2025년 조사에서 나타난 세 번째 현지화 물결 △ 경쟁과 가격압력 대응 △ Deeper Local-for-Local(현지화) + Local-for-Global △ 지정학적 위험완화(중국 독립적 공급망 구축, 중국 내 R&D 현지화)

자료: Germ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AHK Greater China)(202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 미국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최근 수년간 언론과 기업 사례에서 '탈중국'으로 표현되는 조정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를 투자 철수로 해석하기보다는 신규 투자 확대 국면에서 기존 사업을 관리·조정하는 국면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중국 투자 잔액은 단기간에 급감하지 않는 반면,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자본 유입은 뚜렷하게 위축되는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변화가 투자 방식과 자본 운용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1)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위상변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잔액은 대체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1~2% 내외를 유지해 왔으며,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금융허브 국가들(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아시아 내에서도 싱가포르 등 제3국 경유 투자 비중이 상당하다(그림 4-8 참고). 이에 비해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조 및 소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대외투자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그림 4-8. 2024년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투자 잔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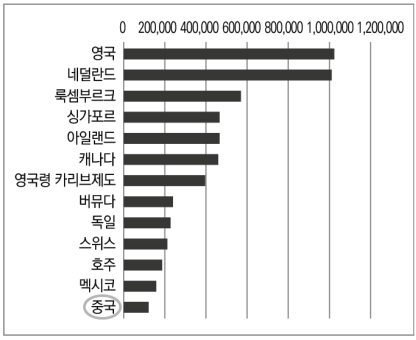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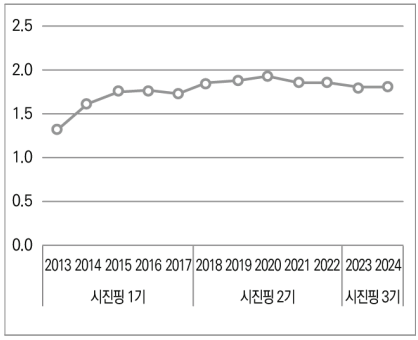


그림 4-9. 미국의 ODI 내 중국 비중 (투자 잔액)

(단위: %)



자료: BEA 홈페이지(검색일: 2026. 2. 23.).

미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무역과 공급망 생태계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파트너다. 최종 조립 공정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더라도 부품 조달 등 가치사슬 상류 단계의 탈중국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은 미국기업들의 주된 사업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93]

유입액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과 기술 통제 강화의 영향으로 대중국 신규 투자는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첨단기술 및 반도체 분야의 신규 투자에는 정책적 제약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일부 소비재, 자동

93) Rhodium Group(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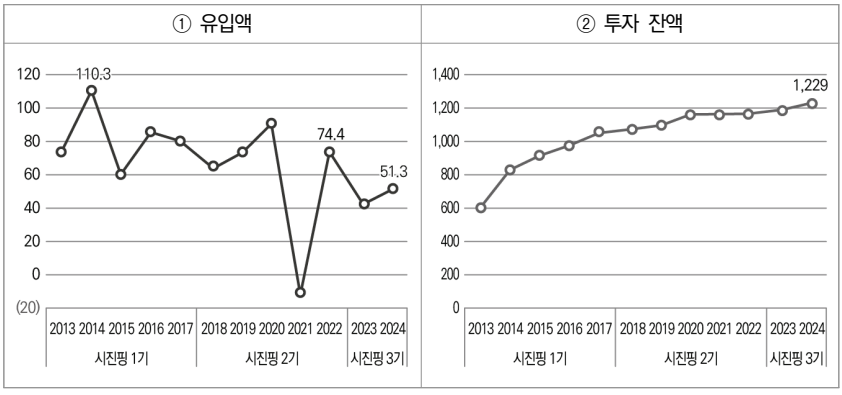
차,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투자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시장이지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구조적 의존도가 높지 않은 대상국이다. 이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이 대중국 투자 조정에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유입액 기준 201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유지되다가, 2020년 이후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약 70~80억 달러 수준에서 출발한 투자 흐름은 2014년 110.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다.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18년 다시 80억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2019~20년에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진적 둔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2021년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까지 급감하며 일시적 저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74억 4,000만 달러로 반등하였고, 2023~24년에는 40~50억 달러 수준으로 재조정되었다. 이는 대규모 신규 진입이 위축된 가운데 제한적·선별적 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0.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BEA 홈페이지(2026. 2. 2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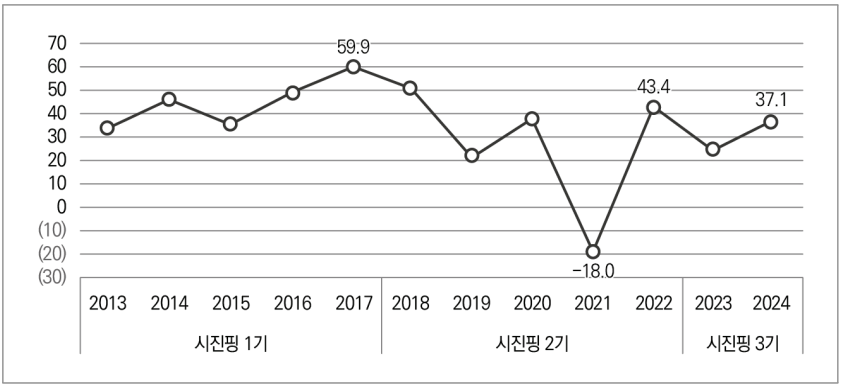
투자 잔액도 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잔액은 2013년 약 600억 달러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대 초반 1,1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2024년에는 약 1,229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근 투자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잔액이 감소하지 않고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기업이 중국 내 기존 사업 기반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유입액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뚜렷한 조정과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잔액 기준으로는 구조적 축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는 미국의 대중 전략이 급격한 탈중국이라기보다는, 신규 투자 확대를 자제하면서 기존 자산을 관리·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독일과 유사하게 '확대 중단 속 기반 유지'의 성격이다.

유입액 기준으로 업종별 구조 변화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는 2021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조정 국면을 경험한 이후 부분적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13~17년에는 연간 30~60억 달러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흐름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7억 9,000만 달러로 순회수가 발생하며 구조적 저점을 형성하였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논의 본격화, 팬데믹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2022년에는 43억 4,000만 달러로 회복했고, 2023~24년에도 25~37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투자도 전면 철수 단계에 진입했다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유지·보완하는 형태로 재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1.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유입액)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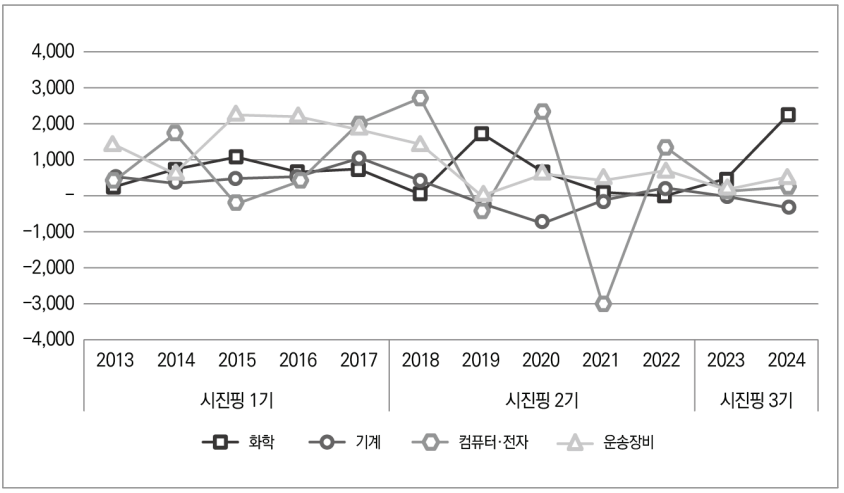


자료: BEA 홈페이지(2026. 2. 2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조업 내부를 세부 업종별로 보면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확인된다. 컴퓨터·전자 부문은 2017~18년 20~27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2021년 -31억 4,000만 달러로 대규모 순회수가 발생하였다. 이후 2022년 14억 3,000만 달러로 반등하였으나 2024년에는 2억 7,000만 달러 수준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이는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국기업의 투자가 확대-회수-선별 재투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화학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최근 재확대 흐름이 나타난다. 2019년 17억 6,000만 달러, 2024년 22억 8,000만 달러로 다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첨단 소재 및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 내 생산·공급망 연계 필요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셋째, 기계 및 일부 자본재 부문은 최근 순회수 흐름이 관찰된다. 2024년 기계 부문은 -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생산설비 이전 또는 투자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운송장비는 2015~18년 14~22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4년 5억 3,0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적 구조조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12.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세부 업종 직접투자 추이(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EA 홈페이지(2026. 2. 2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종합하면, 미국의 대중 제조업 투자는 전통 제조보다는 첨단·소재 중심으로 상대적 집중이 유지되며, 일부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강한 변동성과 정책 리스크 반영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참고로 Rhodium Group 보고서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탈중국 흐름이 섬유,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그 경향이 주로 최종 조립(assembly)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조립 중심의 이전 움직임과 달리, 가치사슬 상류 단계의 다각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제조·공급망 활동이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94]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제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도매 부문은 2019년 20억 8,000만, 2024년 16억 7,000만 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는 중국 내 생산·유통망과 연계된 실물 기반 사업이 완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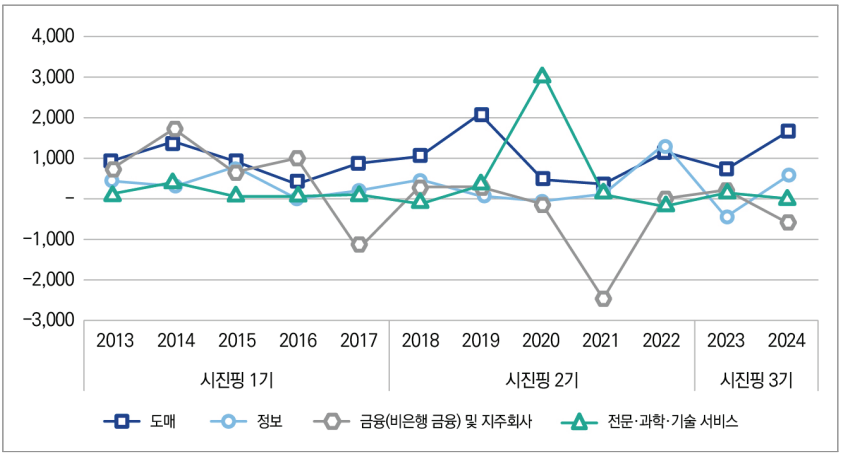
94) Rhodium Group(2024), pp. 27-28.

축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보 부문은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2022년 13억 8,00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2023년 -4억 7,000만 달러로 순회수가 발생한 후 2024년 5억 8,000만 달러로 재반등하였다. 디지털·데이터 관련 투자에서 정책 리스크와 사업 재편이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금융(비은행 금융) 및 지주회사 부문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다. 2021년과 2024년에 대규모 순회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실물 철수라기보다는 자본 재조정, 내부 구조 변경,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배치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는 2020년 일시적 확대 이후 최근 감소 흐름을 보인다. 이는 제조업 투자 둔화와 연계된 파생적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의 대중 서비스업 투자는 실물 연계 유통·정보 분야는 일정 부분 유지되나, 금융 및 지주회사 부문에서는 전략적 재조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가 일률적으로 축소되기보다 업종별 특성과 규제·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3.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업 주요 업종의 직접투자 추이(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EA 홈페이지(2026. 2. 2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업종별 조정 양상은 기존 연구의 해석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Rhodium 그룹의 Two-way Street 관련 분석에 따르면, 미중 갈등 이후 미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크게 감소한 반면, 기존 투자 자산을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는 움직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95]

2)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전략

미국정부는 독일과 달리 대중국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단일 전략 문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중심으로 중국을 미국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96]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정책 역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핵심 기술과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정부의 대중국 투자 규제 접근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른바 '작은 마당(small yard)과 높은 담장(high fence)'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97]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높은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좁게 특정하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강한 차단 장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는 기존의 기술·제품 중심 수출 통제에서 점차 확장되어, 자본 투자, 경영 참여, 기술 이전을 포괄하는 투자 통제 영역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이후 반도체·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대중국 수출 통제 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2023년 8월 발표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05)과 이를 집행하는 미 재무부 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해당 제도

95) Rhodium Group(2023), "When Multinationals Start De-risking, How Will Beijing Know?"(검색일: 2026. 5. 6.).
96) White House(2022. 10.).
97) Sullivan(2023. 4. 27.).

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제품 분야에 대한 대외투자를 금지(prohibited) 또는 신고(notifiable)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98] 이를 통해 미국정부는 민감 기술 영역에 한해 대중국 투자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민감 기술 영역에서는 신규 투자 위축이 나타나는 반면, 소비재·일반 제조업·서비스업·금융 등 비민감 영역에서는 기존 투자 자산의 유지와 중국 시장 접근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지는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면적인 철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구획된 영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표 4-3.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2018년~)	- 반도체·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제품 단위 수출통제 강화(EAR, Entity List 등) - 대중국 기술 이전 및 첨단 장비 접근을 제한하는 1차적 통제 수단으로 작동 - 이후 투자·자본 통제로 확장되는 정책적 출발점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년)	-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 경제·기술·안보를 연계한 경쟁 프레임 강화 (핵심 기술 보호 및 공급망 회복력 강조)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 (2023년~)	- 행정명령 14105 기반, 국가안보 기술·제품의 특정 범주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신고 체계 도입 - 재무부 최종 규정(Final Rule) 발표 및 시행(2025. 1. 2.)
Small Yard, High Fence 전략	- 규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기보다, 좁은 핵심 기술에 집중해 담장을 높이는 표적형 통제 개념(설리번 연설에서 반복 사용)

자료: White House(2022. 10.); Sullivan(2023. 4. 27.), White House; White House(2023. 8. 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4. 10. 28.).

98) White House(2023. 8. 9.), pp. 54869-54872.

한편 앞서 살펴본 대중국 투자 통제 체계는 미국 내 산업정책 및 공급망 재편 전략과 결합되며, 기업의 투자 선택과 사업 구조를 제약·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포함된 가드레일(guardrail) 조항은, 미국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및 관련 분야에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 확대와 미국 내 보조금 활용 간의 선택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축소보다는, 민감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 억제와 비민감 영역에서의 선택적 잔류가 병존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전면적 디커플링을 지향하기보다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 관계를 조정하려는 접근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확인한 업종별 투자 잔액 변화는 이러한 민감 기술 중심의 통제 기조와 맞물려, 규제 민감도가 낮은 제조업·일반 서비스 영역에서는 잔액이 유지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재편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일본

1) 일본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위상변화

일본의 해외투자는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국 투자비중은 낮은 편이다. 특히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희토류 대일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일본의 대중국 투자도 본격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지난 10년간(2015~24년) 일본의 상위 해외 투자국은 미국, 네덜란드, 영국 순이며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가 시행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해외투자 중 34.6%가 미국에 투자[99]되었다. 반면 일본의 아시아 전체 투자 중 중국으로의 투자는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중국은 일본의 2~3위 투자 대상국이었으나, 최근 경제 안보 강화와 중국 내 경기 둔화로 인해 일본의 대중국 신규 투자가 급감했다. 일본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의존도를 감소하는 동시에 일본의 중국 투자를 ASEAN 국가로 이전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한 일본의 대중 투자는 2012년을 정점으로 투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대ASEAN 투자가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대ASEAN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12.5% 증가해 286.7억 달러에 달했다. ASEAN 중 일본의 주요 FDI 투자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다.[100] 특히 26.9% 증가한 태국에는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 업종에 투자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101]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24년 기준 10년 전과 비교해 약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축소 경향은 트럼프 정권 초 미중 무역 마찰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중국의 규제 투명성과 직원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일본기업이 투자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102]

2024년 일본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80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미 투자는 19.0% 증가한 786억 달러로, 2021년(829억 달러)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103] 한편 대중국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대인도 투자는 확대 추세를 보이며, 2024년까지 2년 연속으로 대중국 투자 규모를 상회하였다(표 4-4 참고).

---

99) 財務省(일본 재무성), 「直接投資残高(地域別・業種別)」(검색일: 2026. 1. 23.).
100) 「日本の海外直接投資の動向」(2025. 4. 7.), (검색일: 2026. 1. 23.).
101) 「日本企業のASEAN投資が好調、収益も世界シェア2割に接近」(2025. 4. 23.), (검색일: 2026. 1. 23.).
102) 「日本の海外直接投資の動向」(2025. 4. 7.), (검색일: 2026. 1. 23.).
103) JETRO(2025), 「第1項 日本の対外直接投資 2024年の日本の対外直接投資は2年連続で増加」, ジェトロ世界貿易投資報告(검색일: 2026. 1. 26.).

표 4-4. 일본의 주요국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3년	2024년		2025년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아시아	**37,477**	**42,707**	**14.0**	**11,819**	**-13.6**
중국	3,437	3,385	-1.5	1,299	4.4
ASEAN	**25,489**	**28,669**	**12.5**	**6,955**	**-28.3**
싱가포르	9,834	16,762	70.4	3,673	-37.0
베트남	4,954	1,837	-62.9	551	20.0
인도	5,999	5,341	-11.0	2,271	17.8
북미	**70,098**	**80,351**	**14.6**	**24,469**	**-5.1**
미국	66,061	78,605	19.0	23,759	-4.9
중남미	**13,493**	**13,149**	**-2.5**	**3,916**	**69.9**
대양주	**15,778**	**16,970**	**7.6**	**3,558**	**-3.9**
유럽	**55,581**	**53,027**	**-4.6**	**12,129**	**12.6**
독일	5,480	6,115	11.6	1,050	-34.2
영국	17,519	15,402	-12.1	4,464	-11.6
세계	**195,447**	**208,057**	**6.5**	**55,831**	**-0.8**

자료: JETRO(2025), 「第1項 日本の対外直接投資 2024年の日本の対外直接投資は2年連続で増加」, ジェトロ世界貿易投資報告(검색일: 2026.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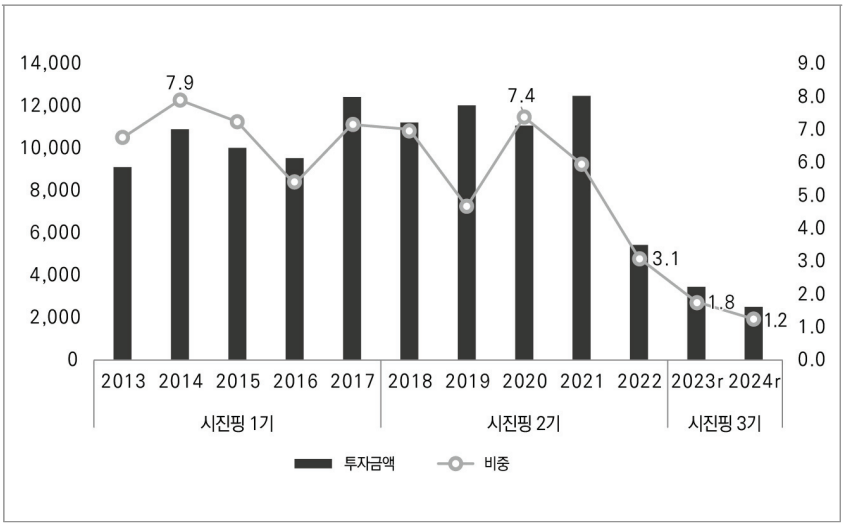
최근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21년을 기점으로 더욱 축소되었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미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 중국 내 규제 강화로 인해 일본기업들의 신규 투자 둔화 등으로 급감[104]한 반면 일본기업의 대미 투자가 더욱 확대되었다. 반도체·첨단기술 협력,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에 발맞춰 일본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거점과 연구개발(R&D) 센터를 확대했으며, 소니·도요타 등이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최근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 확대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FDI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역시 미국

104) KIEP 내부 간담회 자료.

이다. 미국에서만 전체 해외투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78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4. 일본의 대중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JETRO 홈페이지 및 통계 DB(검색일: 2026. 1.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일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는 전기기계(36.0%), 일반기계(23.3%), 화학·의료(22.0%) 순으로 높았으며, 투자금액의 59%가 기계류에 투자되었다(표 4-5 참고).[105]

105) 財務省(일본 재무성) 홈페이지(검색일: 2026. 1. 23.).

표 4-5. 일본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 상위 업종

(단위: %)

순위	2018	2020	2022	2024
1	운송기계 (36.5)	운송기계 (42.2)	운송기계 (48.4)	전기기계 (36.0)
2	일반기계 (24.2)	일반기계 (14.4)	화학, 의료 (35.0)	일반기계 (23.3)
3	전기기계 (15.2)	화학, 의료 (11.1)	일반기계 (30.0)	화학, 의료 (22.0)
4	화학, 의료 (10.8)	전기기계 (10.0)	철, 비철, 금속 (7.9)	운송기계 (13.8)
5	철, 비철, 금속 (7.5)	철, 비철, 금속 (7.2)	목재, 펄프 (6.0)	섬유 (8.3)

주: 업종별 비중은 순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22년과 2024년은 일부 업종의 투자 회수(마이너스)로 인해 상위 업종 비중의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財務省 홈페이지, 対外·対内直接投資(地域別·業種別)(검색일: 2026. 1.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일본의 대중국 투자 전략

가) 일본의 대중국 전략 변화

일본의 대중국 전략은 주요 대외정책 기조인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가안전전략(NSS)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공급망 다변화 및 'China+1' 가속화, 중국 내수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이원화 전략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을 기점으로 이미 대중국 투자를 ASEAN으로 이전하는 전략, 즉 'China+1'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일본 아베 정부가 2016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발표했으며, 2023년 3월에 기시다 총리가 인도 뉴델리에서 'FOIP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면서도,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의 지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대중국 투자 전략은 외교·안보적 정책을 넘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 지형과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NSS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미중 갈등이 고착화된 2022년 말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2026년 기준 더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개정된 NSS에서 일본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Greatest Strateg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이는 과거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격상된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현상 변경 시도를 일본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지산지소(중국 내 생산, 중국 내 소비) 전략의 변화

기존 일본의 대중국 투자기업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 소비하는 현지 생산·현지 소비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 전략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 전략의 변화를 다음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내 리스크 분산 전략이다. 최근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 전략은 지정학 리스크 확대 속 '과도한 중국 의존 억제' 기조가 강화되었다. 이는 미중 마찰 장기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 기술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치·안보 이슈로 긴장이 지속되면서 반일 감정, 규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기업은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으며, 생산·조달·판매 모두에서 중국 리스크 분산(China+1, China+N)을 가속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 내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에 따라 일본 제조기업의 경쟁우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기업의 기술력·자동화·비용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제조업 고도화(EV, 배터리, 로봇, 태양광 등)로 일본기업은 현지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기업이 기존의 기술 우위 전제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현지 R&D 강화,

중국발 혁신의 적극적 활용, 고부가가치 영역 집중, 중국기업과의 협업·공동개발 등 다층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점을 인식하여 일본기업은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즉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위해 중산층·부유층 증가, 일본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호 유지, 지방 도시의 성장, 신산업(EV·AI·헬스케어)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기업별·산업별로 크게 분화되는 '복합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하여 일부는 철수하고 일부는 현지 주도 개발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소비재·외식업의 경우 브랜드력·가성비에 따라 명암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제조업·부품업의 경우 중국기업의 국산화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 IT·AI 업의 경우 중국발 혁신을 활용한 협업 기회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동안 일본기업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쳐오면서 해외투자 정책을 공급망 다변화 정책으로 설정하고 기존 공급망 단절을 대비하는 JIC(Just-in-Case)방식, 생산거점 이원화, 사업구조 재조정, 일본 내 제조 및 조달 확대, (물류 차질 발생 때) 근교에서 제품의 생산(조달·제조·유통) 등이 가능한 체계 마련 등을 모색해왔다.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대중국 전략은 철수·축소·현지화·협업·고부가 집중 등 다층적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다섯째, 생산거점 다변화 전략이다. 일본 제조업 전반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기존 중국의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거점 분산을 모색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106]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주요 산업별로 경제적 기능(생산거점, 유통거점, 시장, 공급업체)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생산 거점 측면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기능 측면에서는 전 산업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106) JETRO(2025), pp. 23-28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표 4-6. 일본기업의 업종별 경제 거점(2025년 기준)

업종	순위	생산거점	유통거점	시장 (최종소비)	시장 (설비투자)	공급업체
식료품	1	중국	베트남	미국	중국	중국
	2	미국	이집트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3	한국	나이지리아	대만	한국	브라질
화학	1	중국	대만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2	한국	한국	중국	미국	중국
	3	대만	베트남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금속/ 금속제품	1	중국	태국	미국	중국	중국
	2	태국	대만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3	한국	베트남	한국	한국	브라질
일반기계	1	중국	룩셈부르크	미국	중국	중국
	2	미국	헝가리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3	한국	태국	한국	한국	한국
전기기계	1	중국	대만	미국	중국	중국
	2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3	한국	베트남	한국	한국	한국
운송기계	1	미국	슬로바키아	미국	미국	중국
	2	중국	헝가리	중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3	러시아	체코	캐나다	호주	한국
도매·소매, 운수·우편, 음식·숙박	1	중국	싱가포르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2	미국	대만	중국	미국	중국
	3	한국	베트남	한국	한국	한국
정보통신, 금융, 사무지원	1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미국	중국	중국
	2	아일랜드	아일랜드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3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싱가포르	한국

자료: 岸川 和馬(2025), p. 13.

다) 생산기지 이전 전략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과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해외투자 촉진사업[107]을 시행

107) 経済産業省(2026. 1. 21.),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검색일: 2026. 2. 13.).

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서 ASEAN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및 신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비 일부를 보조 (통상 1/2 이내, 중소기업은 2/3 수준)하고 있다. 이전 대상국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SEAN으로 전략물자·의료·전자부품 등 핵심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020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본의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은 제품, 부품 및 소재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중요한 제품, 부품 및 소재 등의 국내 생산거점 정비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공급망 리스크 단절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고, 해당 기업[108]의 일본 국내 설비투자비용을 보조[109]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디지털, 탄소중립(그린), 원자재 분야이다(표 4-7 참고).

표 4-7. 생산기지 이전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

회차	분야	
1차[110]	A사업	-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은 제품·부품, 소재의 국내 생산 거점 정비 사업 -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은 제품·부품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을 도모하는 생산거점 정비사업
	B사업	-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제품·부품, 소재 중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품목의 생산거점 정비사업
	C사업	- 복수의 중소기업 등 그룹에 의한 공동사업 - 사업 A에 해당하는 사업 - 그룹화의 이점이 있는 사업

108) 대기업의 경우 최대 2/3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4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상한은 1차 150억 엔, 2·3차 100억 엔, 2023년 2월 공모 사업의 경우 30억 엔이며 중소기업특례사업은 5억 엔이다.

109) 일례로 2차 공모 기간에는 A 사업: 생산거점 집중도가 높고 공급망 단절에 따른 리스크가 높은 중요한 제품, 부품 및 소재의 공급단절 리스크 해소를 위한 생산거점 정비사업, B 사업: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수급 압력이 있으며 감염병 대응 및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물자의 생산거점 정비사업을 뜻한다.

110) 일본은 국내 설비투자에 투입되는 금액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하며 A사업의 경우 대기업 1/2 이내, 중소기업 2/3 이내, B사업은 대기업 2/3 이내, 중소기업 등 3/4 이내, C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3/4 이내로 보조하고 있다.

표 4-7. 계속

<table>
<tr><th>회차</th><th colspan="2">분야</th></tr>
<tr><td rowspan="3">2차[1)]</td><td>A사업</td><td>-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으며, 공급망 단절에 따른 리스크가 높은 중요한 제품·부품, 소재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해소를 위한 생산거점 정비사업[2)]</td></tr>
<tr><td>B사업</td><td>- 감염병의 확대에 따라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제품이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의료체제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물자의 생산거점 정비사업</td></tr>
<tr><td>중소기업 특례사업</td><td>-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으며, 공급망 단절에 따른 위험이 큰 중요한 제품·부품, 소재의 생산 등에 필요한 부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생산거점 정비에 관한 사업
- 보조율은 2/3 이내</td></tr>
<tr><td rowspan="4">3차[3)]</td><td>A사업</td><td>- 2차 때와 동일. 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자회로기판, 반도체 제조장치,반도체 부소재만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또한 그린과 관련해서는 전동차의 경우 모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그 외에는 2차와 동일).</td></tr>
<tr><td>B사업</td><td>- 2차 때와 요건은 동일하나 대상사업 변경(항원검사키트, 검사용 스왑, PCR 검사시약, PCR 검사기기, 급유기 관련 물자)</td></tr>
<tr><td>중소기업 특례사업</td><td>- 2차와 동일하나 대상사업이 2차 A사업에 한정
- 보조율은 2/3 이내</td></tr>
<tr><td colspan="2">-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에 따른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거점의 정비에 관한 사업
<table>
<tr><th>설비투자</th><th>보조율</th></tr>
<tr><td>재활용 설비의 신설 및 증설</td><td>1/4 이내~3/4 이내</td></tr>
<tr><td>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td><td>1/4 이내~2/3 이내</td></tr>
<tr><td>재활용 설비의 신설 및 증설</td><td>1/4 이내~1/2 이내</td></tr>
<tr><td>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td><td>1/4 이내~2/3 이내</td></tr>
<tr><td>대체원 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설비의 신설 및 증설</td><td>1/4 이내~1/2 이내</td></tr>
</table></td></tr>
</table>

주: 1) 각 사업에 대기업 1/2 이내~1/4 이내, 중소기업 등 2/3 이내~1/4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며 보조 대상 경비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조율은 차감함.
2) 디지털관련: 반도체 관련(메모리, 파워반도체/파워디바이스, 로직반도체, 센서, 전자회로기판, 반도체 제조장치, 반도체 부소재 등/· 차세대 자동차 관련(차량 탑재 통신기기 등)/로봇 부품, 드론 부품, 디스플레이, 광파이버 부자재 등임. 그린 관련: 전동차 관련(차량 탑재용 전지, 모터 등)/해양풍력발전 관련(나셀, 블레이드, 허브, 타워, 기초, 발전기 등 부품 등)/항공기 관련(엔진 부품, 날개 구성 부품 등)/고효율 가스터빈 부품, 거치용 배터리 등.
3) 3차는 2차 A, B사업과 보조율이 동일함.

자료: 経済産業省(2026. 1. 21.),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검색일: 2026. 2. 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주요국의 대중국 진출 현황

이 절에서는 주요국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중국 내 투자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독일, 미국, 일본 기업의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분석했다.

가. 중국진출 독일기업의 경영실태조사

독일의 대중국 투자는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직접투자 청산 규모가 연간 약 30억 유로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1년에는 약 45억 유로로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산은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투자 조정 현상의 일부로, 중국이 독일 전체 해외직접투자 청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중 갈등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독일기업의 대중국 사업이 전면적인 철수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111]

재중 독일기업의 사업 지속 의지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주중독일상공회의소(Germ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가 실시한 「Business Confidence Survey Report 2024/2025: Localization 3.0」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 중국 내 수요 둔화, 가격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도 설문 응답 기업의 92%가 향후에도 중국 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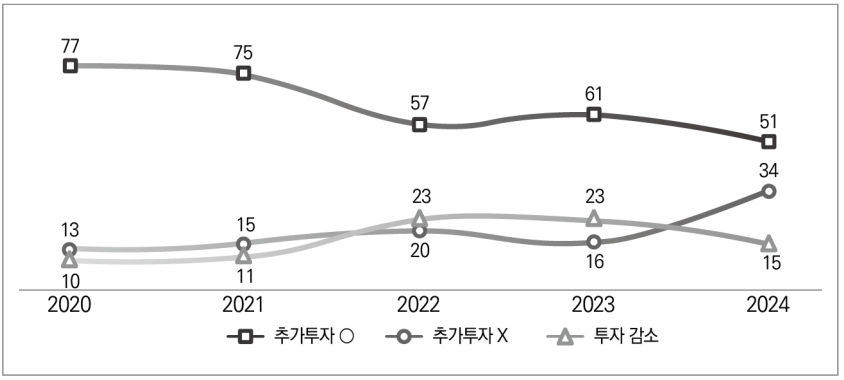
다만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는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일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1%는 향후 2년 내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2020년 조사 당시 77%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수

111) Jürgen Matthes(IW Köln)(2023. 5. 17.).
112) 해당 조사는 2024년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54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치이다. 동시에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34%)과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15%)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 의향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은행 역시 중국 내 독일 자회사의 수는 최근까지 증가해 왔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속도가 현저히 완만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113]

그림 4-15.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 의향

(단위: %)



주: n= 507, 응답 중 '잘모르겠음(I don't know)' 및 '공란(blank)'은 배제함.
자료: AHK China(2024a), p. 14.

이러한 결과는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투자 확대 국면에서 유지·조정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독일기업의 중국 내 사업 지속은 ① 중국정부의 정책적 유인 및 산업 보조금, ② 중국시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점검하는 '훈련장(Fitness center)'으로 인식하는 전략, ③ 무역 갈등이나 대만 해협 긴장 등 지정학적 충격 발생 시 본국과 분리 대응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확보하려는 목적에 의해 설명된다.[114]

113) Deutsche Bundesbank(2024. 10.).
114) Jürgen Matthes(IW Köln)(2023. 5. 17.),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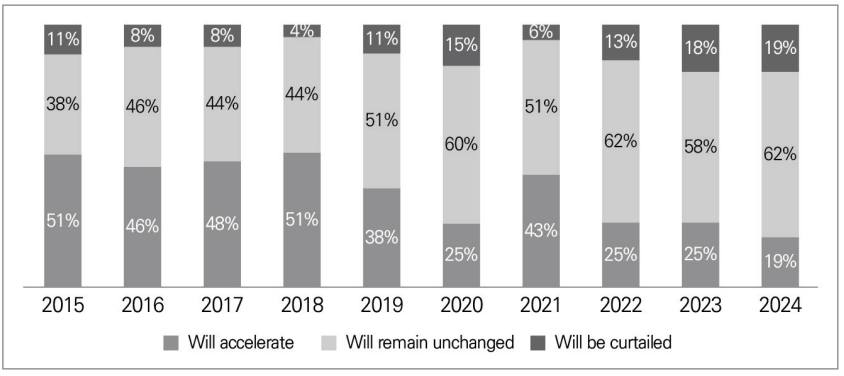
나. 중국진출 미국기업의 경영실태조사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사업 지속 의지는 주중 미국상공회의소(AmCham China)와 미중 비즈니스협의회(USCBC: US-China Business Council)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조사는 시간 추이를 반영한 문항과 최근 국면의 기업 인식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어, 미중 관계 환경 변화 이후 미국기업의 전략 전환 양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미국기업의 대중국 전략은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 시장 확대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017~18년 미중 무역갈등을 기점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면서, 실태조사에서도 미국기업의 중국 인식과 전략 우선순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USCBC의 2024년 회원사 설문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중국 내 자원 투입(투자·인력·설비 등)에 대해 '현 수준 유지' 응답이 약 3분의 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투자 확대(19%)와 축소(19%) 응답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기업의 대중국 전략이 과거의 고속 확장 국면을 벗어나, 전반적으로 유지와 조정이 병존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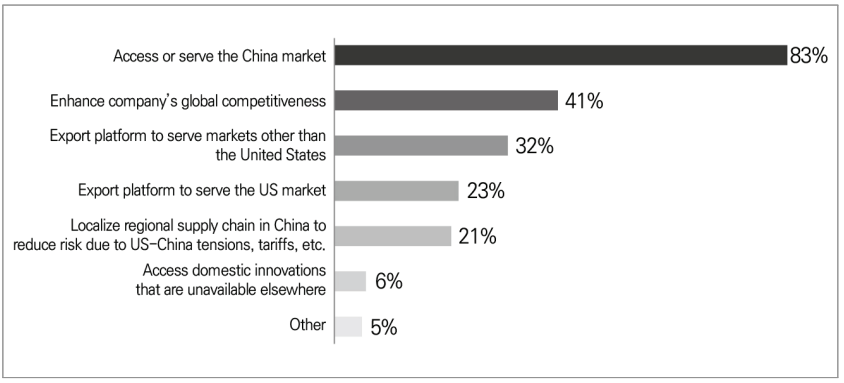
그림 4-16. 향후 12개월간 중국 내 자원 투입 계획



자료: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24. 9.), p. 28.

같은 조사에서 중국 내 사업 목적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다수는 여전히 중국 시장 대응을 핵심 동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3국 수출이나 미국향 수출 기능은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전면적인 생산 이전이나 철수보다는, 시장 접근을 중심으로 기능이 재정렬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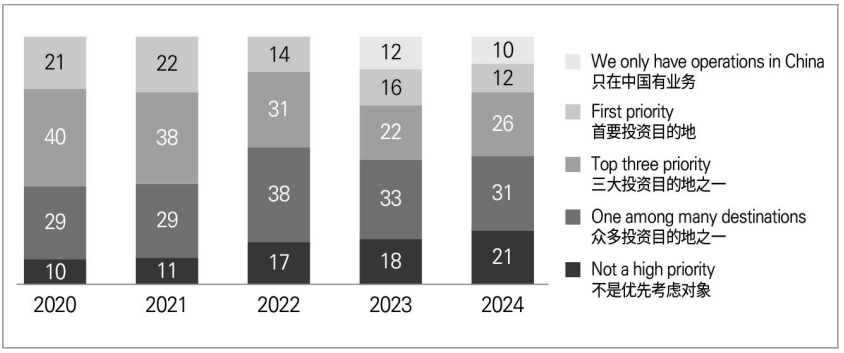
그림 4-17. 중국 내 기존 및 향후 투자 목적



자료: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24. 9.), p. 26.

AmCham China의 「2024/25 China Business Climate Survey」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응답 기업의 약 절반은 중국을 여전히 단기 글로벌 투자 우선순위 상위 지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을 더 이상 주요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 역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기업 내부에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흐름과,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림 4-18.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우선순위 변화 추이



자료: AmCham China(2024), p. 8.

USCBC 실태조사에 따르면,[115] 2021년 이후 미국기업이 인식하는 중국 내 최대 비즈니스 리스크는 일관되게 미중 관계 긴장으로 나타난다. 이는 산업이나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양국 관계 변화가 중국 내 경영환경의 가장 중요한 외생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규제·정책 및 법 집행의 불확실성, 인건비 부담, 데이터 이전 제한과 실사(due diligence) 활동 관련 제약 등 운영 과정에서 체감되는 구조적 부담 요인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위 항목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2024~25년에는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다시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는데, 이는 지정학·규제 요인에 더해 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가 전략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116] 종합하면 최근 실태조사는 투자 확대 여부보다,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비용을 중심으로 대중국 전략이 재정렬되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5)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24. 9.).
116) AmCham China(2024), p. 7.

표 4-8. 미국기업의 중국 내 5대 비즈니스 도전 과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미중 관계 긴장	74%	56%	56%	61%	63%
규제·정책 불확실성	37%	31%	32%	33%	26%
인건비 상승	48%	29%	25%	27%	24%
중국기업과의 경쟁	33%	-	-	24%	39%
데이터·보안 리스크	26%	23%	-	26%	23%

자료: AmCham China(2024), p. 7.

종합하면 미국기업의 대중국 실태조사는 미중 갈등 이전의 투자 확대 국면에서 갈등 이후의 유지·조정 국면이라는 시간적 전환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준다. 최근 조사 결과는 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약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 사업 기반과 시장 규모를 고려해 급격한 철수보다는 선택적 조정과 관리 중심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조사

일본 경제산업성은 매년 '해외사업 활동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수행[117]하고 있다. '해외사업 활동 기본조사'를 살펴보면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중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기업의 법인 수는 2015년도 3,930개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3,207개로 나타났다. 제조업 법인 매출액의 경우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33.3조 엔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7) 일본 경제산업성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사업 활동 기본조사' 중 2012년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5월 30일에 발표된 '제54회 해외 사업 활동 기본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経済産業省, e-Stat 政府統計の総合窓口, 「第54回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검색일: 2026. 1. 20.).

표 4-9. 중국 내 일본 제조기업 법인 수와 매출액 추이

(단위: 개, 조 엔)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 수	3,879	3,930	3,656	3,744	3,651	3,547	3,354	3,207
매출액	25.0	30.4	31.5	26.9	29.7	35.5	36.2	33.3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검색일: 2026. 1. 12.).

추가로 중국 현지 일본 제조기업의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현지조달 비중이 2015년 74.3%를 기록한 이후 연속해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현지 조달률은 77.2%에 달한다.

표 4-10. 중국 내 일본 제조기업의 지역별 조달 구조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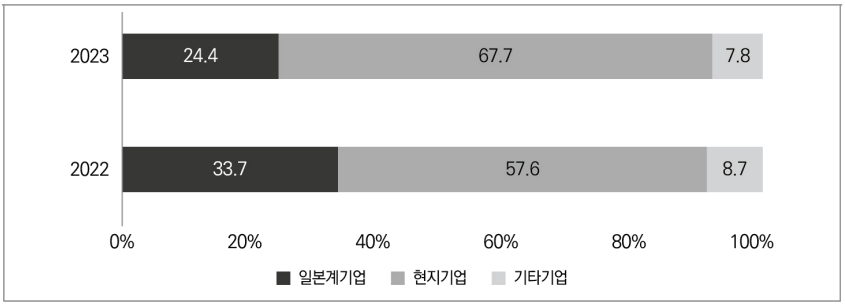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본	21.5	16.0	19.2	22.2	20.3	20.5	16.5	15.4
현지	**69.5**	**74.3**	**72.3**	**70.8**	**72.6**	**72.7**	**76.3**	**77.2**
북미	1.3	0.7	0.6	0.4	0.3	0.2	0.1	0.1
아시아	7.0	7.5	6.1	5.3	5.6	4.6	5.1	4.8
기타	0.7	1.5	1.8	1.3	1.2	1.9	2.0	2.4

주: 아시아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임.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검색일: 2026. 1. 12.).

반면 2023년 기준 현지조달 구입액 중 일본계 기업의 비중이 전년(33.7%) 대비 감소한 24.4%로 나타났으며, 중국 내 현지기업 조달 비중이 2022년 57.6%에서 2023년에는 67.7%로 증가했다. 즉 2023년에는 2022년보다 현지기업으로부터 부품 및 제반 자재 등의 조달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중국 내 일본기업의 현지조달원 비중 현황

(단위: %)



자료: JETRO 홈페이지 및 통계 DB(검색일: 2026. 1.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일본기업들은 주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서 생산 기능을 확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인도,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부가가치품, 범용품 모두에서 생산 기능 확대 지향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기능별 상위 8대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은 판매(5위), 생산(고부가가치 5위, 범용품 7위) 기능에서 모두 여전히 높다.[118]

1)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119]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하 제트로)는 매년 자국 기업의 경영 실태를 통해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본기업의 중국 내 경영활동을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중국 내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기업의 중국 내 수익은 여전히 대부분은 흑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향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118) JETRO(2025. 11.), 「2025年度 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全世界編)(2025年11月)」, p. 18(검색일: 2025. 11. 20.).

119)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1987년부터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경영환경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JETRO가 매년 중국 내 사업실적, 향후 사업전략, 경영리스크 및 투자환경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의 일본기업의 중국 내 경영활동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음. 「海外日资企业实况调查｜中国篇-继上年以来, 盈利占比及业务扩大意愿均有所下降-」로 2025년 2월에 공개한 설문 결과다. 중국 내 일본기업의 경영환경(진출 현황, 영업이익, 애로사항, 사업전략 등)에 관해 설문했다. 본 설문조사는 중국 전역에 진출한 일본기업 1,36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2024. 8. 20.~9. 18.).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업이익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중국 내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생존 및 효율 중심으로 중국 내 사업 전략을 전환하고 있었다. 제트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중국은 더 이상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며, 경쟁력 없는 기업은 빠르게 도태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역시 확대보다는 유지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시장은 이미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중국 내 영업환경은 거대한 내수시장, 산업 인프라, 완결형 공급망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여전히 행정의 예측 불가능성, 외자 규제 체감 강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제도적 비대칭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비용 문제는 아직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책·지정학 리스크는 통제 불가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일본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조달 비중은 유지하되, 동시에 동남아·인도 등으로 분산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탈중국이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1. 최근 일본기업의 중국 내 경영상 애로사항(2019~23년)

시기	1순위	2순위	비고
2023	인건비 상승	현지 수요 부진	- 중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의 문제에 관하여, “직원 임금 인상”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규 고객 확보 정체’(50.2%)와 ‘경쟁자 부상’(50.2%) 순 - “직원 임금 인상”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가장 큰 과제임. - 제조업 2위는 구매비용 증가이고, 비제조업 2위는 ‘신규 고객 확대’ 어려움임. 임금 인상 외에도 대기업의 주요 과제는 경쟁자의 부상과 상품 가격의 장점이며, 중소기업의 주요 과제는 신규 고객 확대와 구매 비용 증가임.

표 4-11. 계속

시기	1순위	2순위	비고
2022	인건비 상승	환율변동/ 조달 비용 상승	- 기업 경영상 업종(제조업 및 비제조업 공통 질문) '직원 급여 인상'(67.6%)이 가장 많았고, '환율변동'(64.1%), '조달 비용 증가'(64.0%) 순 - 제조업은 '조달비용 증가'(71.5%), 비제조업은 '환율변동'(68.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21	인건비 상승	조달 비용 증가	- 제조업의 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구매 비용 증가(66.7%)가 전년 대비 29.8%p 증가하여 "직원 임금 인상"(77.6%)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상위 10개 항목 중 '인재(일반 근로자) 구인난'(52.4%), '인재(기술자) 구인난'(43.8%)이 모두 10%p 이상 증가함.
2020	인건비 상승	환경 규제 강화	- 경영상의 문제 중에서 '직원 급여 인상'(63.3%)이 2019년 조사 이후 여전히 가장 큰 문제임. - 상위 10개 항목 중 '고객 주문량 감소'(40.8%)는 2019년 조사에 비해 4.4%p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활동 정체의 영향을 알 수 있음. - 한편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46.7%)가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라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함.
2019	인건비 상승	경쟁상대 부상 (원가경쟁)	-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직원 급여 인상(73.7%)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쟁상대 부상(50.0%), 조달비용(4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2019년 영업이익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현지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66.2%)였고, '수출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37.7%), '인건비 상승'(35.5%) 순

자료: JETRO China(2019~23), 「日资企业在亚洲的经营实态调查」(검색일: 2025. 11.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최근 5년간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중국 내 일본기업의 최대 경쟁자를 주요국의 외국계 기업이 아닌 중국 현지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기업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외국계'가 아니라 급속히 고도화된 중국기업이다. 위협요인으로는 가격경쟁, 기술추격 속도, 정부지원을 받는 중국기업들의 시장 잠식으로 조사되었다.

시장 점유율(성시별·업종별)은 5년 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한 주력 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중국에서는 "축소"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40%를 초과했다. 성시별로는 저장성, 후베이성에서 60%

초과의 기업이 “축소”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에서 “확대”가 60%를 넘은 반면, 사업 관련 서비스, 플라스틱 제품, 수송기기 부품, 운수업에서는 “축소”가 50%를 넘었다. 경쟁 상대 수(성시별·업종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5년 전보다 경쟁사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과 비교해 경쟁사 수가 “증가”했다는 비율은 중국 전체에서 60%를 넘었다. 베이징시에서는 76.7%의 기업이 “증가”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판매회사(75.0%), 화학·의약(71.4%), 일반 기계(68.8%), 상사·도매업(68.4%), 수송기기 부품(68.3%) 등에서 “증가” 비율이 높았다.

그 외 다른 조사업체인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의 2024년 해외사업 운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120] 일본제조업체들은 해외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해외 진출 모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향후 해외 사업 개발 강화 및 확대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인도는 3년 연속 유망 국가 순위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은 6위로 하락(2023년 대비 3단계 하락)하며 유망 국가 상위권에서 분명히 밀려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내 경제의 둔화, 현지 기업과의 가격 경쟁,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른 탈중국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득표율이 전년도 대비 11.0%p 감소한 17.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대다수(약 83%)는 “현지 시장 규모”를 유망한 진출 이유로 꼽아, 여전히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냈다. 한편 전기기기 및 전자 분야의 지지도는 올해 감소했으며, 일부 응답자는 “반도체 취급의 관점에서 미중 갈등의 장기화와 대만 상황이 우려되며, 중국은 유망하지

120)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발표한 ‘2024년도 일본 제조업체 해외사업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함. 상기 조사는 2024년 7월 936개 기업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9월까지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95개 기업이 유효 응답을 제출하여 응답률은 52.9%에 달한다. 설문조사는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의 해외 사업 개발 현황, 당면 과제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은 1989년부터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사업 운영을 조사하고 있으며, 2024년에 36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JBIC(2024. 12. 12.),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by Japanese Manufacturing”(검색일: 2026. 1. 21.).

않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타사와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한편 인터뷰에서는 "중국 측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사라지고 있으며, 기술력과 품질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화학)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으로 소싱 범위를 확대하려는 기업들도 있다.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증가와 경제적 합리성 추구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추세 속에서 제조·판매 기지 및 원자재 공급업체를 중국에서 벗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중국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제조·판매 기지 및 원자재 공급업체를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121]

한편 제트로 조사결과[122] 2024년 기준 중국 내 사업을 '축소' 또는 '이전·철수'하는 기업 수를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광둥성, 후베이성, 상하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수송기기 부품, 철 및 금속, 플라스틱 제품 순으로 많았으며, '축소' 이유로는 수요 감소 외에도 자동차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 등이 지적되었다. 추가로 중국 내 영업 중인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축소 혹은 이전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원인은 수요·매출 감소 및 시장 축소라고 대답했다. 특히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1~2년 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3~4년 내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자동차의 부진 또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본차 판매 부진으로 인한 물량 감소 영향과 경쟁사와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송용 기기 부품(자동차 등) 업종에서는 일본차 판매 감소 때문에 비철금속 업종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한편 제3국으로 이전 혹은 철수하려는 이유로는 역시 수요·매출 감소, 시장 축소가 언급되었다. 일반기계 업종의 경우는 향후 중국 경제 전망에 따라 본사

121) *Ibid.*, p. 33.
122) JETRO(2025. 2.), 「2024年度 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 中国編」, p. 16(검색일: 2025. 11. 20.).

가 철수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출판 업종의 경우 사업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뿐이므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는 중국 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섬유업종의 경우 고객 니즈 판단에 따라 많은 소매 기업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도를 낮출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일본기업의 사업 전개(성시별·제조업 성시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지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실시한 대응으로서 절반 이상이 현지 인재 육성(55.2%)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일본기업들은 중국 내 경영을 위해 제조업의 경우 현지 인재 육성(51.5%)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설비 증강(30.3%), 생산 품목의 다품종화(27.1%) 등이 뒤를 이었다.

3. 주요국의 대중국 진출 기업 사례

가. 독일기업의 중국 사업 사례 분석

본 절은 앞서 분석한 독일의 대중국 투자 구조 및 정부의 디리스킹 전략이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동기, 사업 구조, 리스크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 특성에 따라 대중국 투자 전략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제조·기술 핵심 거점 유지형: ZF 프리드리히스하펜 (ZF Friedrichshafen)

독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대중국 투자 축소나 철수보다는, 중국 내 핵심 제조 및 기술 기능을 유지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이 중국의 완성차 생산 체계, 기술 표준, 공급망 구조와 높은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ZF 프리드리히스하펜 사례는 이러한 전략적 유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ZF는 중국을 저비용 생산기지를 넘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EV 및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핵심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검증, 양산이 연계된 복합적 거점을 유지·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글상자 4-1 참고).

이와 같은 전략은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리스킹 정책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중국 신규 대형 투자에 대한 관리와 공급망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과의 기술적·구조적 연계성이 매우 높아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그 결과 ZF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핵심 기능을 유지한 채 글로벌 사업 구조 전반에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의 전략적 잔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상자 4-1. ZF 프리드리히스하펜

-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 ZF 프리드리히스하펜(Friedrichshafen)은 변속기, 섀시, 브레이크, 전동화 및 자율주행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Tier-1 공급업체
- 1990년대부터 중국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하여 현지 생산 및 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특히 중국 내 완성차 기업 및 글로벌 OEM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부품 공급 및 현지 생산을 확대해옴.
- 2010년대 이후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생산, 연구개발, 판매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 운영을 강화함.
- 최근 전기차(EV) 및 스마트 모빌리티로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ZF는 중국을 단순 생산 거점을 넘어 기술 개발과 제품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핵심 시장으로 인식하고, 현지 연구개발 역량과 시스템 통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ZF는 2025년 후베이성 우한시에 스마트 브레이크 시스템 생산을 위한 신공장을 가동하며 중국 내 생산 역량을 추가로 확충함.

자료: 위키피디아, "ZF Friedrichshafen"; ZF Press Center(2023. 7. 21.), "ZF invests in Wuhan airbag production base and R&D center"; "Germany's ZF board member calls China "fitness center" for automotive innovation"(2025. 7. 17.); Just Auto(2025. 10. 22.), "ZF opens new brakes plant in Wuhan, Chin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3. 25.).

2) 대규모 장기·현지 완결형: 바스프(BASF)

화학 산업의 경우 자동차 산업과는 다른 형태의 대중국 투자 지속 전략이 관찰되고 있다. 독일 화학기업들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일부로 활용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최종 수요시장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완결형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바스프 사례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인 생산 대체지나 수출 허브 대신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수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독립적인 생산·공급 체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중국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핵심 성장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지 완결형 전략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디리스킹 담론이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바스프는 본국에서는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첨단 화학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글로벌사업 구조를 이원화하고 있다. 이는 화학 산업의 수요 구조상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단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글상자 4-2. 바스프

- 독일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기초 화학, 고부가 화학, 첨단 소재 전반에 걸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으로, 중국을 핵심 성장 시장 중 하나로 설정함
- 2018년 중국 광둥성 잔장(Zhanjiang)에 세계적 규모의 통합 화학단지(Verbund Site)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대중국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함
  * 해당 프로젝트는 약 87억 유로 규모로 BASF 역사상 최대 단일 투자에 해당하며,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이 아닌 100% 독자 투자 방식으로 추진됨
- 2020년 1단계 공장 건설 착수 이후 2022년 핵심 공정에 대한 투자 결정을 확정하고, 2025년 말부터 주요 설비에서 첫 제품 생산을 시작함
- 잔장 화학단지는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완결형(local-for-local)' 생산 거점으로, 중국을 글로벌 수출 허브가 아닌 독립적인 최종 수요 시장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반영함
- 독일 본사에서는 비용 절감 및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첨단 화학 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사업 구조를 재편함

글상자 4-2. 계속

- 지정학적 리스크와 디리스킹 담론이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중국을 대체 불가능한 최종 수요 시장으로 인식하며 장기적·전략적 잔류를 선택함

자료: "BASF to invest in a new Verbund site in Guangdong, China"(2018. 7. 30.); BASF(2024), Annual Report 2024; "BASF commences production of the first products from the core of the Verbund at its Zhanjiang Verbund site"(2025. 11. 5.),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3. 25.).

앞서 살펴본 ZF와 바스프 사례는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디리스킹 기조 속에서도 단절되기보다는 산업 특성과 기업 기능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기술 표준과 공급망 연동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중국 내 제조 및 기술 핵심 거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나타나며, 화학 산업에서는 중국을 독립적인 최종 수요 시장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현지 완결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잔류 양상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독일 주요 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적 대응 방식이다. 실제로 독일의 주요 제조·기술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생산, R&D, 기술 검증, 시장·서비스 등 핵심 기능 중 일부를 유지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표 4-12]는 기업별 사례를 산업 유형과 중국 내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전면적 철수나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기능별·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잔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중소기업보다는 기존 중국 사업 기반과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지되며, 중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표 4-12. 독일 주요 기업의 대중국 투자 구조조정 및 전략적 잔류 사례

기업	산업	중국 내 핵심기능	최근 주요 투자	주요 판단근거
ZF	자동차 부품	생산 + 기술 개발	2025년 우한 브레이크 시스템 신공장 가동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 EV·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속도, OEM 협력 필수성
BASF	화학	생산 (Verbund)	광둥성 잔장에 세계적 규모 통합 화학단지 건설 (약 87억 유로)	화학 수요의 중국 집중, 대체 불가능한 최종 수요 시장
Liebherr	공작 기계	생산	2025년 충칭에 공작기계 생산공장 개소	중국 제조업 수요 대응, 현지 고객 밀착
Continental	자동차 부품	R&D	2024년 칭다오에 APAC 차량부품 기술 R&D 센터 신설	중국 기술 표준 대응, 현지 개발 역량 유지
Siemens	산업 자동화	R&D + 솔루션	중국 내 디지털 인더스트리·자동화 R&D 지속	산업 디지털 전환, 중국 고객 맞춤 솔루션 필요
Volkswagen	완성차	생산 + 플랫폼	중국 전용 EV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 전략 강화	'In China, for China' 전략으로 중국 시장의 독자적 특성과 현지 경쟁 환경에 대응
Bosch	자동차, 산업	R&D + 생산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및 관련 기술 투자를 확대	현지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
SAP	소프트웨어	시장·서비스	중국기업 대상 클라우드·ERP 서비스 유지	중국기업 디지털 수요, 현지 고객 기반

자료: 본문 내용 및 iChongqing(2025. 9. 10.), "German Giant Liebherr Opens First and Only Machine Tool Plant in SW China's Chongqing"; "ContiTech Qingdao R&D Center Opens"(2026. 3. 19.); "Siemens expands China business"(2023. 6. 16.); VOLKSWAGEN GROUP(2024. 4. 11.), "40 years of Volkswagen in China: Group accelerates its realignment with 'In China, for China' strategy"; "More chips: Bosch to invest on extending semiconductor production"(2022. 2. 11.); "SAP Asia Pacific announces new Business AI and cloud customers in Q4"(2026. 2. 3.),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3. 25.)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미국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분석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사업전략 또한 전면적 철수보다는 산업 특성과 정책 민감도에 따라 기능별 재배치와 선택적 잔류의 형태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소비재, 플랫폼·자본 부문에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제조 역량, 시장 규모, 생태계 집적도를 고려해 잔류 범위를 조정하는 전략이 관찰되고 있다. Rhodium Group(2024)는 미국의 수입 구조 변화가 반드시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축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중국·대만 기업이 멕시코·베트남 등지로 생산거점을 이전해 대미 수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무역 다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123]

1) 제조·소비재 부문의 선택적 잔류형: 테슬라(Tesla), 애플(Apple)

미국 제조업 및 소비재 기업의 대중국 전략은 생산·공급망·기능을 분산하면서도 중국 내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대규모 제조 인프라, 숙련 노동력, 부품·협력업체 네트워크가 고도로 집적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내 완전한 대체가 어렵다는 구조적 제약에 기인하고 있다.

테슬라와 애플의 사례는 이러한 전략적 유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기차, 소비자 전자제품과 같이 글로벌 대량 생산과 시장 대응 속도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중국 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이 여전히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중국 거점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기보다는 유지·조정하는 방식이 선택되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을 해외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생산·공급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설비·공급망·시장 접근의 효율성이 특정 산업과 기업 조건하에서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조·에너지 전환과 같이 정책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는, 중국 내 기존 거점을 활용한 사업 확장이 여전히 합리적 선택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23) Rhodium Group(2024), p. 3.

글상자 4-3. 테슬라

-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중국 내수시장 대응과 글로벌 공급을 병행해 왔음.
-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해외 생산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하며, 중국 내 생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함.
  * 중국 내 공급망 현지화율은 95%에 달함.
- 최근 전기차 제조를 넘어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야로 중국 내 제조 기반을 확장하며 기존 거점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함.
- 이는 중국 내 설비·공급망·시장 접근의 효율성이 특정 산업과 기업 조건하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반영함.
- 정치적·안보적 긴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비민감 산업 영역에서는 기존 주력 사업 유지와 신사업 확장이 병존하는 전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자료: "Tesla's Shanghai energy storage megafactory begins trial production"(2025. 1. 1.); "Tesla begins production at Shanghai Megapack Factory"(2025. 2. 11.); "Tesla's Shanghai Megafactory delivers over 2,000 units in 2025"(2026. 1. 30.); Tesla(2023. 5. 23.), "Tesla Impact Report 2023"; "Tesla's Shanghai gigafactory hits monthly delivery high in December, supplies over half of global deliveries for the year"(2026. 1. 5.),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3. 25.).

애플 역시 생산 거점의 일부를 중국 외 지역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내 제조·품질·공정 지원과 연계된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리스크 분산과 핵심 기능 잔류를 병행하는 'China+1' 전략이 미국 제조·소비재 기업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상자 4-4. 애플

- 미국의 대표적 IT·소비재 기업인 애플은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생산 거점을 인도 등으로 점진적으로 분산함.
- 다만 중국을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제조 역량,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집적된 공간으로 인식함.
- 이에 따라 중국 내 제조·품질·공정 지원과 연계된 응용 연구 및 엔지니어링 기능을 유지·강화함.
- 생산은 분산하되, 중국 내 핵심 제조 생태계와 기능은 유지하는 'China+1 + 핵심 기능 잔류' 전략을 채택함.

글상자 4-4. 계속

- 이는 미국기업의 대중국 전략이 단순한 탈중국이 아니라 기능별 재배치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줌.

자료: "Apple to expand applied research lab in China"(2024. 3. 12.); "Tim Cook: No supply chain in the world is more critical than China"(2024. 3. 20.); Shenzhen Daily(2026. 3. 17.), "A close look at Apple's applied research lab in Hetao, Shenzhen"; Yicai Global(2024. 3. 12.), "Apple to Add More Stores, Labs in China as Competition Stiffens"; "Apple aims to move more production out of China"(2023. 12. 8.),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3. 25.).

2) 자본·투자 부문의 구조적 분리: 세콰이어 캐피탈(Sequoia Capital)

미국의 대중국 전략 조정은 실물 생산이나 공급망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과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털과 같은 자본 기반 산업에서는 조직과 지배구조를 분리함으로써 정책·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선택되고 있다.

세콰이어 캐피탈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분리 전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함께 중국 관련 투자에 대한 정치·규제적 부담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단일 글로벌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세콰이어 캐피탈은 중국 사업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함으로써 미국계 자본이라는 정체성과 중국 내 투자 활동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정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벤처캐피털 시장의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확장으로 지역 간 포트폴리오 경쟁 충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특히 중국 사업부를 이끌어온 닐 션(Neil Shen)은 이번 분리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벤처캐피털 브랜드 자체보다 현지 네트워크와 장기적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콰이어'라는 단일 글로벌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독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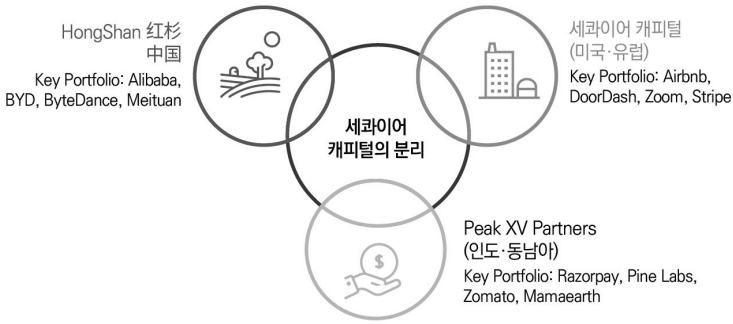
정체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발언은 세콰이어 캐피탈의 조직 분리가 지정학적 대응을 넘어 중국 시장의 제도·산업 환경에 대한 전략적 적응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콰이어 캐피탈 사례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면적 디커플링이 아니라 관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분리와 통제 강화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글상자 4-5. 세콰이어 캐피탈

- 글로벌 벤처캐피털 업계의 대표적 기관으로, 미국·유럽·중국·인도 등 주요 혁신 거점을 포괄하는 단일 글로벌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 2023년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미국·유럽, 인도·동남아, 중국을 각각 담당하는 독립 법인으로 분할함.
- 중국 사업부는 'HongShan(红杉中国)'으로 분리되어 자본, 지배구조, 투자 의사결정, 브랜드 측면에서 완전 독립 운영됨.

〈2023년 Sequoia Capital의 글로벌 조직 및 지배구조 분리〉



-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됨.
- 중국 시장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조직 분리를 통해 투자 지속성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함.

자료: CNBC Television, "Sequoia Capital to split into three firms, separating its China and India businesses [Video]"(검색일: 2026. 2. 2.).

앞서 살펴본 테슬라, 애플, 세콰이어 캐피탈 사례는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사업 전략이 전면적 철수나 일괄적 축소가 아닌 산업 특성과 정책 민감도에 따라 기능별로 차별화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 및 소비재 부문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대규모 생산 인프라와 공급망 집적도를 보유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생산 분산과 중국 내 핵심 기능 잔류가 병존하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본·플랫폼·기술 집약적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직접적 연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조직·지배구조·사업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의 조정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 기업의 개별적 선택이라기보다 미국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대응이다. 미국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생산, 연구개발, 서비스, 투자 등 기능별로 중국 내 잔류 범위와 조정 수준을 달리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은 유지되는 반면 정책·안보적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조정이나 분리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4-13]은 미국기업의 대중국 전략 조정 양상을 산업별·기능별로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단일한 '탈중국' 경로가 아니라 잔류, 선택적 조정, 구조적 분리, 부분 철수 등 다양한 전략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국기업의 대중국 전략이 중국 시장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이면서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미국 주요 기업의 대중국 철수, 투자·사업 전략 유형별 조정 사례

기업	산업	중국 내 핵심 기능	최근 조정 방향	정책·전략 제약 요인	전략 유형
Tesla	전기차	생산 + 판매	상하이 생산 유지 + ESS 확장	EV·ESS는 비민감 영역	잔류·확대 및 선택적 유지
Apple	IT·소비재	제조 지원·품질	생산 분산 + 중국 핵심 기능 유지	공급망 리스크, 수출통제 간접 영향	

표 4-13. 계속

기업	산업	중국 내 핵심 기능	최근 조정 방향	정책·전략 제약 요인	전략 유형
Qualcomm	반도체	라이선스·R&D 협력	중국 R&D·IP 투자 지속	반도체 수출통제	
Intel	반도체	판매·기술 협력	청두 패키징·테스트 기지 확장	CHIPS 가드레일	
Microsoft	클라우드·SW	서비스·R&D	클라우드·AI 기능 분리 운영	데이터·AI 규제	기능 조정 및 간접 관여
Google	IT·플랫폼	AI·데이터 협력	중국 내 직접 연구 활동 최소화하나 개발자 생태계·스타트업 지원·학술협력은 지속	데이터·AI 규제	
Sequoia Capital	VC	투자·자본	중국 사업부 독립	지정학·자본 규제 리스크	구조적 분리 및 지배구조 재편
Dentons	전문 서비스업	중국 내 로펌(대성)과의 결합 및 법률 자문	대성 로펌과 완전 결별, 독자 브랜드 회귀, 2025년 홍콩에서 exclusive association 체결	중국 반간첩법 및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HP	전자·IT	PC·프린터 생산	생산 거점 인도·베트남·태국·미국 등으로 이전	공급망 다변화, 관세 리스크	생산 이전 및 공급망 재편
Dell	전자·IT	조립·공급망	중국 비중 단계적 축소	China+1 전략	
GM	제조업	내연기관차 생산 및 거대 소비시장 대응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지시 및 생산 물량 축소	미중 무역 갈등 및 전기차(EV) 전환 지연	
IBM	IT·서비스	R&D·컨설팅	중국 R&D 조직 축소 및 일부 기능 이전	데이터 규제, 안보 리스크	축소·철수 및 자산 경량화
Yahoo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운영	중국 시장 완전 철수	규제·검열 환경	
LinkedIn	플랫폼	네트워크 서비스	중국판 서비스 종료	데이터·콘텐츠 규제	
Starbucks	서비스업	가맹점 운영 및 브랜드 확장	지분 60% 현지 투자사에 매각,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전환	현지 저가 브랜드(타스틴 등) 공세 및 수익성 악화	

표 4-13. 계속

기업	산업	중국 내 핵심 기능	최근 조정 방향	정책·전략 제약 요인	전략 유형
Burger King	서비스업	직영점 중심 프리미엄 시장 점유	지분 83% 매각 및 현지 사모펀드와 합작 구조로 개편	루이싱 등 현지 브랜드와의 '가격 전쟁' 심화	
Gallup	전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중국 내 모든 사무소 폐쇄 및 철수	외국계 조사 기관에 대한 당국의 감시 및 국가 안보 이슈	

자료: 본문 내용 및 "Tesla battery Megafactory in Shanghai launches production"(2025. 2. 11.); "Apple's India iPhone output hits $14 billion"(2024. 4. 10.); 「Apple 发起新的 7.2 亿元人民币投资基金，加速在华清洁能源发展」(2025. 3. 12.); "Apple to keep investing in China 'in a big way'"(2025. 3. 26.); "Qualcomm: Use Technologies to Enable Innovation and Industrial Ecosystem"(2024. 11. 20.); "Intel unveils additional investment in China to boost local supply chain"(2024. 10. 28.); "IBM to close China R&D department, affecting over 1,000 jobs"(2024. 8. 26.); "HP plans aggressive shift away from China amid geopolitical risks"(2024. 8. 7.); Nasdaq(2023. 1. 5.), "Dell looks to phase out Chinese chips by 2024"; Google Official(2025. 1. 1.), "Google I/O Connect China 2025"; "Yahoo leaves China for good, cites "challenging" environment"(2021. 11. 2.); "LinkedIn to phase out China local jobs app"(2023. 5. 9.); Starbucks Official(2025. 1. 24.), "Starbucks and Boyu Announce Joint Venture for the Next Chapter of Growth in China"; "RBI and CPE Complete Previously Announced Joint Venture to Reignite Growth at Burger King® in China"(2026. 2. 2.); "GM orders suppliers to cut China ties"(2024. 8. 19.); "Dentons HK forms exclusive association with Dacheng 2 years after China split"(2025. 1. 21.); MarketScreener(2023. 11. 4.), "US consultancy Gallup withdrawing from Chin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3. 25.)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일본기업의 중국 사업 투자 축소·철수 사례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2023년에 완성차 사업을 접었고 엔진 합작사(SAM)까지 정리하여 중국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한다고 2025년에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 일본의 미쓰비시자동차는 1973년 중형트럭 수출을 필두로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했으며, 1997년 중국 랴오닝성에 선양 미쓰비시(Shenyang Aerospace Mitsubishi Motors Engine Manufacturing Co., Ltd)를 설립하여[124] 1998년 생산을 개시하였다. 선양 미쓰비시는 랴오닝성 선양시에 본사를 두고 4G6, 4A9 엔진 등을 생산했다(글상자 4-6 참고).

124) Mitsubishi Motors, "Company History"(검색일: 2026. 2. 4.).

글상자 4-6.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중국 내 현황

[선양항천미쓰비시 설립]
- 선양항천미쓰비시는 1998년에 생산을 시작해 미쓰비시 브랜드 차량 제조사뿐 아니라 많은 중국 현지 제조업체에도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기여함.
- 2009년 7월, 미쓰비시의 혁신적인 가변 밸브 타이밍 전자제어 기술(MIVEC)이 적용된 4A9 엔진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이 경량 엔진은 소형차에 적합한 배기량을 가지며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특징으로 함. 고객의 니즈에 맞는 고품질 제품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 2017년 5월 19일 엔진 누적 생산량은 500만 대를 달성하였음.

[광치미쓰비시 설립]
- 광치미쓰비시는 광저우자동차그룹(GAC), 미쓰비시자동차(MMC), 미쓰비시상사(MC)가 각각 지분 50%, 33%, 17%를 보유함.[125]
- 중국 내 급증하는 SUV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로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2012년 컴팩트 SUV인 ASX의 현지 생산을 시작함. 이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다변화된 니즈에 부응하고자 SUV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음.
- 2016년 아웃랜더 모델의 국내 생산이 공식화되면서 합작 회사의 전체 판매량이 급증했음.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GAC 미쓰비시는 각각 11만 7천 대와 14만 4천 대라는 인상적인 판매량을 기록함. 그러나 단기적인 호황 이후 GAC 미쓰비시는 하락세에 접어들어 2022년에는 신차 판매량이 3만 3,600대에 그치며 4년 연속 감소함.

[최종철수 발표: 2023~25년]
- 2023년에 광치미쓰비시 지분 전량을 GAC에 양도, 광치미쓰비시자동차(GAC Mitsubishi Motors Co., LTD.)라는 사업명이 후난즈샹자동차관리유한공사(Hunan Zhixiang Automobile Management Co., Ltd.)로 변경됨.
- 2025년 7월 22일, 미쓰비시는 중국 내 마지막 남은 엔진 사업 파트너십을 종료한다고 발표함.

자료: "GAC Mitsubishi completes name change"(2024. 3. 6.); "广汽三菱低调成立三菱在华前景待"(2012. 10. 15),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2. 4.)를 이용하여 정리.

미쓰비시의 중국 내 완성차 현지 생산이 본격화 된것은 2012년으로, 광둥성 광저우의 광치자동차(GAC)와 합작하여 광치미쓰비시(GMMC)를 설립하고, 후난성 창사 공장에서 완성차 생산을 시작한 이후다.[126] 최근 10년간 미쓰비

125) 三菱商事(中国)(2012. 10. 12.), "广州汽车和三菱自动车、三菱商事的中国合资企业-广汽三菱汽车开始营业"(검색일: 2026. 2. 4.).
126) "GAC Mitsubishi Motors Co., Ltd., a Joint Venture of Guangzhou Automobile Group Co., Ltd.,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and Mitsubishi Corporation, Commences Operation"(2012. 10. 12.), (검색일: 2026. 2. 4.).

시 자동차는 중국에서 주로 SUV 라인업에 집중했으나, 2023년 자동차 공장의 지분을 전량 후난즈샹 자동차에 양도했으며, 2025년 7월에는 선양에 투자한 엔진사업 역시 완전히 철수하였다.[127]

미쓰비시자동차의 경우 중국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내연기관 SUV에만 의존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전환 속도 대응에 실패했다. 주력 모델인 아웃랜더 이후 후속 모델의 투입이 늦어지는 등 신차 부족 역시 경영 악화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중국 현지 브랜드의 기술력과 가성비에 밀리면서 판매 부진 등 복합적 원인으로 중국 내 철수가 이뤄졌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2025년 7월)한 후,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ASEAN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쓰비시는 동남아시아에서 "Challenge 2025"[128] 전략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 거점 강화와 전동화 모델(HEV)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의 경우 도요타 이외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닛산·혼다도 생산 축소 및 인력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대표 사례로는 일본제철을 들 수 있다. 2024년 일본제철은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기술 규제 강화 등 경제안보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해, 20년간 유지해 온 중국 바오산강철과의 자동차강판 합작사 BNA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중국 사업에서 철수했다. 중국 내 일본차 판매 부진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27) MITSUBISHI MOTORS(2025. 7. 22.), "Mitsubishi Motors to Terminate Its Joint Venture Partnership with Shenyang Aerospace Mitsubishi Motors Engine Manufacturing"(검색일: 2026. 2. 5.).

128) 미쓰비시는 ASEAN을 성장동력(Growth Driver)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 중이다. 1) 현지 맞춤형 개발: 일본 본사가 아닌 현지 도로 상황(침수, 비포장도로 등)을 철저히 반영한 모델을 개발, 2) 생산 거점 최적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4대 생산 허브로 삼아 생산능력을 대폭 확충(인도네시아 공장은 2025년까지 연 25만 5,000대 규모로 확장), 3) 하이브리드(HEV) 우선 정책: 순수 전기차(BEV)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투입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 Mitsubishi Motors(2023. 5. 10.), "FY2023-2025Mid-Term BusinessPlan "Challenge2025""(검색일: 2026. 2. 5.).

중국 철강사의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내 사업이 어려워졌다. 향후 일본제철은 중국 대신 미국(US스틸 매수), 인도(아르셀로미탈과의 합작법인(AM/NS India 설립), ASEAN(태국 등 현지 생산 거점을 강화) 등지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129]

글상자 4-7. 일본제철 중국 내 사업 현황

- BNA(보강일철자동차강판) 설립(2004년): 바오산강철과 50:50 지분으로 합작사 BNA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중국 내수시장(특히 일본계 완성차 업체 대상)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 거점을 마련함.
- [사업축소 배경] ① 일본제철의 주 고객사인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 내 전기차(EV) 전환에 뒤처지며 점유율이 급락함. 고객사가 사라지면서 강판 수요도 함께 감소함. ②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국 내수 철강 수요는 줄어든 반면, 과잉 생산된 저가 철강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③ 미중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필요성이 커졌음. 특히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추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 사업 노출도를 줄이는 행보를 보임.
- [철수 현황] 일본제철은 2004년부터 20년간 지속해온 바오산강철과의 자동차용 강판 합작사(BNA)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만료일인 2024년 8월 29일자로 보유 지분 50% 전량을 바오산강철에 매각함(2024년 7월 합의). BNA는 일본제철 중국 내 생산량의 약 73%를 차지하던 핵심 거점이었으나, 이번 철수로 인해 현지 생산 능력이 대폭 감소함.
- [현 상황] 통조림용 강판을 생산하는 우한 강철과의 합작 등 일부 소규모 사업은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중단된 상태임.

자료: Nippon Steel Corporation(2025. 12. 12.), "Nippon Steel Corporation Announces 2030 Medium- to Long-term Management Plan"(검색일: 2026. 2. 4.).

라.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 사례

일본기업 유니참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고품질·현지화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2012년 중국 기저귀 시장 2위였던 유니참은 현재 로컬 브랜드의 급성장과 전략적 판단 착오로 4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129) Nippon Steel Corporation(2025. 12. 12.), "Nippon Steel Corporation Announces 2030 Medium- to Long-term Management Plan"(검색일: 2026. 2. 4.).

중국 법인은 여전히 이익을 내는 구조이며, 2025년 9월에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약 144억 엔(약 1,300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할 정도로 현금 창출 능력은 유지하고 있다.

유니참은 "중국 소비자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 판단해 1995년 중국 진출 후 저가형 기저귀에 집중했으나,[130] 중국 중산층이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유니참은 2025년 이후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치 시프트(Value Shift)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중산층·도시 여성의 니즈를 반영해 기저귀·생리대 제품을 중국 전용 패키지·사이즈·소재로 재설계하고, 현지 공장을 설립해 공급망을 최적화했다. 또한 SNS·KOL(Key Opinion Leader)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다. 중국 소비자 중심의 제품·마케팅·생산의 완전 현지화를 통해 고가 시장을 공략하며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의 기술 고도화를 활용한 기업으로는 다이킨공업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에 진출한 이후 중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 가정용·상업용 에어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약 15~20%를 기록하고 있다. 상하이, 쑤저우 등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두고 중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2022년 상하이 봉쇄 당시 부품 수급난을 겪은 후에는 공급망의 중국의존도 탈피를 위해 '중국 없이도 에어컨을 만들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1] 중국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ASEAN에 대체 부품 공급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China+1' 전략의 일환이다. 2025년 9월 발표

130) Nikkei(2020. 11. 20.), "Unicharm takes on COVID-19 and rivals with 'made in Japan' masks"(검색일: 2026. 2. 5.).

131) 다이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품 조달을 중국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2020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필요한 부품의 35%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 수치는 2021년 20%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이킨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다른 제조업체에서도 구매하는 등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했다. "Daikin to wean itself off Chinese-made air conditioner parts"(2022. 9. 20.), (검색일: 2026. 2. 12.).

된 다이킨 보고서[132]에 따르면, 다이킨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철저한 원가 절감과 고기능 제품 출시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방어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기술 고도화·스피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현지 법인에 이양하는 전략을 취한 결과다. 중국기업의 빠른 개발 속도(3개월)에 대응하기 위해 R&D·생산·판매를 중국 내에서 일원화하고, 현지 니즈에 맞춘 고기능 공조 시스템을 빠르게 출시했다. 또한 중국의 DX·AI 기반 수요 분석을 활용해 제품 개선 속도를 높였으며, 중국에서 개발·중국에서 완결하는 구조로 전환해 경쟁력을 유지했다.

글상자 4-8. 다이킨공업의 중국 내 사업 현황

- 다이킨공업은 1990년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중국이 전체 매출의 약 15~2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자리매김함.
- 상하이·쑤저우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현지생산·현지판매(Local for Local)' 전략을 견지해옴.
- 2022년 상하이 봉쇄 당시 부품 수급차질을 겪은 후,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중국 없이도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와 병행하여 일본·동남아시아 등지에 대체 부품 공급망을 조성하는 'China+1' 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기업의 신속한 제품 개발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R&D·생산·판매 기능을 중국 내에서 일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고기능 공조 시스템을 출시함.

자료: 다이킨 홈페이지; "Daikin to make big Asia push on energy-saving air conditioners"(2023. 5. 24.),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2. 12.)를 이용하여 정리.

132) "Daikin Releases Its Integrated Report 2025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5"(2025. 9. 26.), (검색일: 2026. 2. 12.).

4. 소결

이번 장에서는 주요 지역의 대중국 직접투자 구조변화와 사례를 분석했다. 구조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 FDI의 특이성과 우회 투자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홍콩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먼저 홍콩은 중국 FDI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전체 FDI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이는 실질적 투자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중간 지주회사 및 역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즉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을 거쳐 다시 유입되거나 타국 자본이 홍콩을 경유하는 우회 투자가 포함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서 홍콩을 이용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하여 조세 혜택 및 자본 규제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국가별 대중국 투자 현황과 전략 및 특징을 분석했다. 먼저 독일(현지화 3.0 및 전략적 잔류)이다. 독일은 정부의 디리스킹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화학 등 핵심 산업군은 중국을 대체 불가능한 시장으로 인식하며 현지 R&D를 강화하는 '현지화 3.0' 전략을 통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수출·투자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테슬라·애플과 같은 제조·소비재 기업은 핵심 생산 기능을 유지하고, 금융 자본은 조직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여 대응하고 있다. 일본(China+1 및 이원화)의 경우 2012년 이후 인건비 상승과 중일 관계 악화로 대중국 직접투자가 위축되었다. 최근에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ASEAN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China+1 전략과 함께 중국 내수용과 글로벌 공급망용을 분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표 4-14.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특징

구분	특징	
독일	- 현지화 3.0	- 전략적 잔류 - 자동차 및 화학 등 핵심 산업군은 중국을 대체불가능한 시장으로 인식하여 현지 R&D투자를 강화
미국	- 선별적 잔류	-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수출 및 투자 통제를 강화 - 테슬라·애플과 같은 제조·소비재 기업 및 금융자본 등은 핵심 기능을 중국 내 유지
일본	- China+1 - 이원화 전략	- 2012년 이후 리스크 분산을 위해 ASEAN으로 생산 거점 다변화 - 글로벌 공급망용과 중국 내수용을 분리하는 이원화 전략 강화

자료: 본문 내용 정리.

한편 현지 기업과의 경쟁 격화가 주요국들의 기업 경영환경과 애로사항의 공통적 변화로 나타났다. 독일, 미국, 일본 등 국가의 기업들이 가장 큰 경영 위협요인으로 '중국 현지기업의 기술 성장 및 가격 경쟁력'을 꼽고 있었다. 또한 정책 및 규제(「반간첩법」 개정,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등 중국 내 법률적 불확실성) 역시 투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4-15. 중국진출 글로벌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 요약

국가	조사명	조사기관	주기	조사결과 요약
독일	중국 진출 독일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주중 독일상공회의소	매년	- [기본현황] 중국 진출 독일기업의 비즈니스 심리, 투자 계획, 경영 과제 등을 조사(설문조사는 중국 내 독일 기업 54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기간은 2024. 9. 3.~10. 8임.). - [중국 시장 진출·유지 이유] 응답 기업의 92%가 중국 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투자를 확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 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To remain competitive, 87%)'임. - [주요 투자 분야] 향후 2년 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기업(51%)들은 주로 R&D 및 혁신(61%), 현대화된 생산 설비(58%)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생산 기지에서 혁신 허브로의 전환을 의미함. - [최근 경영 추세 변화] 중국 현지기업들이 강력한 혁신 리더로 부상함에 따라, 독일기업들은 본사로부터 독립성을 높이고 현지 R&D를 강화하는 현지화 3.0(Localization 3.0) 전략을 추진 중임. - [가장 큰 애로사항] 중국 내수 수요 부진(56%)과 가격 경쟁 심화(52%)가 최대 경영 과제로 꼽혔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현지 기업 우대(보호주의)와 지식재산권 문제가 주요 장벽으로 작용함. - [향후 중국 내 사업 계획 및 리스크 관리] 기업의 43%는 지정학적 긴장과 중국 경제 둔화에 대응해 리스크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는 중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공급망의 현지화 혹은 중국 외 추가 거점 마련(China+1)을 통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임.
미국	Business Climate Survey	AmCham China	매년	- [기본현황] 중국 내 미국기업의 재무 성과, 투자 환경, 운영 과제 등을 조사(설문조사는 중국 내 회원사 368개사를 대상으로 2024.10.21.~11.15에 진행되었으며, 2025년 1월 발표됨). - [경영 실적 및 전망] 응답 기업의 46%가 2024년에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소폭 감소), 18%는 손실을 예상함. 향후 2년 동안의 중국 내 사업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표 4-15. 계속

국가	조사명	조사기관	주기	조사결과 요약
				- [중국 시장에 대한 인식] 여전히 응답 기업의 48%가 중국을 전 세계 3대 투자 우선순위 지역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중국 내수 소비 성장임. - [가장 큰 애로사항] 5년 연속으로 미중 관계의 긴장 고조(63%)가 1위를 차지함. 이어 중국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39%), 규제 준수 리스크(26%)가 있음. - [향후 중국 내 사업 계획 및 공급망] 응답 기업의 40% 이상이 2025년에 대중국 투자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답함. 공급망과 관련 67%가 생산이나 소싱을 중국 밖으로 이전할 고려를 하지 않고 있으나, 17%는 이미 이전을 시작했다고 응답함(전년대비 6%p 증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주요 목적지는 개발도상 아시아 국가(38%)와 미국(18%)임.
일본	JETRO	중국진출 일본기업 실태조사 (海外日资企业实况调查中国篇-继上年以来，盈利占比及业务扩大意愿均有所下降-」)	매년	- [기본현황] 중국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상황, 사업환경, 경영과제 등을 조사(설문조사는 중국 전역에 진출한 일본기업 1,366개사를 대상으로 2024.08.20.~09.18에 조사되었으며, 2025년 2월에 발표됨) - [중국 시장 진출 이유] 일본기업은 중국 시장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 - [기업별 주력상품의 축소/확대 현황] 지난 5년 동안 중국시장에서 주력 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화학·의약(71.4%), 일반 기계(68.8%)에 대한 점유율은 높음. - [최근 5년간 경영 추세 변화] 중국 내 일본기업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 현지기업으로 인식 - [가장 큰 애로사항]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 판매 부진 - [향후 중국 내 사업 계획] 조사 기업 중 일부 기업은 주력 사업 외 부문을 ASEAN 등지로 이동, 이동하는 이유는 1)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노동자 부족 우려 2) 미중 대립은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제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공급망에 영향이 크기 때문임.

자료: 본문 내용 정리.

제5장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구조변화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가. 한국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위상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기업 차원에서 해외투자는 생산거점과 판매망 구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현지 진출법인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 현지법인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해외자산 축적, 대부이자·로열티 등의 국내 환류, 해외법인 주재원의 근로소득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전체 해외투자 잔액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단일국가로는 중국 20.4%, 베트남 7.8%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2024년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현지법인 수	법인 수 비중	투자잔액	투자비중
중국	**1,150**	**20.7**	**62,437**	**20.4**
ASEAN	1,634	29.4	51,253	16.8
베트남	919	16.5	23,981	7.8
인도네시아	289	5.2	10,849	3.5
일본	171	3.1	5,013	1.6
인도	140	2.5	3,762	1.2
미국	**1,075**	**19.3**	**88,808**	**29.0**
EU	561	7.1	28,971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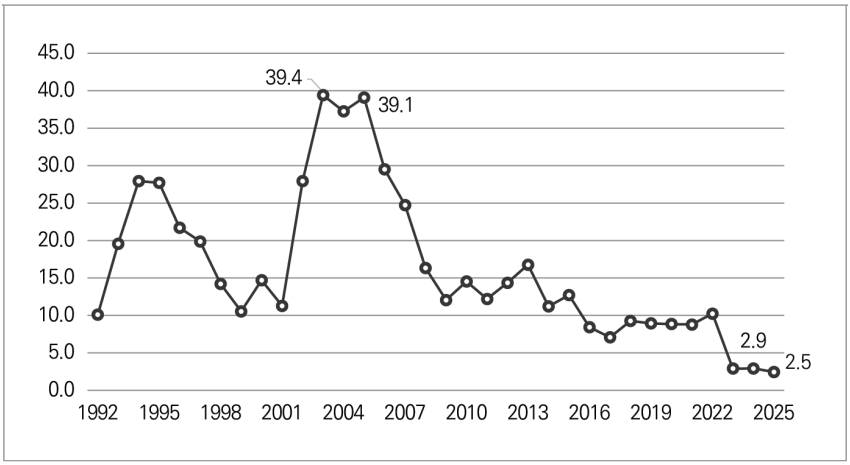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5), p. 196.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1992년 전체 해외투자의 10.0%였으나, 2003년에는 전체 해외투자의 39.4%(19억 4,549만 달러)에 달해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이 되었다(그림 5-1 참고).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이 중국(12.7%)에서 미국(22.4%)으로 변화했으며, 이후 중국은 한국의 해외투자 상위 지역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한중 간 투자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유발하는 중간재 수출을 통해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 방식 변화 및 성장 둔화에 기인하여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매출이 둔화되면서 중간재 교역이 감소했다. 특히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구조조정과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림 5-1. 한국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1. 28.).

그동안 한국의 상위 10대 해외투자 지역의 비중을 보면 미국, 중국, ASEAN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감소하고 미국과 ASEAN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1위 투자 대상국이 된 후 2022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이후 대중국 투자가 급감하여, 2025년 기준 중국(2.5%)의 투자는 미국(35.1%), 케이맨제도(11.8%), 룩셈부르크(9.1%), 싱가포르(4.8%), 베트남(4.4%)보다 낮아졌다.

표 5-2. 한국의 상위 10대 해외투자 대상국

(단위: %)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중국 (27.7)	미국 (27.7)	중국 (39.1)	중국 (14.5)	미국 (22.4)	미국 (26.1)	미국 (35.1)
미국 (17.3)	버뮤다 (25.4)	미국 (17.0)	영국 (14.0)	중국 (12.7)	케이맨제도 (11.7)	케이맨제도 (11.8)
인도네시아 (6.3)	중국 (14.7)	홍콩 (5.1)	미국 (13.5)	케이맨제도 (10.3)	중국 (8.8)	룩셈부르크 (9.1)
베트남 (6.0)	홍콩 (5.0)	베트남 (4.6)	말레이시아 (6.1)	홍콩 (6.1)	싱가포르 (6.6)	싱가포르 (4.8)
네덜란드 (4.9)	필리핀 (2.7)	슬로바키아 (3.1)	홍콩 (5.1)	베트남 (5.1)	캐나다 (5.1)	베트남 (4.4)
말레이시아 (3.5)	일본 (2.3)	일본 (2.7)	캐나다 (4.8)	싱가포르 (4.6)	베트남 (5.1)	캐나다 (4.3)
홍콩 (3.3)	인도네시아 (2.2)	브라질 (2.3)	호주 (4.6)	사우디아라비아 (4.4)	룩셈부르크 (4.8)	일본 (2.8)
루마니아 (3.2)	싱가포르 (2.2)	파나마 (1.8)	브라질 (4.1)	영국 (3.7)	일본 (2.9)	네덜란드 (2.7)
일본 (2.9)	알제리 (1.6)	싱가포르 (1.7)	인도네시아 (3.6)	멕시코 (3.3)	홍콩 (2.5)	중국 (2.5)
독일 (2.8)	베트남 (1.4)	인도네시아 (1.7)	베트남 (3.5)	호주 (2.9)	인도네시아 (2.3)	인도네시아 (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2. 19.).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제조업 이외에는 도소매업 등에 일정 규모의 투자가 있을 뿐이다. 제조업의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반도체의 대형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제조업'(이하 '전자제품')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표 5-3 참고). 2023년 '전자제품'은 전년 대비 99.1% 대폭 감소했으며 '전자제품' 이외 업종도 전년 대비 42.7% 감소했다.[133] 2023년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나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에 투자가 확대되었다.

표 5-3.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중국 투자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712	66.9	49	2.6	761	39.4
전기장비 제조업	714	8.4	510	26.9	290	15.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56	11.2	380	20.0	205	10.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41	4.0	116	6.1	121	6.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6	0.8	142	7.5	74	3.8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0.2	36	1.9	40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0.1	2	0.1	34	1.8
1차 금속 제조업	101	1.2	2	0.1	32	1.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1	0.6	41	2.2	30	1.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	0.1	11	0.6	24	1.2

주: 2024년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6. 2. 8.).

133)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통계 DB(검색일: 2026. 2. 8.)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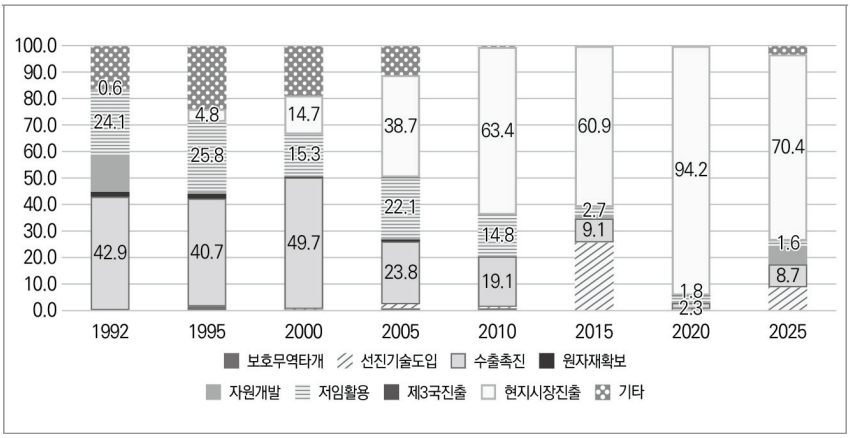
나. 제조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1) 한국의 시기별 대중국 제조업 투자

한국은 1990년대에는 수출을 촉진하고 저렴한 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투자를 확대했다. 이후에는 점차 중국 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중국 투자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00년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국 제조기업이 중국을 글로벌 가공 및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에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과 의미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134]

그림 5-2. 시기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목적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1. 28.).

첫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 초기 시기이다(1992~2001년). 이 시기에는 가공무역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15.9%에 달했다. 이 시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목적은 저임노동력 활용과 수출 촉진에

134) 최지원, 양평섭(2024), pp. 11~12를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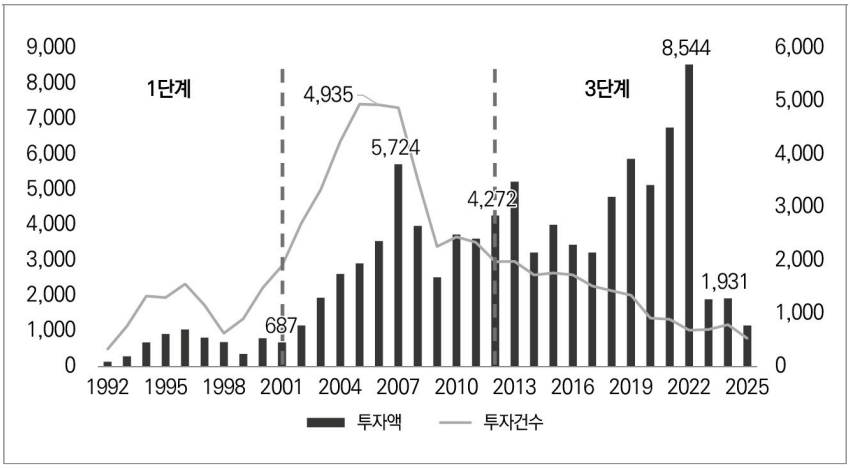
있었다.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인 섬유와 의류, 일부 가전 및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주도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한국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대중국 투자를 확대한 시기이다(2002~12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자기업 대상 국내 시장 개방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주로 자동차, 휴대폰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졌다. 동기간 중국은 한국기업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 국가로 부상했다.

하지만 2008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변화로 투자여건이 악화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2008~12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감소하였다.

그림 5-3.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1. 28.).

셋째,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추진된 시기다(2013년~현재). 이 시기에는 중국 내 조달이 어려운 산업(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이 이뤄졌다. 특히 2018~23년간 대중국 투자의 37.6%가 반도체 산업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대세계 투자의 54.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135]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영향으로 제조 생산기지로의 중국의 이점이 크게 감소했다.

2)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 감소

2008년 이후 중국 내 노무 규제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집약적·비환경친화적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ASEAN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발, 피혁, 의류 업종 등에서는 비정상적 철수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는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원인은 경기 순환적 요인, 대외관계 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경기순환적 요인과 대외관계적 요인은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유사하게 겪는 상황이다. 다만 대외관계적 요인 중 2016년 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미중 간 갈등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드 배치 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이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분야의 투자 급감이다. 2023년 대중국 투자감소 중에서 반도체 분야의 투자감소는 -56억 6,100만 달러(전체 대중국 투자 감소의 85%)에 달한다. [136]

2020년 이후 단발성 대형 투자로 대중국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발성 대형 투자는 SK하이닉스가 M&A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한 낸드 메모리 사업에 약 9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 건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월 중국

135) 양평섭 외(2024), 「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 2」, p. 604.
136) 최지원, 양평섭(2024), p. 4.

다롄에 있는 인텔 낸드 생산 공장을 포함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 투자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1단계로 2021년에 SSD 사업 및 다롄 공장을 인수하고, 2단계로 2025년 3월까지 낸드 기술 및 IP 이전을 하는 투자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137]

표 5-4. 한국의 대중국 투자통계(반도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중 투자		반도체 투자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2000	799	14.7	21	19.5
2005	2,920	39.1	118	69.1
2010	3,734	14.5	807	90.7
2015	4,010	12.7	1,056	91.2
2020	5,137	8.8	2,055	66.5
2021	6,761	8.8	2,671	60.4
2022	8,544	10.2	5,672	76.3
2023	1,900	2.9	11	0.4
2024	1,931	2.9	757	76.8
2025	1,161	2.5	133	31.7

주: 반도체 투자금액은 메모리용 및 비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을 포함, 반도체 투자 비중은 전 세계 투자액 대비 대중국 투자액의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2. 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는 수출 유발효과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한국 내 모기업의 대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한국산 중간재 매입 비중이 감소하였고, 현지 진출기업의 수출 유발효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37) "SK hynix acquires Intel's NAND biz for $9 bil"(2020. 10. 20.), (검색일: 2026. 1. 20.).

표 5-5. 최근 5년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투자잔액(배)	2.62	3.06	2.60	2.10	2.38
영업이익률(%)	2.2	3.8	1.0	5.8	5.3
한국 매입비중	31.9	31.3	27	24.5	24.2
수출유발효과	0.60	0.70	0.53	0.44	0.41
무역수지 개선효과	-29.9	-40.7	-39.2	-26.7	-40.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5), p. 230.

2. 한국의 생산기지 다변화 현황

가. 한국의 대중 투자 구조조정

1) 한국의 대중 투자 지역 다변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 구조조정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2008~12년 중국을 가공무역 기지로 삼았던 노동집약적 전통 제조업(섬유, 의류 등)과 가전 부문에서 대중국 투자가 축소 또는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이후 무선통신기기, 전자부품, 플라스틱 등 사업이 ASEAN으로 이전하면서 유통업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이 다시 조정되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중국의 내수시장 부진 및 중국 내 경쟁 심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휴대전화와 같은 업종에서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 또한 미중 마찰로 첨단산업 분야의 중국 투자 리스크가 증대하여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 핵심업종에 대한 중국 내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138]

138) 최지원, 양평섭(2024), pp. 11~12.

표 5-6. 대중국 투자의 구조조정 단계

구분	해외투자 조정기 (외환위기~)	제1차 구조조정 (2008~12년)	제2차 구조조정 (2018년~현재,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배경	한국의 해외투자 여력 위축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외자기업 혜택 축소, 선별적 외국인투자 정책	한중 관계 악화, 미중 마찰, 코로나19 팬데믹,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업종	[제조업] 전자부품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식품, 의류, 고무, 전자부품, 신발, 철강, 조선, 전자부품 [서비스업] 숙박업, 금융 보험업	[제조업] 고무제품, 철강, LCD 및 전자부품,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 소자,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서비스업] 도소매업, 지주회사
주체	-	가공무역형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 기지 이전	-	U-turn: 동남아 (전자부품, 섬유 및 의류), 중남미(철강, 비철금속)	U-turn, 동남아(P-turn) 이전 미국(첨단 제조업)

자료: 최지원, 양평섭(2024),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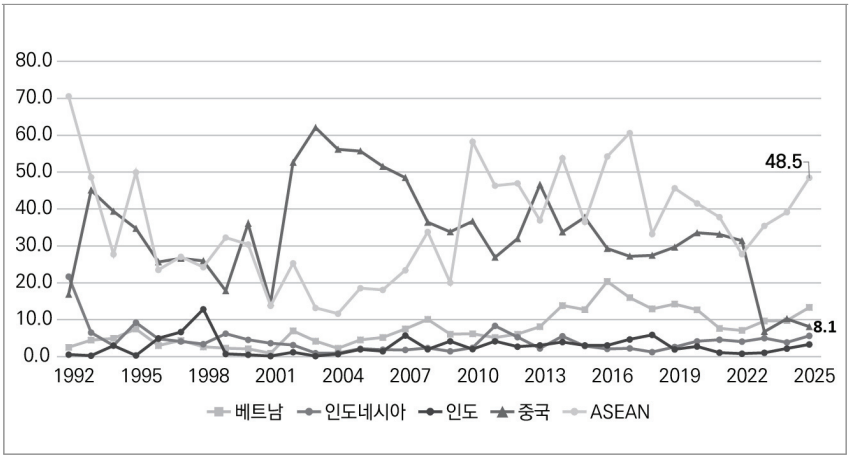
한편 공급망 단절과 미국정부의 대중국 제재 역시 한국의 생산기지 다변화의 주된 원인이다. 먼저 코로나19 유행기에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자동차용 배선 뭉치)수입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니스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중 수입 중단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후에도 중국 요소수 사태나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망 단절이라는 리스크를 겪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한국의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기지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생산 거점의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ASEAN과 인도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대ASEAN 직접투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 증가했다. 2007년 시점에서는 대중 직접투자액의 40%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한국의 대ASEAN 직접투자가 대중 직접투자를 역전했다.[139] 이후에도 한국의 대ASEAN 직접투자는(2013년 제외) 대중 직접투자액을 일관되게 상회했다. 2010년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ASEAN으로 생산기지가 변화되고 있다. ASEAN 국가 중 제조업 분야에 한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베트남이고 다음은 인도네시아이다.

그림 5-4. 한국의 지역별 생산기지 현황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1. 28.).

한국의 대ASEAN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되었다. 먼저 베트남의 경우 전자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었다.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가 급증한 계기는 2000년대 후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사업 진출이었다. 2018년 이후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주요국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139)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6. 1. 28.)에 따르면, 2010년 대ASEAN 직접투자 비중은 17.4%로 대중국 투자비중이 14.5%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나, 한국 기업들은 이에 앞서 이미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18년경까지는 대형투자가 이루어진 해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완만하게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40] 또한 현대자동차[141]가 인도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면서 인도에 대한 투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대베트남, 대인도네시아에 비하면 크지 않으며, 증가 추세 역시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다.[142]

한편 2020년 이후에는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투자 급감,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투자 정체 등으로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비중이 축소되는 한편 미국의 제조업 투자유치 정책 영향으로 한국 제조업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표 5-7. 한국의 제조업 투자지역 변화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아시아	68.0	65.1	60.5	63.5	54.5
북미	14.7	15.3	20.9	21.4	27.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5).

2) 소규모 투자 증가

최근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투자(출자비율 50% 미만)를 통해

140) 2012년에 한국타이어가 천연고무 생산이 활발한 지역에 타이어 공장을 건설했다. 2019년에는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을 위해 투자하고, 2022년 1월 생산을 시작해 소형의 스포츠용 다목적차(SUV), 전기 자동차(EV)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가 동반 진출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에 의한 차재 전지 공장 건설로, 공장은 2024년 7월 생산을 시작했다. JETRO(2025. 1. 20.), 相次ぐ在中韓国系企業の撤退(검색일: 2026. 1. 21.).

141) 현대자동차는 1998년 인도에서 양산을 시작했으며, 인도 승용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42) JETRO(2025. 1. 20.), 相次ぐ在中韓国系企業の撤退(검색일: 2026. 1. 21.).

중국 현지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순유입 FDI는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보다는 본국으로 더 많은 이익을 회수하고 있다. 중국 외국인투자 감소의 중요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중국에 투입된 자본의 본국 송금 회수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정자산과 인력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직접투자 대신 지분이라는 금융자산 형태로 중국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중국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중국 내 현지 수요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다. 한국기업들 역시 실력 있는 중국 현지기업을 활용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신규 설립법인 중 출자비율 50% 미만인 법인의 비율(기업수 기준)은 9.8%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45.0%까지 상승했다.[143] 출자 비율 50% 미만의 투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현지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한국기업이 100% 출자로 진출할 여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2024년 12월 「외국인투자자의 상장기업 전략적 투자 관리방법(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을 통해 최소 보유 지분 요건을 10%에서 5%로 낮추고 매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제3자 배정 신주·공개매수 방식에 한해 비상장 해외 주식을 투자 대가로 인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현금 유출 없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경량화된 투자 구조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144]

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회수 현황

중국의 생산 거점을 정리하는 '탈중국'의 움직임은 한국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기업소득세법」 시행(2008),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폐지(2007) 등 외자기업

14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3. 30.).
144)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2024. 11. 1.), 「商务部、中国证监会、国务院国资委、税务总局、市场监管总局、国家外汇局令2024年第3号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검색일: 2026. 3. 25.).

우대책이 잇달아 축소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을 통한 자본 철수가 본격화된 2023년을 기점으로 대중 투자가 감소했으며,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회수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기업의 탈중국은 중국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글로벌 여건 변화, 양국 관계 악화 및 중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며, 시기별로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145]

첫째,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중국 투자회수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정책 변화로 가속화되었다. 2004~08년 주요 투자회수 업종은 식품, 의류, 고무 등이고 투자회수액은 약 14억 6,600만 달러이다. 당시 중국 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가 회수된 업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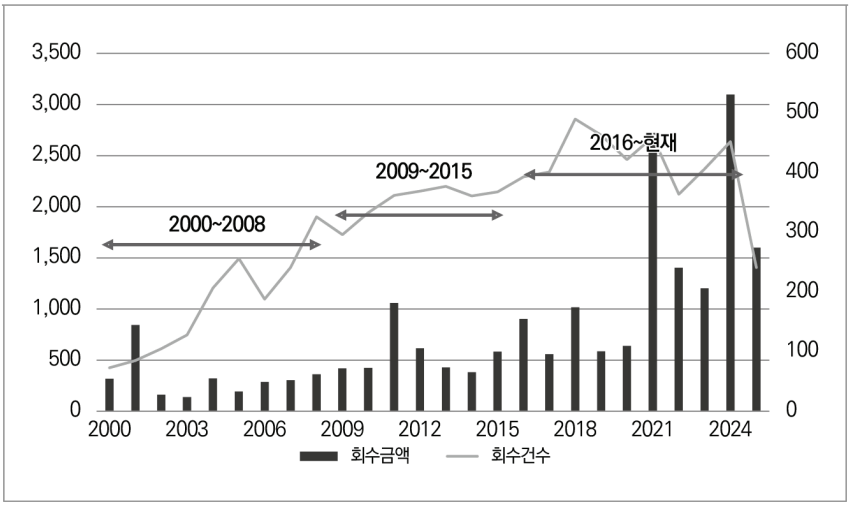
둘째,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발, 전자부품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탈중국이 나타났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들 업종에서 회수된 투자금은 약 25억 1,6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

셋째, 지정학적 변화,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중국 내수 시장 위축 등이 나타난 시기다. 특히 2016~18년에는 한중 관계의 악화와 중국 경쟁력 상승과 자체 공급망 강화로 철강, 전자부품 등 산업에서 탈중국이 나타나 회수된 투자금은 약 24억 7,600만 달러에 달한다. 2019년 이후에는 중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퇴출이 동반되면서 대중국 투자회수가 이루어졌다. 2019~25년 기간에는 약 112억 4,800만 달러(2,808건)가 회수되었다.

145) 양평섭 외(2024), 「대전환기 중국의 전략연구2」, p. 543.

그림 5-5. 한국의 대중국 투자회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6. 1. 18.).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구조조정 사례

1)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축소·철수 사례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투자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탈중국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탈중국은 중국 내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국내로 회귀하거나 생산비용이 저렴한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미중 갈등, 코로나19, 공급망 재편 등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탈중국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절에서는 탈중국을 포함한 투자 구조조정 사례를 2018년경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의 7개 대기업 그룹 중국 사업을 중심으로[146] 정리하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구조조정 기업 사례를 분석했다.

146) JETRO(2025. 1. 20.), 「相次ぐ在中韓国系企業の撤退」(검색일: 2026. 1. 21.).

우선 중국 내 사업을 완전 철수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도 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중국 내 공장을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국 내 경쟁 격화로 기존 LCD 사업을 축소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147] 현대차 역시 중국진출 초기 중국 내 5개의 승용차 공장을 건설했으나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공장매각, 중국 생산 축소 등으로 중국 내 생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했다.

대기업의 탈중국 초기 움직임은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의 베트남 이전 건을 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과 한국을 휴대전화의 대규모 생산 거점으로 정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 이후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에 제1공장(2009년 생산 개시), 제2공장(2014년 본격 생산)을 건설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수출용 생산거점으로 이용하고, 중국의 생산기지를 중국 내수용 생산거점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의 판매가 부진하자 중국의 생산거점을 폐쇄했다.

한편 7개의 대기업 그룹 중에서 중국 사업을 가장 크게 축소한 기업은 롯데다. 롯데그룹은 한국에서 사드배치 용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정부로부터 사실상 '제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주력 소매 사업을 비롯해 많은 사업이 중국에서 철수했다. LG그룹의 경우 수출용 생산 거점을 베트남 등으로 이관했다. 최근에는 LG이노텍이 산둥성에 있던 옌타이공장의 카메라 모듈 라인도 베트남에 이관한 바 있다(표 5-8 참고).

147) 「'두 번째 中 공장 정리'…LG디스플레이, 난징 LCD 모듈 사업 매각」(2026. 2. 9.), (검색일: 2026. 2. 12.).

표 5-8.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 사례(2018년~현재)

그룹명		연도	주요 내용
삼성	삼성전자	2018	광둥성 선전 통신설비 공장 폐쇄, 톈진 휴대폰 공장 폐쇄
		2019	냉장고 생산(연 10만 대) 태국 이전, 광둥성 후이저우 휴대폰 공장 폐쇄
		2020	톈진 휴대폰 R&D 법인 청산, 장쑤성 쑤저우 PC 조립 공장 폐쇄, 톈진 TV 공장 폐쇄
	삼성디스플레이	2021	장쑤성 쑤저우 LCD 공장을 TCL 산하 CSOT에 매각
	삼성SDI	2021	우시·창춘 배터리팩 법인 청산(배터리셀 사업에 집중)
		2024	우시 법인 포함 편광필름 사업을 중국기업에 매각
	삼성중공업	2023	저장성 닝보 생산법인 청산
	삼성전기	2023	광둥성 둥관 생산법인 청산
SK	SK차이나	2021	베이징 SK타워 매각, 자동차 리스 사업 매각
	SK에너지	2021	아스팔트 생산 4개 법인 중 3개 매각
	SK이노베이션	2023	배터리 사업 효율화를 위한 중국 현지 법인 청산
	SK하이닉스	2024	상하이 판매법인 청산, 우시 파운드리 현지법인의 지분(49.95%)을 우시산업발전그룹에 매각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2019	장쑤성 옌청 1공장 가동 중단
	현대자동차	2021	베이징 1공장 매각
		2023	허베이성 창저우 공장 가동 중단, 충칭 공장 매각
	현대글로비스	2023	중고차 유통 합작법인 지분 매각
	현대트랜시스	2023	산둥성 르자오 수동변속기 부문 청산
	현대위아	2023	베이징 터보과급기(Turbocharger) 생산법인 매각
	현대제철	2023~	베이징, 충칭 현지법인 매각 추진 중
LG	LG전자	2019	저장성 타이저우 냉장고 생산 시설 한국 이전
		2020	톈진, 쿤산, 선양 3개 법인 청산(쿤산 공장 베트남 이전)
		2021	장쑤성 쑤저우 인포테인먼트 부품 공장 폐쇄
	LG그룹 공동	2020	베이징 LG트윈타워 매각
	LG이노텍	2021	광둥성 후이저우 LED 생산법인 매각 결정
		2023	산둥성 옌타이 카메라 모듈 생산라인 베트남으로 이전
	LG화학	2023	편광판 및 편광판 소재 사업 중국기업에 매각
	LG에너지솔루션	2023	장쑤성 난징시 소형전지 합작법인 지분을 합작 상대 기업에 무상 양도하고 철수
	LG디스플레이	2024	광둥성 광저우 LCD 공장을 TCL 산하 CSOT에 매각

표 5-8. 계속

그룹명		연도	주요 내용
포스코	포스코	2022	광둥성 자동차 강판 생산법인 지분 매각
	포스코홀딩스	2024	스테인리스 생산 합작법인(ZPSS) 매각 추진
롯데	롯데쇼핑	2018	롯데마트 철수
		2024	마지막 중국 점포인 롯데백화점 청두점 매각
	롯데칠성음료	2021	롯데장백음료 매각
		2022	롯데오더리음료 매각
	롯데그룹	2022	상하이 중국 헤드쿼터(HQ) 청산
	롯데웰푸드	2023	산둥성 칭다오 법인 매각(식품 생산 철수 완료)
	롯데건설 등	2023	선양 '롯데타운 테마파크' 부지 및 시설 매각
	롯데케미칼	2023	저장성 자싱 에틸렌옥사이드 등 합작법인 지분 매각
한화	HAM홀딩스	2023	상하이 법인 매각
	한화솔루션	2024	중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및 판매 일시 중단

자료: JETRO(2025. 1. 20.), 「相次ぐ在中韓国系企業の撤退」(검색일: 2026. 1. 2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 소비재 기업의 경우 중국 생산법인을 정리 또는 매각하는 형태로 비용 상승과 소비수요 변화에 대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샘이다. 가구·인테리어 기업인 한샘은 중국 현지기업 및 글로벌 국가의 가구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국 사업 전략을 '전체 공간 리모델링(패키지 시공)' 중심으로 전면 수정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7년 8월 상하이에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으나, 홍싱메이카이룽(红星美凯龙) 등 중국 대형 유통 로컬 업체와 이케아(IKEA) 등 글로벌 업체가 고급 및 대형 매장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샘은 1996년 중국 진출 이후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중국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지속적인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결국 생산법인 매각을 통해 부실 사업을 정리했다. 한샘은 중국 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기간 누적된 적자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사업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글상자 5-1 참고).

글상자 5-1. 한샘의 중국 내 사업 구조조정 현황

- 1996년 중국 베이징(Beijing Hanssem Interior)에 법인 설립, 2004년 베이징에 자체 공장 마련, 신축 아파트에 주방가구를 공급하는 B2B 사업 진행
- 한샘은 B2C 사업을 위해 2016년 생산법인(Hanssem China Interior)과 상하이법인(Hanssem Shanghai Home Furnishing)을 설립(생산법인에 285억 원 현금 출자, 상하이법인 35억 원 출자)
- 2017년 8월 중국 1호 한샘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 개점
- 2021년 B2C 사업 철수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2022년 다시 순손실 8억 원을 기록
- 2021년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가 한샘 인수 후, 수익성이 낮은 중국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행
- 2025년 중국 한샘 상하이법인[Hanssem(Shanghai) Home Furnishings Co., Ltd.]을 청산하고, 한샘 소주법인[Hanssem(China) Interior Co., Ltd.] 지분을 중국 소재 회사에 매각

자료: 「① 중국 생산법인도 매각…자산유동화로 자금 숨통」(2025. 1. 10.), (검색일: 2025. 12. 20.); 「한샘, 중국 시공법인 6년만에 청산…체질 개선 고삐」(2023. 3. 19.), (검색일: 2026. 2. 20.); 「한샘, 상해법인 청산·계열사 매각… 수익성 중심 '출구전략' 시동」(검색일: 2026. 3. 30.)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 사례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탈중국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 현지 매출이 늘고 성공한 기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현지화 전략'과 '시장개척전략'을 시행하고 있다.[148]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중국 경기 침체 등 다양한 경영환경 애로사항에도 중국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꾸준히 실적을 늘리고 있다. OEM·ODM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중국기업과 공동 출자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국기업과의 제휴와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사업이 크게 성장하여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젠틀몬스터, HL만도, 코스맥스(COSMAX), 삼양식품, 츄(chuu)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아이웨어 브랜드 기업인 젠틀몬스터이다. 젠틀몬스터는 2024년 11월 기준 중국에 22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이는 해외 진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점포 수다. 매출 측면에서도 중국 외 지역보다 중국 내 매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9]

148) JETRO(2025. 1. 20.), 「相次ぐ在中韓国系企業の撤退」(검색일: 2026. 1. 21.).

둘째, 자동차 부품회사인 HL만도이다. 한국 완성차 업체가 중국 사업에서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HL만도는 '해외 고객 다양화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HL만도는 2011년 중국 현지 대기업인 지리자동차와 자동차부품 합작기업 '만도(닝보)자동차'를 설립하며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중국 매출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중국 내 전기차(EV)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리자동차·상하이 웨이라이자동차(NIO)·창청자동차 등 중국 EV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늘려왔다.

셋째, 화장품 기업인 코스맥스다. 코스맥스는 중국에서 100% ODM-OEM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기업과 협력·계약해 중국 현지 브랜드용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하여 코로나19와 사드배치 문제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현지 사업을 꾸준히 확장했다. 코스맥스는 기초 연구부터 제품 설계, 품질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서비스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소비자 맞춤형 R&D 전략이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현지 취향에 특화된 색조·기능성 제품을 기획하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며 브랜드사와의 협업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150] 코스맥스는 그동안 중국 내 현지 R&I(Research & Innovation) 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고객사와 소비자들의 피부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왔다. 특히 중국 시장에 선보인 립틴트 제품은 보습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맞아떨어지며 누적 생산량 2억 개를 초과했다.[151]

---

149) 젠틀몬스터는 한국의 아이웨어·화장품 메이커의 IICOMBINED(아이아이컴바인드)가 2011년에 시작한 글로벌 패션·아이웨어 브랜드다. 2023년 아이아이컴바인드 해외 점포 매출(2,239억 1,002만 원)은 총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지역의 매출이 중국 이외의 해외 매출액 합계를 크게 초과했다. JETRO(2025. 1. 20.), 「相次ぐ在中韓国系企業の撤退」(검색일: 2026. 1. 21.); 젠틀몬스터 홈페이지(검색일: 2026. 1. 20.).

150) 「코스맥스, 中 상하이 화장품 기업 11위…글로벌 K-뷰티 위상 강화」(2025. 9. 13.), (검색일: 2026. 3. 20.).

151) 「코스맥스, 中 진출 20주년…현지화로 화장품 시장 '기준' 정립」(2024. 10. 15.), (검색일: 2026. 2. 5.).

글상자 5-2. 코스맥스

- 2004년 첫 중국 현지법인 코스맥스 차이나(COSMAX China)를 상하이시에 설립 후, 2013년 두 번째 중국법인으로 코스맥스 광저우를 설립하여 중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2023년 기준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 차지).
- 2023년 중국 화장품 기업 이센(逸仙電商)과 함께 조인트벤처(JV)를 설립, 연간 4억 개 생산이 가능한 합작 공장을 완공함.
- 2024년 기준 코스맥스가 보유한 중국 내 생산시설은 상하이 4곳, 광저우 3곳 등 총 7곳이며, 이 7개 공장에서는 연간 약 15억 개의 화장품이 생산 가능함.[152]
- 코스맥스 차이나는 2021년 중국 EC(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 같은 해 코스맥스 차이나의 매출이 총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사업이 호조를 보였음.
- 코스맥스는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제품 기획, 연구·개발, 생산, 제조에 이르는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올어라운드(all-around)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른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제품 의뢰부터 출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까지 단축함.

자료: 코스맥스 홈페이지(2024. 10. 15.), 「코스맥스, 中 진출 20주년…현지화로 화장품 시장 '기준' 정립」(검색일: 2026. 2. 5.); JETRO(2025. 1. 20.), 「中国で成功する韓国企業と新たな商機」(검색일: 2026. 1. 26.)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넷째, 식품기업인 삼양식품이다.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 역시 중국에서 매출이 성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삼양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불닭볶음면은 현지에서 '훠지멘'(火鶏麵)이라는 이름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삼양식품은 태국식 '푸팟퐁커리 불닭볶음면'을 국내보다 중국에서 먼저 한정판으로 출시했으며,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서는 중국 한정판 '양념치킨 불닭볶음면'을 선보여 1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153]

글상자 5-3. 삼양식품

- 삼양식품은 2021년 9월 26일 상하이에 '삼양식품상하이'를 설립했으며, 중국은 삼양식품 전체 해외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점시장으로 상하이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10억 위안(약 1,700억 원)에 달함.

152) 「'중국 진출 20년' 코스맥스의 진짜 노림수는」(2024. 6. 11.), (검색일: 2026. 2. 5.).
153) 삼양식품 보도자료(2023. 11. 16.), 「삼양식품, 중국 광군제서 130억 매출 달성」(검색일: 2026. 1. 26.).

글상자 5-3. 계속

- 삼양식품은 2025년 7월 첫 해외 생산기지인 삼양식품(저장) 자싱공장 착공식을 개최함. 자싱공장은 대지면적 55,043㎡, 연면적 58,378㎡에 지상 3층 규모로, 총 6개 생산 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며, 건설에는 총 2,014억 원이 투자될 예정임.
- 자싱공장은 2027년 1월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시 연간 최대 8.4억 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
- 자싱공장 생산제품은 전량 중국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공장 완공 시 국내외 5개(국내 4개, 해외 1개) 공장의 연간 불닭볶음면 생산량은 35.2억 개로 증가할 전망임.

자료: 삼양식품 홈페이지; 삼양식품 보도자료(2025. 7. 3.), 「삼양식품, 해외 첫 생산기지 중국 자싱시에 착공」(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1. 26.)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다섯째, 의류 브랜드인 츄(CHUU)가 있다. 츄는 2012년 설립된 한국 패션 브랜드로, 현지 파트너십과 SNS 마케팅을 결합하여 중국 사업을 확장해 왔다. 특히 한국 브랜드임을 내세우기보다는 브랜드 자체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트렌디한 이미지로 승부하는 전략을 취했다. 츄는 사업 초기부터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Tmall 등 온라인에서 먼저 팬덤을 구축한 뒤 2021년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했다. 츄는 18~24세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타깃해 개성 있는 스타일(힙합류)의 의류를 판매하며 브랜드 포지셔닝을 공고히 구축하고, 매장마다 별도의 포토존을 조성하여 소비자가 인증 사진을 촬영·공유하며 자발적으로 SNS 홍보에 나서도록 유도하였다.[154] 현재 츄는 중국 전역에 140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155]

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분석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연구원과

154) KOTRA해외시장뉴스(2023. 9. 13), 「중국의 오프런 매장과 SNS 인기상품, 알고 보니 한국 브랜드?」, (검색일: 2026. 3. 23.).
155) 츄 홈페이지(검색일: 2026. 3. 23.).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202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매년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을 작성하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해외 경영상황을 조사하고 경영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 KOTRA 역시 매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진출 기업의 일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산업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156]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과 시기별 애로사항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결과를 종합해 보았다.

지난 5년간 보고서의 애로사항을 종합한 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매년 상이하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시설 가동 중단과 매출 급감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리오프닝 이후에도 중국의 내수시장이 회복되지 않아 현지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표 5-9 참고).

표 5-9. 최근 5년간 한국기업의 애로사항(2020~24년)

연도	1순위	2순위	비고
2024	현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로컬 기업의 성장이 수요 부진을 제치고 1위로 등극
2023	현지 수요 부진	현지 경쟁 심화	리오프닝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중국 내수 경기 반영
2022	인건비 상승/인력난	코로나19 방역 규제	상하이 봉쇄 등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직격탄

156) 산업연구원이 직접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기획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가 공동주관 형태로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중국한국상회가 실질적인 조사 실시에 협조하여 매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 실태조사 응답기업은 총 500개사이며,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체의 66%(328개사)로 전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5-9. 계속

연도	1순위	2순위	비고
2021	수출 부진/ 공급망 교란	현지 수요 부진	글로벌 물류 대란 및 미중 갈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2020	코로나19 불확실성	현지 수요 부진	팬데믹 초기 발생으로 인한 가동 중단 및 매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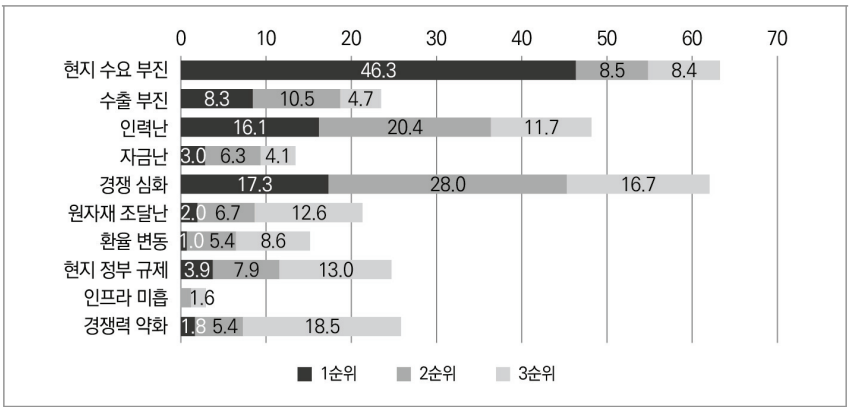
자료: KIET,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판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조사 결과에서 전체 업종에서 수요시장의 변화(24%), 중국정부의 정책(21%), 생산비용의 상승(18%), 정치적 제재(15%), 외자기업 규제(11%), 불공정 경쟁(11%) 등 영향으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57]

한편 휴대폰·가전, 섬유·의류 분야에서는 인력난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서비스업의 금융 분야는 현지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를 공동 1순위로 답했다.[158]

그림 5-6.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2024년)

(단위: %)



자료: KIET(2024),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 p. 52.

157) KIET(2024),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 p. 17.
158) 위의 자료, pp. 52~53.

최근 5년 사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게 새롭게 부각된 애로사항 중 하나는 기술자산 유출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핵심 산업 기술자산의 유출 또는 유출 위협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42%의 진출기업이 '유출' 또는 '유출 위협'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 조사 대비 상승한 수치다.[159] 핵심 산업 기술자산의 유출 또는 위협의 주체는 현지 고용인, 협력업체나 거래처, 경쟁업체로 조사되었다.

주요 피해 업종으로는 과거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반도체(HBM 등), 이차전지(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의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집중되고 있었다. 핵심 산업 기술자산의 유출 형태에 대하여 중국진출 제조기업은 자료 탈취 후 이직(50.5%), 판매처의 기술자료 요구(19.5%), 합작사의 기술자료 요구(15.0%) 순으로 응답했다(표 5-10 참고).

표 5-10. 기술 유출 관련 유형(2024년)

순위	유출 유형	응답 비중(%)	주요 내용 및 특징
1위	자료 탈취 후 이직	50.5	- 현지 고용인이 자료를 가지고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2위	판매처의 기술자료 요구	19.5	- 제품 판매 과정에서 거래처가 기술 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3위	합작사의 기술자료 요구	15.0	- 중국 내 합작 파트너사가 기술 자료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4위	현지 정부 및 기업감사	7.5	- 정부 당국의 조사나 감사를 통한 기술 정보 노출
5위	설비장비의 절취	5.0	- 물리적인 설비나 장비를 훔쳐가는 형태
6위	해킹으로 기술자료 탈취	2.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부로부터의 자료 해킹

자료: KIET(2024),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 p. 84.

이에 우리 기업들은 향후 핵심 산업 기술자산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조업체의 경우 정부 지원 중 신고상담체

159) 위의 자료, p. 77.

계 구축(23.2%), 기술보호 교육 지원(23.0%), 보안체계 컨설팅(22.2%), 법적 대응 지원(20.9%)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서비스업체의 경우 신고상담체계 구축(24.2%), 법적대응 지원(23.5%), 보안체계 컨설팅(19.8%)이 필요하다고 응답[160]했다.

그 밖에는 중국정부의 환경 규제, 노동 규제, 철수 어려움도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청산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글상자 5-4. 중국진출 외국 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철수하는 방식은 크게 ① 청산(해산·말소), ② 지분양도, ③ 파산임.
- ① 중국에서 외국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그 산하 성·시 기관으로부터 상호 사전 심사, 회사 등록 및 회사 등록 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회사를 폐업할 때도 SAMR에 신고해야 함.
- ② 지분양도는 현지 파트너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뜻하며, 공상 변경등기 및 세무 신고 필요함.
- ③ 파산 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법원 주도로 관리인 지정하고 채권자 집회 및 재산 분배를 진행함.

중국진출 외국인기업의 청산 절차

자발적 해산 및 청산 절차	기간
① 이사회·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② 청산위원회 구성 및 설립 신고(SAMR) ③ 채권자 공고(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등 45일 이상)(SAMR) ④ 세무 정산·세무말소(세금 완납, 세무조사 가능) ⑤ 채권·채무 정리 및 잔여재산 분배 ⑥ 해관(통관) 말소(수출입 기업의 경우) ⑦ 외환계좌·은행계좌 폐쇄(은행, 외환관리국) ⑧ 공상(사업자등록) 말소 등기(SAMR)	6개월~1년 이상 (세무조사 여부에 따라 장기화 가능)

자료: "How to Close a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in China"(2020. 6. 23.), (검색일: 2026. 1. 26.)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160) 위의 자료, p. 88.

또한 최근 2~3년 사이 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중국정부의 법적 규제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국「반간첩법」개정[161]「데이터 보안법」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중국 투자 구조조정 사례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수교 이후 빠르게 확대되면서 한국 해외투자에서 핵심 지역이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해외투자의 약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성장 방식 전환과 성장 둔화, 미중 갈등, 코로나19 이후의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흐름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가 급감하면서 신규 대중국 투자가 전년 대비 77.8% 감소하는 등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된 반면, 미국 및 ASEAN 국가로의 투자 다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과거의 '핵심 투자축'에서 점차 전략적 재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구조를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대중국

161) 중국의「간첩법」개정으로 '간첩 행위'의 정의가 모호하게 확대되어, 우리 기업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시장 조사나 내부 데이터 전송조차 간첩 혐의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2024년 말,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가 이 법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데이터 보안법」제정으로 중국 내에서 생성된 '중요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엄격히 제한, 본사와의 기술 공유가 차단되거나, 반대로 중국정부의 데이터 접근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하다.

투자는 양적 확대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 리스크 관리, 투자 지역 다변화 전략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 해외투자국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과거 저임금 활용을 위한 가공무역 기지에서 내수시장 공략으로 진화해 왔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 비중은 2.5%까지 급감했다. 이는 경기 순환적 요인을 넘어 미중 갈등, 중국의 성장 둔화, 현지기업과의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둘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로 ASEAN과 미국으로의 이전이 심화되었다. 중국의 투자 환경 악화(인건비 상승, 환경 규제 등)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ASEAN(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미국으로 재편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자제품,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의 핵심 기지로 부상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가 집중되며 한국의 제1순위 투자 대상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셋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이 다양해졌다. 특히 기술 유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진출 기업들은 현지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외에도 핵심 산업 기술자산의 유출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및 「데이터 보안법」 시행은 우리 기업들에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도 있다. 전반적인 대중 투자 감소세 속에서도 젠틀몬스터, HL만도, 코스맥스, 삼양식품, 츄(Chuu) 등은 현지화 및 시장 개척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코스맥스는 중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JV)이나 ODM 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리를 확보하는 모델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중국의 온라인 시장과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R&D 투자가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6장 결론

1. 요약

가. 중국 외국인투자 환경 및 구조변화

최근 중국은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에서 벗어나 자국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를 능동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외국인투자 장려목록'과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해 고기술·혁신 FDI는 적극 장려하는 반면, 고오염·고에너지 소비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규제하는 선별적 접근을 취해 왔다. 나아가 중국정부는 서비스 무역을 상품 무역과 함께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디지털금융,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문화·콘텐츠 등 신흥 서비스 분야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제공함에 따라, 해당 분야로의 서비스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정부가 유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문화되고 지식 집약적인 '현대 서비스업(modern services)'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CIFTIS)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외국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정비해 왔으며, 특히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시장 개방 확대는 FDI 대상 업종의 다양화를 견인한 중요한 제도적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은 외자 3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 「외자기업법」(1986),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을 대체하면서, 다양한 투자 구조와 업종 간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제약을 해소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 경쟁 보장은 특히 서비스·기술 분야 외국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이다.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행정 절차 간소화와 법적 보호 체계 강화를 지속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선별적 개방' 전략을 취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부문을 완전개방(네거티브 리스트 축소)하고 서비스업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노동집약적 생산거점형 투자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및 과학연구 서비스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 기술형 유치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5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탄소중립, 반도체 핵심 소재, 바이오 의약 등 미래 신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중국 FDI는 구조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외환관리국 기준 중국 FDI 규모는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분기별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 「반간첩법」 개정 및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중국 내부의 경기회복 지연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현재 중국의 FDI는 단순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 조정기에 진입했다. 실제 유입된 현찰을 집계하는 외환관리국 통계는 급감했으나, 기존 투자의 지속과 재투자를 포함하는 상무부 통계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완만하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2025년 외국인투자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행 중이다. 방안에서는 투자유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기업(BMW 등)의 경우 중국 내 재투자를 확대하기도 했다. 즉 글로

벌 기업들이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번 이윤을 다시 현지 R&D 센터 등에 투입하는 현지화 심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중국 FDI의 투자감소는 전면적인 투자 철수라기보다는 신규 진입과 대형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결정이 신중화되고, 투자 방식과 산업별로 상이한 조정이 병존하는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1. 중국 외국인투자(FDI)환경과 구조변화 요약

구분	과거 (2010년대)	최근 5년 구조 변화 (2019~2024/25)	핵심 시사점
FDI 규모 지표	국제수지(BOP)기준 FDI와 실질투자 흐름이 대체로 일치	국제수지(BOP)기준 FDI는 급감했으나 실제 이용 FDI는 상대적으로 견조	통계상 FDI 급감이 곧 투자 철수 의미는 아님
FDI 감소 원인	글로벌 경기·비용 요인 혼재	금리 격차 확대, 이익 재투자 축소 등	구조적 탈중국보다는 순환적 요인 우세
지정학·정치 요인	미중 갈등 본격화 이전	정치적 거리 확대에도 FDI 유의미한 감소한 증거는 없음	지정학 리스크 ≠ 즉각적 투자 철수
자금 흐름 구조	신규 투자 + 이익 재투자 중심	이익 송금 증가, 내부대출 상환 확대	다국적기업의 재무 전략 변화
산업별 구조 (감소)	부동산·유통·전통 제조 비중 큼	부동산·유통·전통 제조 FDI 감소	내수 둔화·과잉공급·경쟁 심화
산업별 구조 (증가)	노동집약 제조 중심	첨단 제조·과학기술·R&D 투자 증가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과 부합
제조업 내 변화	범용 제조·조립 위주	NEV·전자·첨단부품 중심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 핵심 노드로 활용
서비스업 변화	유통·소비 서비스 중심	ICT·연구·기술서비스 확대	데이터·기술 중심 서비스로 이동
투자국 구조	홍콩 경유 아시아 중심	아시아 지속 + 유럽·미국 투자도 증가	탈중국보다는 투자 경로 재편
정책 환경	개별적 개방·허가 중심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장려산업 확대	제도적 개방은 지속

표 6-1. 계속

구분	과거 (2010년대)	최근 5년 구조 변화 (2019~2024/25)	핵심 시사점
중국정부의 정책적 대응	투자 유치 정체	2023~2025 연속 외자 유치 강화 정책	투자환경 개선 의지 명확
종합 평가	양적 성장 중심	양 → 질 중심의 구조 전환	전체 FDI 규모는 감소, 질적 고도화·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

자료: AMRO(2025. 4. 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특징

주요국의 중국 내 투자는 다음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는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을 관리·분산하는 디리스킹을 핵심 기조로 하는 대외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망 다각화는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관리하는 선별적 디리스킹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독일기업들은 핵심 원료 및 중간재 조달망은 중국 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중국 내 생산은 중국 시장 대응에 한정된 현지 완결형(local-for-local) 구조로 재편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서 독일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시장 확대·비용 절감형에서 중국 내 생산·공급망·연구개발 기능을 현지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독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대중 투자 확대는 신규 자본 유입보다는 기존 자회사의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성숙 사업군(자동차, 화학, 기계장비 등)의 경우 재투자이익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에서 번 돈으로만 설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중국 내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중국 내 시장 지배력은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높은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좁게 특정하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강한 차단 장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0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크지 않으며 투자 잔액 역시 급감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신규 프로젝트가 감소하고 자본유입이 축소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신규 투자 확대를 자제하면서 기존 자산을 관리·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즉 독일과 유사하게 '확대 중단 속 기반 유지'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컴퓨터·전자 부문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국기업의 투자가 확대-회수-선별 재투자라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전통 제조보다는 첨단·소재 중심으로 상대적 집중이 유지되며, 일부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강한 변동성과 정책 리스크 반영이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대중 서비스업 투자는 실물 연계 유통·정보 분야는 일정 부분 유지되나, 금융 및 지주회사 부문에서는 전략적 재조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가 일률적으로 축소되기보다 업종별 특성과 규제·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은 핵심 기술군인 반도체, AI 등 첨단공정은 본국으로 회귀하거나 거점을 이전하여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대표 기업 사례로는 세콰이어 캐피탈이 미국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경영권을 분리하고 중국 내 법인을 독립(2023. 6.)시키는 방법으로 중국 내 사업을 영위[162]하고 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중국의 새로운 법인인 홍샨(HongShan)을 설립하고, 미국 본사의 자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 펀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중국 법인과 본사의 지배구조와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하는 전략으로 대중국 투자를 시행하는 모습이다.

끝으로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공급망 다변화 및 'China+1' 가속화, 중국 내수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이원화 전략 등을 시행하

162) 중국 법인은 홍샨(HongShan, 红杉)이라는 독자 브랜드로 변경했다(홍샨은 '세콰이어'의 중국어 명칭임).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존의 세콰이어 캐피탈 브랜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 있다. 최근 일본기업은 현지 R&D를 강화하고 중국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위해 중산층·부유층 증가, 일본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호 유지, 지방 도시의 성장, 신산업(EV·AI·헬스케어)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공급망 단절을 대비하는 정책(생산 거점 이원화, JIC(Just-in-Case)방식, 사업구조 재조정, 일본 내 제조 및 조달 확대, 물류 차질 시 근교 생산 및 조달) 등을 모색해왔다.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대중국 전략은 철수·축소·현지화·협업·고부가 집중 등 다층적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산업별 다양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특징

1) 생산기지 역할 축소에 따른 다변화

중국의 제조 생산기지 역할이 약화되면서 대중국 투자 구조조정이 심화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22년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락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는 규모 면에서 축소되어 생산제조 기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사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급감은 반도체 투자 편중에 따른 착시 효과와 실질적 둔화가 모두 작용한 결과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대중 투자는 반도체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기업에 의한 일시적 대형 투자를 제외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이미 201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의 세계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약화되어 한국을 비롯한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동남아 등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등 탈중국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단절 경험과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리스크로 한국 제조기업들이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및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대중 투자 구조조정은 다음의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공장폐쇄 및 법인청산을 통한 자산 매각형이다. 우리 기업 중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 사업을 철수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중국 내 사업성 악화로 공장을 매각했다. 그 외 소비재 기업과 중소 의류기업 다수가 인건비 상승 등 비용상승으로 법인을 청산했다. 둘째,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유형이다. 전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등지로 이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내 공장을 매각하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글로벌 주력 생산기지를 전환했다. 셋째, 사업 축소 및 부분 철수형이다.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은 수익성 문제로 부문 매각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일부 라인을 조정하여 대규모 신규 투자는 자제하고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사업구조의 고부가가치 조정형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중국 내 현지 경쟁 심화로 고부가가치로 사업을 조정했다. 중국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차전지용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했다.[163]

2) 현지화를 통한 중국기업과의 협력기회 확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중국의 우수한 산업생태계를 활용하여 중국을 생산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탈중국과는 별개로 중국에 대한 소규모 지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그린필드와 M&A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 현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지분투

163) 「LG화학도 뛰어들었다..'LFP 양극재'가 뭐길래..K배터리, 개발 전쟁 활활」(2023. 9. 24.), (검색일: 2026. 1. 20.).

자 형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현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내 사업을 성공한 기업들도 다수 있다. 사업을 성공한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중국의 시장 환경을 이해했다. 또한 중국 내 아웃소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품 품질 관리, 서비스 등 전방위로 분야를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2. 시사점

가. 전체 시사점

1) 투자 자산의 경량화 확대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한마디로 기존의 '대규모 설비·부동산·중후장대 제조 투자'에서 '서비스·기술·데이터·브랜드 중심의 자산 경량화 투자'로 변화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부의 경기·정책 변화와 글로벌 FDI 자체의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과거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토지·공장·대규모 고정자산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R&D, 설계, 인증, 소프트웨어, 유통망, 브랜드 운영, 지역본부, 공급망 관리, 의료·통신 등 규제개방형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경향이 바뀌고 있다. 중국정부가 2025년 외자 안정화 계획에서 부가통신, 바이오테크, 외자 단독 병원 등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를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이다. 2025년 초 중국 상무부도 서비스업 개방을 통신·헬스케어·교육 등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감(그린필드 투자 감소)하지만 신규투자 법인 수는 증가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본 집행보다는 우선 시장 내 법인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라

이선싱·프랜차이징·서비스 계약 등 상업 약정에 기반해 현지 법인과 수익 흐름을 연결하는 다중 계약 구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외국인 직접 소유가 제한된 소매·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산경량화 투자의 대표적인 투자 형태다.

2) 대중 R&D 투자 확대

중국의 잠재 소비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R&D 현지화 및 고도화 시행이 필요하다. 중국의 주요 투자국들은 더 이상 중국을 '저비용 생산지'가 아니라 '거대 소비시장'으로 재정의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을 활용한 수출 지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영비용 상승, 국내 경쟁 심화 등 더 이상 기존의 수익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 경제수준이 발달하면서 소득이 증가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외식·문화·전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투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중국시장에 접근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 산업구조와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BMW는 생산뿐 아니라 R&D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역시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안후이성에 첫 번째 해외 풀 프로세스 R&D 기지를 마련하여 소프트웨어부터 차량 검증까지 전 과정을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다.[164]

164) "Economic Watch: German firms amplify innovation-focused investments in China" (2025. 12. 17.), (검색일: 2026. 3. 20.).

3) 첨단기술 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 흐름을 파악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또는 정부 장려 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신흥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진출을 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서비스 세부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 전자상거래·디지털금융·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헬스케어·교육 등 분야는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시장 자체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중 성장 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장려산업목록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반하여 특정 산업(첨단제조업,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기업이 대중국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 이러한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 내 외국인투자 흐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제조 분야에서도 '전통 제조 축소, 첨단 제조 확대'라는 구조 개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 대상이 기존의 철강·섬유·전자조립에서 스마트제조·의료기기·EV·바이오 등으로 고도화된 것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제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디지털금융·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등 신흥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 금융·보험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 제공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관련 분야의 서비스 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련 전략 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내외자 구분 없이 법인세를 25% 부과하는 반면 첨단기술 서비스 기업과 오염방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표준 300만 위안 이하 소득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효세율 5%가 적용된다.[165]

---

165) "China, People's Republic of Corporate - Taxes on corporate income"(2025. 12. 31.), (검색일: 2026. 3. 25.).

한편 중국에는 여전히 업종별·지역별 장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혜택이 존재한다. 특히 자유무역시험구와 지역별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2개 지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중국 전역의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장려 산업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15%로 인하하여 적용하고(표준 세율은 25%), 금융, 통관, 국경 간 투자 규정 간소화 등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은 한국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로서 그동안 많은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경제성장 둔화 등 대내외 변화로 인해 대중국 투자의 위협요인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 간 정치적 불안정성을 확대시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향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글로벌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의 전략처럼 산업 특성과 기능에 맞춰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를 재배치하는 선별적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1) 현지화 및 현지 완결형(Local for Local) 사업 구조 구축

중국 내 사업을 독일, 일본 등처럼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 소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현지기업들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본사에 의존하는 기존의 의사결정 및 생산 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시장 내에서 R&D, 생산, 판매를 일원화하는 독립적인 완결형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독일의 바스프(BASF)가 이 전략으로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66] 독일의 전략은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시장의 구조변화, 중국 소비자의 빠른 기술 요구에 부합한다. 일본 다이킨공업의 사례처럼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지 고객의 니즈와 속도에 맞춰 '중국에서 개발하고 중국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중국 내 현지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세무적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 분리 등 기업의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어적 현지화를 추진하는 기업 대상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등이다.

2) 자산투자 경량화 및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합작 확대

자산투자의 경량화 측면에서 소규모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커지고 중간재 공급시장의 역할은 약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가공무역 공장 설립형의 투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직접 보유하지 않는 설계, R&D, 지식재산권 중심의 고부가가치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소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투자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지분매각이 유연하고 설비투자 없이 수익에 참여 가능하며, 리스크도 제한되고 상황 변화 시 지분을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탄력성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우선 자본의 송금과 회수에서 실질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 감소나 청산·해산 시 자금 역외 송금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청산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청산 초기 단계부터 이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역외 자금 송금 절차와 요건을

166) "German business chiefs clash with Berlin over China policies"(2022. 10. 14.), (검색일: 2026. 3. 20.).

거래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시부터 배당 정책·이익 분배 주기·역외 송금 경로를 계약에 명시하고, 주거래 은행의 SAFE(국가외환관리국) 처리 관행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167]

코스맥스 사례처럼 내수판매를 위해 현지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산을 효율화시키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DM(제조사가 설계까지 담당) 등 외주 생산제조를 활용하는 방식도 활용이 가능하다. 코스맥스 관점에서는 생산설비 투자 없이 제품의 공급이 가능하다. 때문에 핵심 역량(마케팅·디자인·R&D)에 집중할 수 있고, 글로벌 저비용 생산지 활용으로 원가 절감, 생산량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중국 투자 방향을 대규모 100% 단독 출자보다는 출자 비율 50% 미만의 지분 투자나 유력 현지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자산 경량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코스맥스가 중국 유수 화장품 기업과 합작 공장을 세워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HL만도가 지리 자동차 등 중국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현지 수주를 대폭 확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3) 글로벌 공급망의 이원화 및 'China+1' 전략 가속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중심의 일원화된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중국 내 사업은 철저히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공급망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수출용 생산기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국가로 분산하는 'China+1' 및 공급망 이원화 전략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대상국가와 업종을 다변화시켜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중국기업의 해외 생산거점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외에서 중국기업과 한국기업 간 경쟁 및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167) "China: foreign investment laws, market entry rules and emerging opportunities for 2026"(2025. 12. 23.), (검색일: 2026. 3. 20.).

있다. 최근 제3국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에코프로(EcoPro)와 중국 거린메이(格林美, GEM) 협력, 헝가리에서 한국 솔루스첨단소재와 중국 닝더스다이(宁德时代, CATL)의 협력[168]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역에서는 한·중·현지 3자 JV 등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확대되는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 및 축소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내 제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에 일회성 혜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질적인 인력난, 고비용 구조(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국내 복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으로 꼽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정부는 국내 복귀와 생산 거점 이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 발표한 '유턴지원 전략 2.0'[169]에 따르면 기존 정책에 비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인근 우방국과 협력할 때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저금리 및 금융 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공급망 기반 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R&D 및 첨단 제조 거점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집중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부품·소재·가공·중간재 등 제조생태계에 의존하므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면 첨단산업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170]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지원할 경우 첨단제조뿐만 아니라 공급망 기반 산업 등으로 정책 지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68) 최재희(2026), p. 16.

1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 5. 7.),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검색일: 2026. 3. 29.).

170) "Advanced manufacturing depends on a broad ecosystem of suppliers including traditional manufacturing firms that produce intermediate goods and components[OECD(2025. 10. 28.), pp. 187-210]."

4) 장려 산업 연계 및 프리미엄 시장으로 투자 방향 전환

중국정부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기술 제조업(의료기기, 반도체 소재 등)과 생산성 서비스업(R&D, 디자인 등),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 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중산층과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고부가가치 및 프리미엄 시장으로 타깃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일본기업의 유니참이 중국 전용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한국의 젠틀몬스터와 삼양식품이 철저한 현지화 마케팅과 고부가가치 한정판 제품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철저한 타깃 분석 기반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진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해외투자 통계를 세분화하고 설문조사를 체계화하여 투자 기회 및 리스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익 재투자 비중, 외화 송금 제한 실태, 현지 자산 건전성 등이 반영된 통계는 향후 한중 간 산업의 투자 전망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강화 및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중국은 최근 「반간첩법」 개정, 「데이터 보안법」 시행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 경영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현지 고용인이나 합작 파트너사를 통한 핵심 산업 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법률적, 행정적 규제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 직원의 자료 탈취 후 이직이나 합작사의 부당한 기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보안 교육 강화, 보안 체계 컨설팅 도입, 핵심 데이터 접근 제어 등 강력한 기술 자산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문지영, 김영선, 조고운, 오윤미. 2021.「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지영, 오종혁, 김영선, 오윤미. 2022.「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민숙, 이효진. 2019.「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1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2024.『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

_____. 각 년판.『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양평섭, 나수엽, 문지영, 정지현, 최원석, 김홍원, 박민숙, 박진희, 이한나, 최지원, 김주혜, 강택구, 김권식, 김종선, 김한권, 이성규, 이현태, 조은교, 최필수. 2024.『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 1,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훈, 김홍원, 최지원, 김주혜, 최재희. 2019.「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19-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율빈. 2024.「중국 FDI 개방체제 수립의 국가전략적 배경」.『동아연구』, 제43권 1호(통권 86집, 2024), pp. 1~36.

정지현, 문지영, 오종혁, 이효진, 김주혜. 2024.「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원석, 문지영, 김영선. 2023.「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3-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재희. 2026.「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 현황 및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26-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지원, 양평섭. 2024.「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4-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지원, 박민숙. 2025.「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증가 배경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5-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2024.「최근 중국 서비스무역 동향 및 개방(네거티브 리스트)」. (8월 28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024.「최근 대중국 FDI 하락세 분석」. (2월 19일).
한국수출입은행. 2025.『202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24.「중국정부의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
현상백, 연원호, 나수엽, 김영선, 오윤미. 2021.『미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2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상백, 문지영, 박민숙, 오종혁, 오윤미. 2022.『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22-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내부 간담회 자료.
KOTRA. 2023.「주요국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조사」. (9월 22일).

[중문 자료]

谭小芬, 苏小湄. 2024.「中国外商直接投资的新特征、新挑战及对策」. 2024年 第9期. 现代金融导刊.
国家数据局. 2023.「“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2024-2026年)」.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15.「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_____. 2024.「推动大规模设备更新和消费品以旧换新行动方案」.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25.「《合格境外投资者制度优化工作方案》」.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12.「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_____. 2018.「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_____. 2022.「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1.「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_____. 2016.「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_____. 2021.「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_____. 2022.「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2年版)」.
_____. 2022.「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印发《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的通知」.
_____. 2022.「市场准入负面清单(2022年版)的通知」.
_____. 2025.「关于印发《市场准入负面清单(2025年版)》的通知」.
_____. 2025.「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5年版)」.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科学技术部, 财政部, 中国民用航空局. 2024.「通用航空装备创新应用实施方案(2024-2030年)」.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教育部, 科学技术部, 中国人民银行,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国家知识产权局. 2024.「关于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23.「《人形机器人创新发展指导意见》的通知」.
_____. 2024.「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
_____. 2024.「稀土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85号)」.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0.「健全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为更高水平对外开放保驾护航 — 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办公室负责人就《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答记者问」.
_____. 2021.「"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
_____. 2022.「中国外商投资报告 2022」.
_____. 2023.「中国外商投资报告 2023」.
_____. 2023.「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3年第23号关于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
_____. 2023.「商务部海关总署公告2023年第39号关于优化调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公告」.
_____. 2024.「中国外商投资报告 2024」.
_____. 2025.「中国外商投资报告 2025」.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19.『跨国公司投资中国40年』.
_____. 2022.『跨国公司在中国：全球供应链重塑中的再选择』. (6月).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社会保障部.2021.「维护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保障权益的指导意见」.
岸川 和馬. 2025.「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を俯瞰す~75 カ国·地域の役割から見る日本の姿~」.『大和総研調査季報 2025年 春季号』, Vol. 58.

[영문 자료]

AHK China. 2019. *German Investment in China: Changing Opportunities and Trends 2019*.
_____. 2024a. *Business Confidence Survey Report 2024/2025: Localization 3.0*.
_____. 2024b. *About the Business Confidence Survey 2024/25*.

AmCham China. 2024. *China Business Climate Survey 2024/25.*

AMRO. 2025. "Is Declining FDI into China a Cause for Concern?" China Economic Insights. (April 7)

Bajgar, Matěj, Giuseppe Berlingieri, Sara Calligaris, Chiara Criscuolo, and Jonathan Timmis. 2020. "Coverage and Representativeness of Orbis Data."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2020/06. OECD Publishing.

Deutsche Bundesbank. 2024. *Germany's international interconnectedness via foreign direct investment.* (October)

_____. 2025.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April 3)

Devesa, Tiago, Jeongmin Seong, Olivia White, Nick Leung, Michael Birshan, Jan Mischke, Camillo Lamanna, and Masud Ally. 2025. *The FDI shake-up: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today may shape industry and trade tomorrow.* McKinsey Global Institute(MGI).

Dylan Sutherland and John Anderson. 2015. "The Pitfalls of U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ata to Measure Chinese Multinational Enterprise Activity." *The China Quarterly*, 221, pp. 21-48.

Garcia-Bernardo, Javier and Frank W. Takes. 2018. "The Effects of Data Quality on the Analysis of Corporate Board Interlock Networks." Information Systems 78. (November).

Germ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AHK Greater China). 2024. *Business Confidence Survey 2024/25.*

Hideaki Kishida. 2025. "TRENDS IN FOREIGN INVESTMENT IN CHINA: BEYOND THE 'WITHDRAWAL' NARRATIVE – HAS CHINA LOST ITS APPEAL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 Mitsui & Co.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February 2025.

IMF. 2024.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ward and Outward.* (August)

Jones, J. and Fazio, G. 2022. *The Natur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reative Industries.*

Jungbluth, Cora, Jürgen Matthes, Sonja Beer, Gregor Sebastian, Max J. Zenglein, Friedolin Strack, and Ferdinand Schaff. 2023. "Profits of German investors in China - a first empirical stocktaking" Bertelsmann Stiftung.

Jürgen Matthes(IW Köln). 2023. “Deutsche Direktinvestitionen in China: Kaum Diversifizierung.” *IW-Kurzbericht,* 35/2023.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 (May 17).

Kalemli-Ozcan, S., Sorensen, B., Villegas Sanchez, C., Volosovych, V., and Yesiltas, S. 2015. *How to Construct Nationally Representative Firm Level Data from the Orbis Global Database*.

KEARNEY. 2025. *World at inflection: The 2025 FDI Confidence Index.*

Kennedy, Scott and Andrea Leonard Palazzi. 2024. Diversifying, Not Decoupling: Taiwanese Industry Responds to Geostrategic Risk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Kroeber, Arthur R., and Jonathon Marek. (2025). “China’s Economic Slowdown and Its Impact on Trading Partners.” NBR Special Report, No. 118.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Lardy, R. Nicholas.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_____. 2023.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5. The FDI shake-up. (September).

OECD. 2020. *OECD Compendium on Methods for the Analysis of Global Value Chains.*

_____. 2025.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5.* (October 28).

Poulsen, Lauge Skovgaard and Gary Clyde Hufbauer. 201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imes of crisis.” Working Paper Series.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January)

Rhodium Group. 2024. *China Diversification Framework Report.*

Sullivan, Jake. 2023. “Remarks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White House. (April 27).

The Federal Government. 2023. “Strategy on China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uly).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2024. *USCBC Member Survey 2024*. (September).

The World Bank. 202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 “Provisions Pertaining to U.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Final Rule)." (October 28).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ctober)
_____. 2023. "Executive Order 14105 -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August 9).
World Bank. 2022. *Businesses of the State: New Data for a New Research and Policy Agenda*.
Zhang, Qinchen. 2023. "Sectoral and Country-Origin Dynamics of FDI in China in 1997-2020." The Chinese Economy, 56(2), pp. 89-103.
Zenglein, Max J. and Mikko Huotari. 2025. "Caught in transition: Germany's dilemma over strategic recalibration with China." MERICS. (May).
Zeyi Qian, Junfu Zhang, and Qiangyuan Chen. 2025. "Estimating Round-Tripping FDI from Firm-Level Data in China." *International Studies of Economics*, 20(2). (June).

[온라인 자료]

「① 중국 생산법인도 매각…자산유동화로 자금 숨통」. 2025. 『톱데일리』. (1월 10일). https://www.topdaily.kr/articles/100807(검색일: 2025. 12.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5월 7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327(검색일: 2026. 3. 29.).
「'두 번째 中 공장 정리'…LG디스플레이, 난징 LCD 모듈 사업 매각」. 2026. 『디일렉』. (2월 9일).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52188(검색일: 2026. 2. 12.).
「'중국 진출 20년' 코스맥스의 진짜 노림수는」. 2024. 『비즈니스워치』. (6월 11일). https://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4/11/05/0032 (검색일: 2026. 2. 5.).
삼양식품 보도자료. 2023. 「삼양식품, 중국 광군제서 130억 매출 달성」. (11월 16일). https://www.samyangfoods.com/kor/publicity/press/ view.do?seq=1130(검색일: 2026. 1. 26.).

삼양식품 홈페이지. 「삼양식품, 해외 첫 생산기지 중국 자싱시에 착공」. 2025. (7월 3일). https://www.samyangfoods.com/kor/publicity/press/view.do?seq=1248&pageIndex=1&pageUnit=12&searchCateCd=035001&searchCondition=&searchKeyword=(검색일: 2026. 1. 26.).

위키피디아. "ZF Friedrichshafen." https://en.wikipedia.org/wiki/ZF_Friedrichshafen(검색일: 2026. 3. 25.).

「코스맥스, 中 상하이 화장품 기업 11위…글로벌 K-뷰티 위상 강화」. 2025. 『더 구루(The Guru)』. (9월 13일).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1709(검색일: 2026. 3. 20.).

코스맥스 홈페이지. 2024. 「코스맥스, 中 진출 20주년…현지화로 화장품 시장 '기준' 정립」. (10월 15일). https://www.cosmax.com/media/media-20241015/(검색일: 2026. 2. 5.).

「한샘, 상해법인 청산·계열사 매각…수익성 중심 '출구전략' 시동」. 2026. 『전자신문』. (3월 26일). https://www.etnews.com/20260326000269(검색일: 2026. 3. 30.).

「한샘, 중국 시공 법인 6년만에 청산…체질 개선 고삐」. 2023. 『전자신문』. (3월 19일). https://www.etnews.com/20230317000167(검색일: 2026. 2. 20.).

「大基金三期出手1640亿元，2025半导体行业动向如何？」. 2025. 『第一财经』. (1月 3日). https://www.yicai.com/news/102427078.html(검색일: 2026. 1. 20.).

「境外投资者迎来"大礼包"：准入提速、交易享国民待遇」. 2025. 『21世纪经济报道』. (10月 27日).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51027/herald/014f 542a1c06b1822063558f92a62e0c.html(검색일: 2025. 10. 29.).

三菱商事(中国). 2012. 「广州汽车和三菱自动车、三菱商事的中国合资企业-广汽三菱汽车开始营业」. (10月 12日). https://www.mitsubishicorp.com/cn/zh/news/2012/20121012001.html(검색일: 2026. 2. 4.).

全国人民代表大会. 2019.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12月 29日). http://www.npc.gov.cn/npc/c30834/201901/ffad2d4ae4da4585a041abf66e74753c.shtml(검색일: 2025. 10. 17.).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 2014.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4月 25日). https://www.mee.gov.cn/ywgz/fgbz/fl/201404/t20140425_271040.shtml(검색일: 2025. 10. 17.).

_____. 2018.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11月 14日). https://www.mee.gov.cn/ywgz/fgbz/fl/201811/t20181114_673632.shtml(검색일: 2025. 12. 17.).

_____. 2022.「国务院关于印发“十四五”节能减排综合工作方案的通知」. (1月 24日). https://www.mee.gov.cn/zcwj/gwywj/202201/t20220124_968089.shtml(검색일: 2026. 2. 10.).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4.「商务部、中国证监会、国务院国资委、税务总局、市场监管总局、国家外汇局令2024年第3号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 (11月 1日). https://www.csrc.gov.cn/csrc/c100028/c7516180/content.shtml.(검색일: 2026. 3. 25.).

_____. 2025.「关于加快推进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的通知」. (4月 11日). https://wzs.mofcom.gov.cn/zcfb/art/2025/art_869de097dd4640d3bb5e44338bc534b0.html(검색일: 2026. 2. 10.).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2023.「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 https://www.moj.gov.cn/pub/sfbgw/flfggz/flfggzbmgz/200306/t20030611_143456.html(검색일: 2025. 10. 15.).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24.「商务部、中国证监会、国务院国资委、税务总局、市场监管总局、国家外汇局令2024年第3号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 https://www.csrc.gov.cn/csrc/c100028/c7516180/content.shtml(검색일: 2026. 3. 25.).

中国政府网. 2022.「碳达峰碳中和 “1+N”政策体系已构建 “双碳”工作取得良好开局」. (9月 23日). http://www.gov.cn/xinwen/2022-09/23/content_5711246.htm(검색일: 2025. 11. 7.).

_____. 2025.「2025年稳外资行动方案」. (2月 17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2/content_7004409.htm(검색일: 2025. 9. 20.).

_____. 2025.「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税收抵免政策的公告」. (6月 27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7/content_7030227.htm(검색일: 2025. 9. 20.).

新浪财经. 2012.「广汽三菱低调成立三菱在华前景待」. (10月 15日). https://finance.sina.cn/sa/2012-10-15/detail-ikftssan6452434.d.html?from=wap(검색일: 2026. 2. 4.).

経済産業省.「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550120&tstat=000001011012&cycle=7&year=20240&month=0&tclass1=000001023635&tclass2=000001229185(검색일: 2026. 1. 12.).

_____. 2026.「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 (1月 21日). https://www.meti.go.jp/ covid-19/supplychain/index.html(검색일:

2026. 2. 13.).
経済産業省, e-Stat 政府統計の総合窓口.「第54回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550120&kikan=00550&tstat=000001011012&cycle=7&tclass1=000001023635&tclass2=000001229185&cycle_facet=tclass1%3Acycle&tclass3val=0&metadata=1&data=1(검색일: 2026. 1. 20.).
「日本の海外直接投資の動向」. 2025. *Law.asia*. (4月 7日). https://law.asia/ja/trends-japan-foreign-direct-investment/(검색일: 2026. 1. 23.).
「Apple 发起新的 7.2 亿元人民币投资基金, 加速在华清洁能源发展」. 2025. *Apple China Newsroom*. (3月 12日). https://www.apple.com.cn/newsroom/2025/03/apple-launches-new-720-million-investment-fund-to-accelerate-clean-energy-in-china/(검색일: 2026. 3. 25.).
"Apple aims to move more production out of China." 2023. *Reuters*. (December 8).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pple-aims-build-more-than-50-mln-iphones-annually-india-wsj-2023-12-08/(검색일: 2026. 3. 25.).
"Apple to expand applied research lab in China." 2024. *Xinhua*. (March 12). https://english.news.cn/20240312/b6429d9bea4d4f6985bd3e9b123613cf/c.html(검색일: 2026. 3. 25.).
"Apple to keep investing in China 'in a big way'." 2025. *China Daily*. (March 26). https://www.chinadaily.com.cn/a/202503/26/WS67e3c544a3101d4e4dc2b02b.html(검색일: 2026. 3. 25.).
"Apple's India iPhone output hits $14 billion." 2024. *The Economic Times*. (April 10).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technology/apples-india-iphone-output-hits-14-billion-report/articleshow/109184295.cms(검색일: 2026. 3. 25.).
Atlantic Council. 2023. "Running out of road: China pathfinder 2023 annual scorecard." (October 4).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report/running-out-of-road-china-pathfinder-2023-annual-scorecard/#:~:text=MOFCOM%20data%20is%20dominated%20by,in%20China%20fell%20by%2050(검색일: 2025. 11. 20.).
BASF. 2024. Annual Report 2024. https://report.basf.com/2024/en/(검색일: 2026. 3. 25.).

"BASF to invest in a new Verbund site in Guangdong, China." 2018. *BASF*. (July 30). https://www.basf.com/global/en/media/news-releases/2018/07/p-18-276(검색일: 2026. 3. 25.).

"BASF commences production of the first products from the core of the Verbund at its Zhanjiang Verbund site." 2025. *BASF*. (November 5). https://www.basf.com/global/en/media/news-releases/2025/11/p-25-226(검색일: 2026. 3. 25.).

"China: foreign investment laws, market entry rules and emerging opportunities for 2026." 2025. *Global Competition Review*. (December 23).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hub/fdi-regulation-hub/fifth-edition/article/china-foreign-investment-laws-market-entry-rules-and-emerging-opportunities-2026(검색일: 2026. 3. 20.).

"China no longer a top 3 investment destination for most US firms amid mounting business challenges." 2023.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1). https://www.scmp.com/economy/economic-indicators/article/3211902/china-no-longer-primary-investment-destination-us-firms-amcham-survey-shows(검색일: 2026. 1. 12.).

"China unveils biggest upgrade of foreign investor rules since 2020 to boost long-term inflows." 2025. *China Daily*. (October 27). https://global.chinadaily.com.cn/a/202510/27/WS68ff8a0da310f735438b73ac.html(검색일: 2026. 1. 20.).

"China's FDI in 2025: What the First 10 Months Reveal." 2025. *China Briefing*. (November 26).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s-fdi-2025-trends-opportunities/(검색일: 2026. 1. 20.).

"China sets up third fund with $47.5 bln to boost semiconductor sector." 2024. *Reuter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china-sets-up-475-bln-state-fund-boost-semiconductor-industry-2024-05-27/(검색일: 2026. 1. 20.).

CNBC Television. "Sequoia Capital to split into three firms, separating its China and India businesses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_99u4k_3yws(검색일: 2026. 2. 2.).

"ContiTech Qingdao R&D Center Opens." 2026. *Jinan Times*. (March 19). https://www.jinantimes.com.cn/news-310-5231159.html(검색일:

2026. 3. 25.).
"Daikin Releases Its Integrated Report 2025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5." 2025. *Daikin Global*. (September 26). https://www.daikin.com/press/2025/20250926(검색일: 2026. 2. 12.).
"Daikin to make big Asia push on energy-saving air conditioners." 2023. *Nikkei Asia*. (May 24). https://asia.nikkei.com/business/companies/daikin-to-make-big-asia-push-on-energy-saving-air-conditioners?utm_term=&utm_campaign=DA_Pmax_Sale&utm_source=google&utm_medium=cpc&gad_source=1&gad_campaignid=23662082107&gbraid=0AAAADqAKqcMLxi4DVWDuCRgGQbapuRyM&gclid=CjwKCAjwvqjOBhAGEiwAngeQnSo4tWWRNBqba1M9nIhuh72c0L_QXs9SNZSDV-zTcN-6PqZE6MlyrBoC3FwQAvD_BwE(검색일: 2026. 2. 12.).
"Daikin to wean itself off Chinese-made air conditioner parts." 2022. *Nikkei Asia*. (September 20). https://asia.nikkei.com/spotlight/supply-chain/daikin-to-wean-itself-off-chinese-made-air-conditioner-parts(검색일: 2026. 2. 12.).
"Dentons HK forms exclusive association with Dacheng 2 years after China split." 2025. *Legal Business Online*. (January 21). https://www.legalbusinessonline.com/other-news/dentons-hk-forms-exclusive-association-dacheng-2-years-after-china-split(검색일: 2026. 3. 25.).
"Economic Watch: German firms amplify innovation-focused investments in China." 2025. *Xinhua*. (December 17). https://english.news.cn/20251217/c49a9bcad71648138352e37d3c0688ce/c.html(검색일: 2026. 3. 20.).
Fang, Jing, Alan Collins, and Shujie Yao. 2021. "On the global COVID-19 pandemic and China's FDI."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9184197/#:~:text=world%20economic%20pattern,border(검색일: 2025. 12. 20.).
"GAC Mitsubishi Motors Co., Ltd., a Joint Venture of Guangzhou Automobile Group Co., Ltd.,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and Mitsubishi Corporation, Commences Operation." 2012. *ACN Newswire*. (October 12). https://www.acnnewswire.com/press-release/english/

11065/gac-mitsubishi-motors-co.,-ltd.,-a-joint-venture-of-guangzhou-automobile-group-co.,-ltd.,-mitsubishi-motors-corporation-and-mitsubishi-corporation,-co(검색일: 2026. 2. 4.).

"GAC Mitsubishi completes name change." 2024. Gasgoo. (March 6). https://autonews.gasgoo.com/articles/%20news/gac-mitsubishi-completes-name-change-70031720(검색일: 2026. 2. 4.).

"German business chiefs clash with Berlin over China policies." 2022. *euronews*. (October 14). https://www.euronews.com/next/2022/10/14/germany-china-insight(검색일: 2026. 3. 20.).

"German firms amplify innovation-focused investments." 2025. *Xinhua.* (December 17). https://english.news.cn/20251217/d97fb96a15d5436d963e2f9e8e34bf5a/c.html(검색일: 2026. 3. 20.).

"Germany's ZF board member calls China "fitness center" for automotive innovation." 2025. *Xinhua*. (July 17). https://english.news.cn/20250717/528ae9db9ca4404eb54bc91322616ff3/c.html(검색일: 2026. 3. 25.).

"GM orders suppliers to cut China ties." 2024. *CBT News.* (August 19). https://www.cbtnews.com/gm-orders-suppliers-to-cut-china-ties-reuters-reports/(검색일: 2026. 3. 25.).

Google Official. 2025. "Google I/O Connect China 2025." (January 1). https://ioconnectchina.googlecnapps.cn/intl/en_cn/(검색일: 2026. 3. 25.).

"How to Close a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in China." 2020. *China Briefing*. (June 23). https://www.china-briefing.com/news/how-to-close-wholly-foreign-owned-enterprise-china-step-by-step-process/(검색일: 2026. 1. 26.).

"HP plans aggressive shift away from China amid geopolitical risks." (August 7). 2024. Investing.com.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hp-plans-aggressive-shift-away-from-china-amid-geopolitical-risks-nikkei-asia-3561153(검색일: 2026. 3. 25.).

"IBM to close China R&D department, affecting over 1,000 jobs." 2024. *Yahoo Finance*. (August 26). https://finance.yahoo.com/news/ibm-close-china-r-d-073816945.html(검색일: 2026. 3. 25.).

iChongqing. 2025. "German Giant Liebherr Opens First and Only

Machine Tool Plant in SW China's Chongqing." (September 10). https://www.ichongqing.info/2025/09/10/german-giant-liebherr-opens-first-and-only-machine-tool-plant-in-sw-chinas-chongqing/(검색일: 2026. 3. 25.).

"Intel unveils additional investment in China to boost local supply chain." 2024. *Xinhua*. (October 28). https://english.news.cn/20241028/816ccf8190244c719bea809810a0730f/c.html(검색일: 2026. 3. 25.).

JBIC. 2024.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by Japanese Manufacturing." (December 12). https://www.jbic.go.jp/en/information/press/press-2024/press_00110.html(검색일: 2026. 1. 21.).

JETRO. 2025.「2025年度 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全世界編)(2025年11月)」. (11月).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25/01/4c547e5c52817994.html(검색일: 2025. 11. 20.).

_____. 2025.「2024年度 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 中国編」. (2月).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25/01/89d4adaf76c3d498.html(검색일: 2025. 11. 20.).

_____. 2025.「相次ぐ在中韓国系企業の撤退」. (1月 20日).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25/0101/091f587efd2a776b.html(검색일: 2026. 1. 21.).

_____. 2025.「中国で成功する韓国企業と新たな商機」. (1月 20日).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25/0101/be02997a8a2d47fd.html(검색일: 2026. 1. 26.).

_____. 2025.「第1項 日本の対外直接投資 2024年の日本の対外直接投資は2年連続で増加」. ジェトロ世界貿易投資報告. https://www.jetro.go.jp/world/gtir/2025/ch2/sec3/sub1.html(검색일: 2026. 1. 26.).

_____. 2025.「日本企業のASEAN投資が好調、収益も世界シェア2割に接近」. (4月 23日). https://www.jetro.go.jp/biznews/2025/04/e9924802a84366c6.html(검색일: 2026. 1. 23.).

JETRO China. 2019~23. 각 년판.「日资企业在亚洲的经营实态调查」. https://www.jetro.go.jp/china/data/manufacture.html(검색일: 2025. 11. 20.).

Just Auto. 2025. "ZF opens new brakes plant in Wuhan, China." (October 22). https://www.just-auto.com/news/zf-opens-new-brakes-plant-in-wuhan-china/(검색일: 2026. 3. 25.).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중국의 오픈런 매장과 SNS 인기상품, 알고 보니 한국 브랜드?」. (9월 1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80&pNttSn=205816 (검색일: 2026. 3. 23.).

「LG화학도 뛰어들었다..'LFP 양극재'가 뭐길래..K배터리, 개발 전쟁 활활」. 2023.『파이낸셜뉴스』. (9월 24일). https://www.fnnews.com/news/202309241400000507(검색일: 2026. 1. 25.).

"LinkedIn to phase out China local jobs app." 2023. *China Daily*. (May 9). https://www.chinadaily.com.cn/a/202305/09/WS6459f475a310b6054fad1ef8.html(검색일: 2026. 3. 25.).

Lundgreen's Investor Insights. 2025. "Japan's outward FDI under geopolitical uncertainty." (May 2). https://www.lundgreensinvestorinsights.com/japans-outward-fdi-under-geopolitical-uncertainty/(검색일: 2026. 3. 23.).

MarketScreener. 2023. "US consultancy Gallup withdrawing from China." (November 4). https://www. marketscreener.com/news/latest/US-consultancy-Gallup-withdrawing-from-China-FT-45242371/(검색일: 2026. 3. 25.).

MITSUBISHI MOTORS. 2023. "FY2023-2025Mid-TermBusinessPlan "Challenge 2025"." (May 10). https://www.mitsubishi-motors.com/en/investors/library/pdf/financial/2023/230310_EN.pdf(검색일: 2026. 2. 5.).

_____. 2025. "Mitsubishi Motors to Terminate Its Joint Venture Partnership with Shenyang Aerospace Mitsubishi Motors Engine Manufacturing." (July 22). https://www.mitsubishi-motors.com/en/newsroom/news release/2025/ 20250722_1.html(검색일: 2026. 2. 5.).

_____. "Company History." https://www.mitsubishi-motors.com/en/company/history/company/(검색일: 2026. 2. 4.).

"More chips: Bosch to invest on extending semiconductor production." 2022. *BOSCH*. (February 11). https://www.bosch-mobility.com/en/company/current-news/more-chips-bosch-to-invest-on-extending-semiconductor-production/(검색일: 2026. 3. 25.).

Nasdaq. 2023. "Dell looks to phase out Chinese chips by 2024." (January 5). https://www.nasdaq.com/articles/dell-looks-to-phase-out-chinese-chips-by-2024-nikkei-0(검색일: 2026. 3. 25.).

Nikkei Asia. 2020. “Unicharm takes on COVID-19 and rivals with ‘made in Japan’ masks.” (November 20). https://asia.nikkei.com/business/business-spotlight/unicharm-takes-on-covid-19-and-rivals-with-made-in-japan-masks(검색일: 2026. 2. 5.).

Nippon Steel Corporation. 2025. “Nippon Steel Corporation Announces 2030 Medium- to Long-term Management Plan.” (December 12).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nipponsteel.com/en/ir/library/strategy/pdf/20251212_100.pdf(검색일: 2026. 2. 4.).

PWC. 2025. “China, People’s Republic of Corporate - Taxes on corporate income.” (December 31). https://taxsummaries.pwc.com/peoples-republic-of-china/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검색일: 2026. 3. 25.).

“Qualcomm: Use Technologies to Enable Innovation and Industrial Ecosystem.” 2024. *China IP News*. (November 20). https://english.cnipa.gov.cn/art/2024/11/20/art_3090_196185.html(검색일: 2026. 3. 25.).

“RBI and CPE Complete Previously Announced Joint Venture to Reignite Growth at Burger King® in China” 2026. *RBI Official.* (February 2). https://www.rbi.com/English/news/news-details/2026/RBI-and-CPE-Complete-Previously-Announced-Joint-Venture-to-Reignite-Growth-at-Burger-King-in-China/default.aspx:(검색일: 2026. 3. 25.).

Rhodium Group. 2023. “When Multinationals Start De-risking, How Will Beijing Know?” https://rhg.com/research/when-multinationals-start-de-risking-how-will-beijing-know/(검색일: 2026. 5. 6.).

“SAP Asia Pacific announces new Business AI and cloud customers in Q4.” 2026. *SAP.* (February 3). https://news.sap.com/sea/2026/02/sap-asia-pacific-announces-new-business-ai-and-cloud-customers-in-q4/(검색일: 2026. 3. 25.).

Shenzhen Daily. 2026. “A close look at Apple’s applied research lab in Hetao, Shenzhen.” (March 17). https://www.eyeshenzhen.com/content/2026-03/17/content_31980656.htm(검색일: 2026. 3. 25.).

“Siemens expands China business.” 2023. *China Daily*. (June 16). https://www.chinadaily.com.cn/a/202306/16/WS648bee18a31a(검색일: 2026.

3. 25.).
"Six banks to invest in big way in IC fund." 2024. China Daily. (May 29). https://epaper.chinadaily.com.cn/a/202405/29/WS6656727da310df4030f51e2c.html(검색일: 2026. 1. 20.).
'"SK hynix acquires Intel's NAND biz for $9 bil." 2020. *The Korea Times*. (October 20). https:// www.koreatimes.co.kr/business/tech-science/20201020/sk-hynix-acquires-intels-nand-biz-for-9-bil(검색일: 2026. 1. 20.).
Starbucks Official. 2025. "Starbucks and Boyu Announce Joint Venture for the Next Chapter of Growth in China." (January 24). https://about.starbucks.com/press/2025/starbucks-and-boyu-announce-joint-venture-for-the-next-chapter-of-growth-in-china/(검색일: 2026. 3. 25.).
Tesla. 2023. "Tesla Impact Report 2023." (May 23). https://www.tesla.com/ns_videos/2023-tesla-impact-report.pdf(검색일: 2026. 3. 25.).
"Tesla begins production at Shanghai Megapack Factory." 2025. *ESS News*. (February 11). https://www.ess-news.com/2025/02/11/tesla-begins-production-at-shanghai-megapack-factory-amid-intensifying-bess-price-war/(검색일: 2026. 3. 25.).
"Tesla's Shanghai gigafactory hits monthly delivery high in December, supplies over half of global deliveries for the year." 2026. *Global Times*. (January 5). https://www.globaltimes.cn/page/202601/1352343.shtml(검색일: 2026. 3. 25.).
"Tesla battery Megafactory in Shanghai launches production." 2025. *Xinhua*. (February 11). https://english.news.cn/20250211/484d5f4013eb44409a0dc21b4206c31d/c.html(검색일: 2026. 3. 25.).
"Tesla's Shanghai energy storage megafactory begins trial production." 2025. *Xinhua*. (January 1). https://english.news.cn/20250101/658d3e7cd56244d3876fee7865d3cb5f/c.html(검색일: 2026. 3. 25.).
"Tesla's Shanghai Megafactory delivers over 2,000 units in 2025." 2026. *Xinhua*. (January 30). https://english.news.cn/20260130/ed25cd41c3aa4513adae689de4001f99/c.html(검색일: 2026. 3. 25.).
"Tim Cook: No supply chain in the world is more critical than China." 2024. *China Daily*. (March 20). https://english.shanghai.gov.cn/en-Latest-WhatsNew/20240320/ 98aab2b5d8c3428480d36e771b75b024.

html(검색일: 2026. 3. 25.).
VOLKSWAGEN GROUP. 2024. “40 years of Volkswagen in China: Group accelerates its realignment with ‘In China, for China’ strategy.” (April 11). https://www.volkswagen-group.com/en/articles/40-years-of-volkswagen-in-china-group-accelerates-its-realignment-with-in-china-for-china-strategy-18322(검색일: 2026. 3. 25.).
“Why Germany finds it so hard to handle China | Berlin Briefing Podcast.” 2025. *DW News*. (December 26). https://www.youtube.com/watch?v=yZbwrUf-cbw&t=4s(검색일: 2026. 1. 14.).
“Yahoo leaves China for good, cites “challenging” environment.” 2021. *Yahoo Tech*. (November 2). https://tech.yahoo.com/general/articles/yahoo-leaves-china-good-cites-113126533.html(검색일: 2026. 3. 25.).
Yicai Global. 2024. “Apple to Add More Stores, Labs in China as Competition stiffens.” (March 12). https://www.yicaiglobal.com/news/apple-to-add-more-stores-labs-in-china-as-competition-stiffens(검색일: 2026. 3. 25.).
ZF Press Center. 2023. “ZF invests in Wuhan airbag production base and R&D center.” (July 21). https://press.zf.com/press/en/releases/release_58624.html(검색일: 2026. 3. 25.).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다이킨 홈페이지. (검색일: 2026. 2. 12.).
미쓰비시자동차 홈페이지. (검색일: 2026. 2. 4., 2. 5.).
삼양식품 홈페이지.(검색일: 2026. 1. 26.).
젠틀몬스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6. 1. 20.).
일본제철 홈페이지. (검색일: 2026. 2. 4.).
츄 홈페이지. (검색일: 2026. 3. 2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검색일: 2026. 1. 18., 1. 28., 2. 8., 2. 19., 3. 3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통계 DB. (검색일: 2026. 2. 8.).
経済産業省(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검색일: 2026. 1. 12., 2. 13.).
財務省(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対外·対内直接投資(地域別·業種別).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reference/balance_of_pay

ments/ bpfdii.htm(검색일: 2026. 1. 23.).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홈페이지. (검색일: 2026. 2. 23.).
CEIC Database. (검색일: 2025. 3. 1. 2026. 1. 12., 2. 22., 2. 23., 3. 23.).
Deutsche Bundesbank 홈페이지. (검색일: 2025. 12. 1.).
JETRO 홈페이지 및 통계 DB. (검색일: 2026. 1. 23., 1. 20., 1. 21.).
OCI(Orbis Crossborder Investment) Database. (검색일: 2026. 1. 23.).

Executive Summary

A Study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Minsuk Park and Jiwon Choi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environment has moved beyond the phase of quantitative expansion driven by low-cost labor and has entered a stage of qualitative upgrading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as the country shifts its policy orientation toward technological self-reliance, advanced industry development, and domestic demand-led growth under the framework of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新質生産力).

The Chinese government has lifted all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expanded market access in areas such as bio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thereby promoting institutional openness while simultaneously steering foreign investment toward high-value-added, advanced, and strategic industries. As a result, while the overall volume of FDI inflows into China has trended downward, the share accounted for by high-technology manufacturing and productivity-enhancing services—including R&D and technical services—has expanded, giving rise to a technology-intensive FDI inflow structure.

Notwithstanding this trajectory of liberalization, the operating environment for foreign firms has in fact deteriorated, against a backdrop of expanding geopolitical risks, including U.S.-China strategic rivalry and slowing domestic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enactment of the Data Security Law (数据安全法) and the Counterespionage Law (反间谍法) has broadened national security-related oversight. In addition, tight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Dual Carbon Policy (双碳政策), stricter enforcement of labor regulations, and rising social insurance costs have increased the operating burden o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China has further accelerated industrial policies aimed at building a domestic-centered supply chain through import substitution in critical technologies and the refinement of its 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system.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China's FDI environment, major economies have generally opted not for full-scale decoupling but for risk management (de-risking) and selective retention strategies calibrated to their respective industrial characteristics. Germany, recognizing China as an indispensable and irreplaceable market in core sectors such as automobiles and chemicals, has increased defensive localization by completing R&D and production cycles locally and reinvesting profits within China. The United States, operating under a "Small Yard, High Fence" strategy, has imposed stringent controls on investment in technology-sensitive areas such as semiconductors while allowing consumer goods and general manufacturing firms to diversify supply chains while maintaining

core functions in China. Japan, responding to geopolitical tensions and rising costs since 2012, has accelerated a "China + 1" strategy of relocating production bases to ASEAN and India, while concentrating its remaining China-based operations on high-value-added creation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firms targeting the domestic market.

These global de-risking and diversification trends are equally observable in Korea's investment flows toward China.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expanded rapidly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served as a cornerstone of overseas investment in the early 2000s. However, as China's investment climate has been reshaped by shifts in its growth model, slowing growth, U.S.-China tensions, and post-COVID supply chain restructuring, Korean investment in China has shown a pronounced downward trend. A sharp contraction in semiconductor-sector investment in 2023 further depressed new investment flows. As a result, China's share in Korea's total outbound FDI has shrunk considerab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EAN countries rapidly filling the void in what amounts to an ongoing "investment diversification." Meanwhile, Korean firms operating in China face compounding operational difficulties, including weak local demand, intensifying competition from Chinese rivals, and the threat of technology leakage in strategic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and secondary batteries. Nevertheless, even amid these adverse conditions, a number of Korean companies—including HL Mando, Cosmax, and Samyang Foods—have achieved noteworthy results by expanding their China investment through strategic joint ventures

with local firms, asset-light structures, and targeted premium localization strategies, a development that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cases of investment expansion demonstrate that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is transitioning from its former role as a "core investment pillar" to an object of strategic recalibration, reflecting the proactive restructuring of investment frameworks by Korean firms in response to external environment changes—namely, the reconfigur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and the expansion of geopolitical risks.

Drawing on this analysis, Korea's investment strategy toward China should be reorient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Korean firms should build a self-contained "local-for-local" business model that integrates R&D, production, and sales within China, thereby overcoming the constraints of a headquarters-dependent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conventional large-scale wholly-owned greenfield investment model should give way to asset-light approaches—including minority equity stakes,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and OEM/ODM outsourcing. China-based operations should be reconfigured to serve the domestic Chinese market, while export-oriented production bases are dispersed to ASEAN and India under a "China + 1" dual supply chain strategy. Investment should be redirected from low-value-added, commoditized markets toward high-value-added sectors actively encourag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cluding advanced-technology manufacturing, productivity-enhancing services, and green industries. Finally, dedicated complianc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navigate the tightened regulatory environment—including revisions to the Counter-Espionage Law and the enforcement of the Data Security Law—and proactive core technology protection mechanisms should be put in place, so as to sec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 China's increasingly legally uncertain market environment.

〈책임〉

박민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ms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 1, 2』(공저, 2024)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공저, 2024) 외

〈공동〉

최지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wchoi@kiep.go.kr)

저서 및 논문

『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 1, 2』(공저, 2024)
『중국경제 중장기 성장 전망과 성장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공저, 2025)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5년

25-01 아세안 주요국 여성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에 기반한 생산성 보완 연구 / 김제국·신민금·신민이

25-02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 김주혜·양평섭

25-03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성과 및 전망 / 이철원·임유진·김초롱

25-04 주요국의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전략과 시사점 / 김은미·김소은

25-05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 김영선·유광호

25-06 유럽의 첨단산업 지원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이현진·임유진

25-07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 홍성우·김승현

25-08 일본의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이정은

25-09 AI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 / 강민지

25-10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s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Towards a Matured Economic Partnership / Choong Yong Ahn·Jagannath Panda

25-11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 허재철

25-12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김정곤·나승권

25-13 브라질의 통상다변화 전략과 시사점: 유럽과 협력을 중심으로 / 박미숙·손은아

25-14 크루즈 산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방안 연구 / 이정균·김범환·장하이쉬

25-15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 안준모·정지은·김지현

25-16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과 한-EU 협력방안 / 오태현

25-17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성과와 과제 / 이철원·나수엽·임유진

25-18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 김민성·정민철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5-19 미중 무역 전쟁과 다차원적 복합게임: 중국의 대미 전략을 중심으로 / 이승주·김용신·증 명·우아정

25-20 개발도상국 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 강문수·오지영·윤정환·한선이·송지혜

25-21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구조변화 연구 / 박민숙·최지원

■ 2024년

24-01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 오수현

24-02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엄준현·이보람

24-03 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 정원혁·이예림

24-04 중국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 분석 연구: 고대역 메모리 및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 백서인·자오야리

24-05 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에의 시사점 / 강문수·이지은

24-06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 최용찬·허경무

■ 2023년

23-01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김제국

23-02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 이규엽·엄준현

23-03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 유광호·이지은

23-04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김납석

23-05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 김준동·고준성·강준구

23-06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 김지현

23-07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 김준동·이성봉·김혁황

23-08 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 김주혜

23-09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 김홍원·이한나

23-10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 정재완·이재호

23-11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 금혜윤
23-12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 최재희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월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25-21

A Study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Minsuk Park and Jiwon Choi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FDI)는 과거 양적 성장 중심에서 첨단기술 및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독일, 미국, 일본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전략 및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사항과 대중국 투자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대중국 투자 방향을 모색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9 788932 225395 94320
ISBN 978-89-322-2539-5
978-89-322-2064-2(세트)

정가 10,000원